

네덜란드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재,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며 위반 시에는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http://www.kotra.or.kr>
<http://www.globalwindow.org>

◀ 목 차 ▶

I. 국가일반

1. 국가개요 /1
2. 정치사회동향 /3
3. 한국과의 주요이슈 /7

II. 경제

1. 최신 경제동향 및 전망 /8
2. 주요 산업 동향 /10
3.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19

III. 무역

1. **교역동향**
수출입 동향 /21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23
2. **무역관련 주요제도 및 절차**
수입규제제도 /24
대한수입규제동향 /28
관세제도 /28
주요인증제도 /30
지적재산권 /33
통관운송 /35

IV. 투자

1. 투자환경 및 동향

- 투자환경 /36
- 외국기업 투자동향 /39
- 우리기업 투자동향 /41

2. 외국인투자 유치제도

- 주요 투자법 내용 /44
- 진출형태별 절차 /46
- 투자입지여건 /52

3. 사업관리

- 노무관리 /54
- 조세제도 /58
-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60

V. 기타 유용한 정보

- 1. 시장특성 /64
- 2. 물가정보 /67
- 3. 바이어발굴 /70
- 4. 상관습 및 거래 시 유의사항 /70
- 5. 무역, 투자 진출 시 애로사항 /74
- 6. 진출 성공, 실패 사례 /75
- 7. 이주정착 가이드 /78
- 8. 출장가이드 /85



1. 국가일반

1. 국가개요

가. 일반 사항

국 명	○ 네덜란드 왕국 - 영문명: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 현지어명: Koninkrijk der Nederlanden
위 치	유럽대륙의 북서부(50° 45'N - 53° 52'N, 3° 21'E - 7° 13'E)에 위치 동쪽으로 독일, 남쪽으로 벨기에, 북·서쪽으로는 북해에 면하고 있음
면 적	41,548 Km ²
기 후	온화 다습한 해양성 기후
수 도	○ 암스테르담 (Amsterdam) - 경제수도 ○ 헤이그(The Hague) - 행정수도 ☞ 네덜란드는 공동수도(Joint Capital)제도를 운영 중
인 구	○ 16,404천 명(2008.3.31) - 높은 인구밀도: 1km²에 475명 정도 거주(벨기에 137명) - 남성(8,114,774명), 여성(8,292,508명) - 2008.3.31 기준 - 20세 미만(24.0%), 20-40세(26.0%), 40-65세(35.3%), 65-80세(11.0%), 81세 이상(3.8%) - 2008.3.31 기준
주요 도시(인구)	암스테르담(75만), 로테르담(60만), 헤이그(50만), 유트레흐트(25만), 아인트호벤(21만), 틸버그(20만)
민족(인종)	네덜란드족(게르만족 계통), 소수인종(모로코, 터키, 수리남)
언 어	(공용어)네덜란드어 / (상용어)영어, 독일어, 불어
교 육	10학년 의무교육(100% 참가), 문맹율: 1%
평균수명	78세
종 교	카톨릭(32%), 신교(25%), 기타(5%), 무교(38%)
건국(독립)일	1558년
정부 형태	내각 책임제 / 입헌군주제 (Constitutional Monarchy)
국가원수(실권자)	Queen Beatrix Wilhelmina Armgard

주: 2008년 9월 기준

나. 경제 지표

기초 지표	○ 5,598억 유로(2007년) ○ 2007년 성장률: 3.5% ○ 구성: 농업 3%, 제조업 36%, 서비스 50%, 공공 부문 9% ○ 1인당 GDP: 약 34,000 유로
인구	16,404천 명(2008.3.31)
실질 경제 성장률	2007(3.5%), 2006(2.9%), 2005(0.9%), 2004(1.5%)
노동력	760만 명(2008.3.31)
실 업 륜	상업서비스 40%, 비상업 서비스 32%, 산업 11%, 농업 3%, 기타 3%
소비자 물가 지수	2007(4.5%), 2006(5.5%), 2005(6.25%), 2004(6.4%)
화폐 단위	2007(1.6%), 2006(1.1%), 2005(1.4%), 2004(1.2%), 2003(2.1%)
환 율	Euro (2002년 1월부터 변경)
외 채	1 EUR = 1,548.4 원 (2008.9.10) / 1 EUR = 1.4147 USD (2008.9.10)
이자율	총 GDP의 약 46% (2007년 말 기준)
수출입	2007(4.3%), 2006(3.75%), 2005(3.4%), 2004(4.1%)
	(Long-term Interest rate)
	○ 2007년 (수출 402,227백만 유로, 수입 358,690백만 유로) ○ 2006년 (수출 368,201백만 유로, 수입 331,358백만 유로) ○ 2005년 (수출 322,516백만 유로, 수입 287,827백만 유로)

주: 2008년 9월 기준

다. 산업 및 교역

주요 교역 대상 및 품목	○ 주요 교역 대상: EU(66.6%), 독일(22.3%), 벨기에/룩셈부르크 (11.9%) ○ 주요 교역 품목 - 수입: 원유, 자동자료처리기기, 사무용기기 및 부품, 승용차, 의약품 - 수출: 자동자료처리기기, 석유, 사무용기기 및 부품, 의약품, 의료기기
산업 구조	○ 운송, 물류, 금융 등 서비스 산업이 GDP 의 59%를 점유 (제조업 비중은 22% 수준) ○ ICT, 바이오산업을 주요 지식 육성 산업으로 판단 ○ 화학 산업 등 2000 년 이후 평균 10% 성장 주요 산업으로의 위치
투자	○ 미국이 최대의 투자국 1,450 억 달러(1,600 여 개 업체) ○ 임금의 상승으로 비 핵심 부문 이전 촉진, 신 정부 우려 ○ 2004 년 이후 ABN ARMO, Shell 등 IT 부문 아시아 인력 활용 등

주: 2008년 9월 기준

라. 한국과의 관계

1) 체결 협정

- 1966. 4. 29: 특허 및 상표에 관한 각서 교환 (66.4.29 발표)
- 1970. 4. 28: 사증면제협정 서명 (70.6.1 발효)
- 1970. 6. 24: 항공협정 서명 (70.12.30 발효)
- 1974. 10.16: 투자보장협정 서명 (75.6.1 발효)
- 1978. 10.25: 이중과세방지 협정 서명 (81.4.27 발효)
- 1979. 2. 28: 전대차관 협정 서명 (81.6.24 발효)
- 1982. 12. 1: 경제기술협력협정 서명 (83.8.1 발효)
- 1995. 2. 3: 해운협정 서명 (95.12.1 발효)
- 2002. 7. 3: 사회보장협정 서명 (2002.10.1 발효)
- 2007. 2.14: 세관협력협정 서명

2) 무역 관계

- 대한 교역
 - (한국의 수출) 2007 년 44 억 8,900 만 달러 (전년 대비 24.4% 증가)
 - 주요 수출품: 건설중장비, 경유, 무선 전화기, 승용차, 컬러 TV, 윤활유, 타이어, 무선 통신 기기 부품 등
 - 2008.1-6 월 총 수출액 24 억 6,000 만 달러(전년 대비 31.2% 증가)
 - (한국의 수입) 2007 년 37 억 300 만 달러 (전년 동기비 22.4% 증가)
 - 주요 수입품: 반도체 제조장비, 고철, 집적회로반도체, 합성수지, 낙농품, 의료용기기 등
 - 2008.1-6 월 총 수입액 19 억 5,200 만 달러(전년 대비 5.5% 증가)

3) 투자 관계

- 네덜란드의 대한 투자: 159 억 400 만 달러 (1962-2008 년 6 월 누계, 신고 기준)
- 한국의 대 네덜란드 투자: 28 억 5,400 만 달러 (1968-2008 년 6 월 누계, 신고 기준)

4) 교 민: 약 1,200명 (상사 주재원 포함)

- 한인회
 - 주소: Leksmondhof 163, 1108 DC, Amsterdam, The Netherlands
 - 전화 번호: 31-(0)10-415-8559 (최규중)

2. 정치 사회 동향

가. 네덜란드 정치 제도

1) 정부 형태

- 국체: 입헌군주국
- 정부 형태: 내각책임제
- 기본적 정부 기구: 국왕 (Crown), 내각 (Council of Ministers), 의회 (States General), 국왕 최고자문위원회 (Council of State) 및 사법부 (Supreme Court)

2) 국왕 (Crown)

- 국가 원수로 세습제에 의하여 계승
- 연정 구성 협상 조정자 및 수상 후보 지명자로서의 역할이 있으나 국사에 대한 권한은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다.

3) 내각 (Council of Ministers)

- 국정 최고 의결기관이며 총리가 의장임.
- 국정 전반에 관한 토의 및 의결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
- 행정부는 14 개 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무임소장관 및 국무상제도도 운용하고 있다.

4) 의회 (States General)

- 상원 (the First Chamber) 및 하원 (the Second Chamber) 양원제임.
- 하원만이 단독 법률안 발의·수정권을 보유, 상원보다 강력한 권한 보유
- 하원은 비례 대표제에 의한 직접, 보통선거에 의거 선출된 임기 4 년의 150 명의 직선 의원으로 구성되며, 상원은 지방의회의 간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임기 4 년의 75 명의 간선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네덜란드 주요 정치사

- 네덜란드의 정치사는 16 세기 합스부르크 왕가의 통치에 저항하는 여러 지역 세력들을 모체로 탄생. 1579 년 칼뱅주의자들이 주도하는 북부 7 개 주가 최초로 독립선언(현 네덜란드 지역).
- 반면 가톨릭이 대세를 이뤘던 남쪽 지역(현재의 벨지움)은 여전히 합스부르크 왕가의 통치에 귀속. 네덜란드의 신생 독립주 연합은 17 세기 세계적인 주요 해상 세력으로

성장했으며 네덜란드 역사의 황금기 구가. 인도네시아, 남인도, 스리랑카(당시 쉘론), 서인도제도를 식민지화.

- 18 세기는 독립주 협의 후퇴기로 1814 년 나폴레옹에 패한 후 오렌지 왕가 복위
- 새로운 네덜란드 왕국은 본래의 북부주(네덜란드)와 남부주(벨지움)을 모두 아우르는 것이었으나 1831 년 벨지움 혁명으로 인해 벨지움왕국의 탄생으로 분리
- 전 유럽을 휩쓴 혁명의 열기가 1848 년 네덜란드에도 영향을 미쳐 네덜란드는 입헌 군주국이 됨. 19 세기 후반부터는 정당형태의 정치세력이 등장하기 시작.
- 평민에 대한 참정권이 1917 시작되었으며 여성의 투표권은 1919 부터 허용. 네덜란드의 정치는 신조주의와 이상주의를 근간으로 하였으며 정치를 주도한 세력도 로마 가톨릭과 신교 칼뱅주의자였고 자유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도 연정에 합세.
- 네덜란드의 모든 사회경제 시스템(학교, 상업조합들, 스포츠클럽 등등)은 모두 이 네 가지 파벌에 따라 조직
- 네덜란드는 1 차 대전 때 성공적으로 중립노선을 지킬 수 있었지만 2 차 대전 때는 독일의 침공으로 종전 시까지 지배를 받게 됨. 당시 여왕인 빌헬르미나(Wilhelmina)와 정부는 추방당했으며 유대인 주민들은 거의 말살되었음(ex. 안네 프랑크).
- 종전 후 전쟁의 참화에서 네덜란드 경제는 급속한 회복세를 보였는데 이는 마셜 플랜으로 교역이 활발해 진 덕분이었으며 노동인력의 완전고용과 천연가스의 발견도 네덜란드 경제 회복에 큰 기여
- 네덜란드는 전후 유럽에서 가장 잘 조직된 사회복지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으며. 1949 년 네덜란드는 가장 중요한 식민지였던 인도네시아에 독립 부여
- 번영과 종교적 편향이 없는 사회시스템은 1960 년대부터 네덜란드 정치의 근간을 이루던 신조주의를 퇴색하게 만들었으며 신조주의자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중도 우파인 VVD 당과 다른 여러 신흥 정당을 지지하게 만들
- 1973 년 PvdA 가 이끄는 정부는 공공부문과 사회보장부문의 급속한 팽창을 이끌었으나 1 차 오일쇼크와 지나친 천연가스 생산의존 이후에 닥친 최악의 경제 침체와 맞물려 정부의 공공부채 증가와 실업을 급증(Dutch disease)이라는 실패를 경험.
- 신조주의 정당들은 1977 년 이어진 선거에서 CDA 당을 중심으로 세력을 규합하여 VVD 와 연정 구성. 1981-94 년까지는 CDA 가 정치를 이끌게 됨
- 1994 년 선거에서 CDA 는 독점적 지위 상실. 이로 인해 비종교 정당과의 연정을 만들게 되었으며 일명 좌-중도-우파 또는 퍼플(purple)연정이라는 이름 하에 PvdA, D66, VVD 가 참여. 연정은 PvdA 당수인 Wim Kok 가 이끌. 이 3 당 연정 체제는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 1998 년 까지 지속

다. 네덜란드 주요 정당소개

1) 기독교민주당(CDA – Christian Democratic Appeal)

- 1977 년에 로만 가톨릭과 신교주의자들의 연합으로 결성. CDA 는 전후 네덜란드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 2001 년 9 월 지도부 위기 이후 Mr Balkenende 가 당수로 추대되었으며 2002 년 치러졌던 총선에서 승리하였고 총리로 임명됨
- 그의 첫 번째 정부가 2002 년 10 월 붕괴되었음에도 Mr Balkenende 는 그의 네 번째 정부를 이끌고 있으며 VVD 중도우파연합을 구성하였고 세가 다소 약한 좌파 자유주의 정당인 D66 과도 2002-06 까지 연정을 구성.
- 2007 년 초부터는 중도우파연합을 PvdA 및 Christian Union 과 구성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CDA 는 네덜란드 정치의 안정세를 유지하는 서킷브레이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음.

2) 노동당(PvdA-Labour Party)

- 노동당은 사회민주주의 정당으로 중도 실용주의 적인 전통 유지. 1946 년 창당되었으며 2 차 대전 전 있었던 사회민주노동당(SDAP)의 후신으로 Mr Kok 의 지도 아래 80~90 년대 중앙 정치무대의 주력으로 자리잡음. 경제 효율성과 관련된 당의 노선이 대중의 반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당은 2002 년까지 총 세 개의 정부를 주도. 2002 년부터 Wouter Bos 의 주도하에 정당의 재기를 도모하고 있음

3)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국민당(VVD-The People's Party for Freedom and Democracy)

- VVD 는 1948 년 중상층과 전문직 종사자들을 위한 자유보수주의를 대표하는 정당으로 공공 부문 지출에 반대 입장과 유럽정치 통합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유일한 정당.
- VVD 는 1994~2002 기간 동안 주도했던 정부에서 대정적인 인기를 얻었으나 2002 년 5 월 총선에 실패했으며, 새롭게 결성된 신흥정당인 List Pim Fortuyn (LPF)에 패배.
- 이 신흥 정당은 이민과 공공 부문 지출에 있어 더욱 강경한 노선을 고수. 과거 VVD 정부시절 이민성 장관을 지낸 Rita Verdonk 가 이끄는 Proud of the Netherlands (ToN)로 부터도 정치적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임

4) 사회당(SP-the Socialist Party)

- 1972 년 소수 급진 좌파 정당으로 탄생한 사회당은 2002 년까지 남아있었으며 당시까지는 네덜란드 4 대 정당 규모로 성장. Jan Marijnissen 이 주도했던 사회당은 LPF 의 당수인 Pim Fortuyn 이 암살된 사건의 최대 수혜자로 2005 년 EU 헌법 반대 운동에 앞장섬.

- 그리고 이 반대 운동에서 Mr. Marijnissen 는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고 이로 인해 2006 년 총선에서는 PvdA 를 거의 압도할 수준까지 이름. 당수인 Mr. Marijnissen 는 2008 년 6 월 총선 이후 당수직을 사임
- 이 밖에 자유당(Party for Freedom), 기독교 연합(Christian Union), 민주 66(Democrats 66), Ton(Proud of the Netherlands) 등이 있음

라. 네덜란드 정부 주요 인사

- Prime minister: Jan Peter Balkenende (CDA)
- Deputy prime minister & finance minister: Wouter Bos (PvdA)
- Deputy prime minister & youth & family minister: Andre Rouvoet (CU)
- Key ministers
- Agriculture: Gerda Verburg (CDA)
- Defence: Eimert van Middelkoop (CU)
- Economic affairs: Maria van der Hoeven (CDA)
- Education, culture & science: Ronald Plasterk (PvdA)
- Foreign affairs: Maxime Verhagen (CDA)
- Health, welfare & sport: Abraham Klink
- Home affairs & kingdom relations: Guusje ter Horst (PvdA)
- Housing & environment: Jacqueline Cramer (PvdA)
- Justice: Ernst Hirsch Ballin (CDA)
- Living, urban areas & integration: Ella Vogelaar (PvdA)
- Social affairs & employment: Piet Hein Donner (CDA)
- Transport & public works: Camiel Eurlings (CDA)
- Central bank governor : Arnout Wellink

마. 최근 네덜란드 정치 동향 (2008.9월 기준)

- 현 연정체제의 의회 내에 내부에서 일련의 이슈에 따른 입장 차로 인해 연정 분열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가장 큰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 분야로 2009 년까지 점차적인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실업수당 등 비고용 인력에 대한 혜택부분도 쟁점이 되고 있다.
- 현 연정은 탄생 초기부터 다소 빼고덕 거리는 감이 있었으나 현 총리인 Jan Peter Balkenende 과 재정부 장관 겸 노동당 당수인 Wouter Bos 가 연정을 유지하지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어 당장의 파경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러 이슈에서 각 정파간 이견이 보이고 있으나 최근 2009 년 예산안 결의에 대해서는 연정 내 모든 정파가 공통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 그러나 정부는 실업 혜택에 대한 지원 축소를 계속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상업조합과 고용자 협회에서 지속적인 로비를 통해 관철시키기를 바라고 있는 정책으로 연정 사회당과 다른 정파의 협력 여부에 최종 추진 여부가 달려있다.
- 아울러 최근 정치 현안 중 주목할 만한 것은 9 월 16 일경 발표될 예정인 2009 년 예산안에 망명자 지원 정책 분야에 대한 증액 500 만 이 반영되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망명자(asylum seekers)들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한 것으로 올해 들어서만 전년 대비 4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 유럽 여타 국가에 대한 망명 신청자는 줄고 있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 네덜란드 최대 유력 일간지인 De Telegraaf는 "asylum explosion"라는 기사를 게재하기도 하였다.

- 연정을 주도하고 있는 CDA 소속 의원들은 망명객 증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현 망명객 수용 정책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한국과의 주요이슈

□ 네덜란드 시험용 원자로 한국산 진출 가능성 높다 (2008년 9월 10일 기준)

- 네덜란드 2차 평가 통과 ... 프랑스·아르헨티나와 3파전
 - 국내 언론 보도와 주화란 대사관에 따르면 최근 네덜란드가 올 연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해 발주할 예정인 연구용 원자로 `팔라스(PALLAS)`의 2차 심사를 한국 컨소시엄이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원자력발전소 첫 수출`에 앞서 연구용 원자로 첫 수출 달성 가능성이 높아졌다.
 - 연구용 원자로로는 전기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상업용 원자로와 달리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중성자선을 이용해 물체나 생물체에 대해 방사선을 조사하거나 동위원소를 생산하는 실험용 원자로를 말한다. 재료 의료 생명공학 물리학 화학 등 다양한 분야의 기초·응용 연구에 쓰이는 중요한 장비다.
 - 팔라스 프로젝트가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프로젝트 수주액이 약 1조 원으로 규모가 큰 데다 한국 입장에서는 첫 수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번 프로젝트를 한국이 수주하면 국산 연구용 원자로 수출 활성화에 기폭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2016년 가동 예정인 팔라스는 최대 열출력 80MW급으로 연구용 원자로 중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다.
 - 현재 경쟁자는 세계 최대 원전 회사인 프랑스의 아레바와 전 세계 연구용 원자로 시장의 50%를 점유하고 있는 아르헨티나의 인바프 등으로 역시 한국과 함께 2차 평가를 통과했다.
 - 한편 전세계적으로 원전 건설 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연구용 원자로 시장 규모 역시 급격히 확대될 전망이다. 원자력 연구원은 현재 세계 각국에서 가동 중인 연구용 원자로 250기로 분석한다.
 - 그러나 상당수가 노후해 교체 수요가 많은 데다 개발도상국의 신규 건설 수요도 적지 않아 향후 10년 내에 약 50기의 발주가 예상된다.
 - 하나로 원자로의 현재 기준 건설 단가가 약 2,500억 원이라는 점과 연구용 원자로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약 20조 원의 신시장이 열리는 셈이다.
 - 우리 컨소시엄은 한국원자력연구원, 두산중공업, 한국전력기술, 대우건설이 공동으로 추진 중이며 올해 12월 최종 낙찰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II. 경제

1. 최신 경제동향 및 전망

가. 네덜란드 정부 경제 목표

네덜란드 정부는 경제 활성화에 전력을 다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이 외에도 경쟁적인 경제 구조 건설, 행정 장애/규제 극복, 재정 건실화, 노동 경쟁력 확보 등을 경제 정책의 목표로 하고 있다.

1) 경쟁적인 경제구조 건설

네덜란드 정부는 네덜란드의 중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경쟁적인 경제 구조 건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쟁적 경제 구조 체제 확립을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 유치의 확대, 국내 산업의 활성화, 수출 촉진 등에 역점을 기울이고 있다.

2) 행정 장애/규제 극복

네덜란드 정부는 현재 네덜란드 및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불만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각종 행정 장애(red tape)를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다. 네덜란드 정부 주요 정책 중 하나가 기업에 대한 행정 장애를 5년 내 현재의 1/4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3) 재정 건실화

1980년대 대규모 항공기업인 Fokker사의 도산 등으로부터 시작된 경제 후퇴를 경험했던 네덜란드는 건실한 국가재정이 지속적인 성장의 원동력이라는 모토아래 안정적 재정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네덜란드 정부는 2007년에 이어 2008년 목표 중 하나를 네덜란드의 EMU 재정 균형으로 맞추고 있다.

4) 노동 경쟁력 확보 추진

네덜란드 정부는 현재 자국의 문제점 중 하나가 비효율적 노동 시장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유로존에서도 높은 노동 임금과 짧은 노동 시간이 네덜란드의 중장기적 경제 성장에 가장 큰 장애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

특히 노동 시간은 네덜란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네덜란드의 평균 노동 시간은 1,340시간으로 이는 유럽연합 평균 1,615시간, 미국 평균 1,815시간보다 낮은 수치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노동 시간의 확대를 추진하려 계획하고 있다.

네덜란드 경제기획청(CPB)은 5%의 노동 증가는 국내 총생산의 3~5%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고 분석하고 네덜란드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노동 시간을 확대 추진코자 했으나 현재 국민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어 당분간 추진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나. 최신 네덜란드 경제 동향 및 전망

1) 정부재정수지 (2008-2009)

2007년 정부 재정수지는 전체 GDP의 0.4%에 해당하는 소폭의 흑자를 시현하였다. 2008년도 정부예산에는 주요 분야에 대한 정부 지출 증가를 보충하기 위한 큰 폭의 세수익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위해 당초 올해 부가가치세 인상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2009년으로 연기된 상황이며 아마도 2010년까지 재연장 될 수 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업자들을 위한 고용주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일련의 계획들도 2009년 재정흑자 기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일부 세제개혁을 통해 마련될 재원들은 2008년까지는 GDP의 0.5%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일련의 조치들로 인해 2010년 에는 GDP의 1.1%까지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 통화정책 (2008-2009)

유럽중앙은행(ECB)이 2007년 6월6일 이후 최초로 2008년 7월3일 은행 간 리파이낸싱 이율을 4%에서 4.25%로 인상했다. 금번 조치는 2008년 6월 인플레이션이 4%를 기록함에 따른 것으로 ECB에서는 세계적인 유가 및 식량 가격 폭등에 따른 여파가 국내 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ECB의 회장인 Jean-Claude Trichet은 2009년에야 인플레이션이 잠잠해 질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으며 유로 통화 지역의 더딘 경제 성장전망에 따라 인상된 금리가 4%대로 다시 내려가기 위해서는 2009년에는 인플레이션이 2%대로 내려간다고 가정하더라도 2009년 중순 경까지는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네덜란드 경제성장 전망 (2008-2009)

네덜란드 경제는 2008년 상반기 3.6%의 성장세를 보일 정도로 나름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 성장세도 분기별로 구분해 본다면 첫 분기 2.8%에 이어 점진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2/4분기에는 경제 성장률이 0%를 기록했다.

2008년 1분기 경제 성장률로 전년동기대비 다소 낮은 성장세를 시현한 것이다. 2007년 네덜란드 경제성장이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리드되었던 반면 2008년에는 주요 요소들 예를 들어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 및 고용확대 분야 모두 예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상승과 실업률 증가로 인해 2008년 경제 성장률은 전반적으로 약 1.7%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2009년에는 1%로 하락세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투자관련 지출 증가율도 2006년 7.5%에서 2007년 4.9%로 줄어든 것으로 보이며 2008년부터 2009년 까지는 약 3%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EU와 여타 국가에 대한 수출 전망도 밝지 않은 편이다. 물론, 수입증가율도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수출 증가율을 상회할 것이므로 이는 전체적으로 GDP 증가세를 둔화시키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네덜란드의 주요 교역대상국들이 2008년지 경기 부진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네덜란드 경제 또한 그 여파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4) 환율 전망 (2008-2009)

유로화 대비 미달러화 환율은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가 이자율을 낮춘 후부터 2006년과 2007년 사이 주목할 만한 인상폭을 보였다.

그러나 최근의 환율 이상 상황으로 당분간 유로화 대비 달러화 환율은 계속 변동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며 2008년에는 평균 1유로당 1.54달러 선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경기가 회복된다면 달러화도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나 그래도 기존 2009년까지는 현재 기조를 일부 유지하여 1유로당 1.52달러에 이를 수 것으로 예상된다.

네덜란드 거시경제 지표

구분	2005	2006	2007	2008(전망치)
GDP(십억 유로)	505.6	534.6	556	582
GDP 성장률(%)	1.5	2.9	3.5	2.3
소비자신뢰지수(기준 100)	-22	10	15	14
생산자신뢰지수(기준100)	18	37	45	40
인플레이션(%)	1.4	1.1	1.6	2
실업률(%)	6.25	5.5	4.5	4.5
교역규모(백만 유로)	619,080	701,229	760,917	814,611
-수출	326,641	369,250	402,227	434,400
-수입	292,439	331,979	358,690	380,211

자료: CBS(네덜란드 통계청), CPB(네덜란드 기획경제부 2007.12.21)

2. 주요 산업 동향

가. 네덜란드 산업 동향 개요

네덜란드는 유통, 도소매 및 운송 등의 서비스 산업이 GDP 생산의 61.9%, 고용에서 62.5%를 점유하고 있을 정도로 잘 발달되어 있고, 원자재를 수입하여 완제품을 만들거나 완제품을 수입 하여 재수출하는 가공/중계무역이 발달되어 해외의존도가 높을 뿐 아니라 다국적기업을 비롯한 외국기업과의 합병을 통한 기업의 집중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주요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특히 네덜란드의 선도산업 분야들은 국제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에 의하여 대변되고 있는데 SHELL, AKZO NOBEL 그리고 DSM 등이 화학산업분야를 이끌어 가고 있으며 유니레버는 음식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전세계 가전 시장의 중요 거인 중의 하나인 필립스 또한 네덜란드 회사이며 또한 세계적인 유통기업인 A-Hold 역시 네덜란드 기업이다. 이러한 대기업의 와중에서 네덜란드는 소기업의 강세도 보여주고 있는데, 전체 기업 중 76% 이상이 10명 미만의 소규모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네덜란드 경제의 주춧돌을 이루고 있는 산업은 기술집약적 산업과 축적된 기술 인프라가 적용되는 산업들이다. 필립스의 경우는 전체 직원의 15%가 R&D분야에 종사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회사들과 연구소들의 끊임없는 노력에 힘입어 네덜란드는 생명과학, 정보산업, 그리고 소재산업 및 전자산업과 같은 분야에서 굳건한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

19세기 말부터 농업공황의 일대 시련기를 거쳐 근대화를 추진하면서 오늘날 네덜란드의 대표적인 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는 농업, 축산, 낙농업의 경우 네덜란드의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협소한 경지면적이나 집약농업이 행해진 관계로 감자 등의 생산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소 1두당 우유생산량, 달걀, 연유, 치즈 등의 수출량도 세계 최고이다. 농림업은 고도로 기계화되어 있으며 국내총생산의 약 4%, 노동력의 약 3.8%가 이 부분에 종사하고 있다.

네덜란드 노동인구 중 약 25%정도가 제조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데, 국제적으로 양질의 노동력으로 평가 받고 있으며, 노동생산성 또한 매우 높은 편이다. 네덜란드의 양질의 노동력과 함께 끊임없는 기술개발 노력이 화란 산업 발전의 원동력으로 꼽을 수 있다.

한편, 국제화된 기업문화 또한 경제발전의 주요 원동력으로 평가 받고 있다. AKZONOBEL, PHILIPS, SHELL, HEINEKEN과 같은 회사들은 그들의 활동영역을 국내에만 한정시키지 않고 국외에 많은 생산기지들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많은 수의 네덜란드 기업들이 외국기업에 의해 인수되고 있다. 현재 외국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만도 20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나. 주요 산업 동향

1) 자동차 부품 산업

네덜란드 자동차 부품 시장은 약 40억 유로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세부 품목별로는 타이어가 21%로 전체 부품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액세서리 12%, 차체부품 및 액세서리 10%, 기어박스 5% 등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자동차 부품별 비중

Tyres	21%
Accessories	12%
Body Parts and accessories	10%
Gear boxes	5%
Parts for other lifting, handling, and loading machinery	5%
Other parts for mobile equipment	5%
Others	36%

자료: CBI

EU 자동차 부품 시장 중 애프터 마켓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 OEM 마켓은 약 80%에 달한다. 그러나 네덜란드의 경우, 자동차 생산설비가 거의 전무하여 애프터 마켓의 비중의 타 EU 국가에 매우 높은 점이 특징이다.

네덜란드 차량 보유 대수 및 신차 등록 대수

(단위: 천 대)

연도	판매대수
2003	488
2004	483
2005	465
2006	484
2007	504

□ 차량 내구 연한 증가에 따른 A/S 부품 수요 증가

네덜란드의 신차 등록 대수는 99년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는 네덜란드 소비자들이 경기 침체로 인해 차량 교체 시기를 미루고 있는 것에도 일부 기인하지만, 주된 요인은 차량의 내구연한 증가에 있다.

2002년 기준 네덜란드 차량의 평균 수명은 6.5년이었으나, 신차 판매량의 감소로 인해 2007년 말에는 약 7년 정도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처럼 과거에 비해 차량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유지 보수를 위한 A/S 부품 수요가 OEM 부품 수요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 Rai Autovak 등 자동차 관련 기관들은 향후 5년간 애프터 마켓이 2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Distribution Channel

네덜란드의 신차 판매 시스템은 네덜란드 딜러협회(Netherlands Dealer Association/BOVAG-NDA) 관할 하의 3,300여 개 회사가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차량 브랜드별로 독립된 영역을 확보하여 영업 중이며, 이 같은 프랜차이즈 딜러시스템에 가입된 딜러들은 대부분 10명 내외의 종업원을 두고 있으나 과당경쟁으로 인해 신차판매가 원활하지 않아 이들 대부분은 판매차량에 대한 보수유지 영업을 동시에 영위하면서 딜러망을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 수천 개의 종업원 5명 이하의 Independent garages도 차량 판매 및 보수유지 영업을 하고 있는 데, 이들은 특정차량 메이커에 구속되지 않고 많은 종류의 차량을 동시에 취급하고 있으나 주로 중고차량이나 노후차량을 취급하고 있다.

이들 Independent garage들이 A/S용 부품의 주요 수요자라고 볼 수 있으며, 국내 중소 기업의 직수출 물량도 대부분 이들에게 공급되고 있다.

국내 수출기업은 기본적으로 모든 유통채널들을 통해 수출할 수 있으나, 실제 딜러십의 장벽이나 수입물량이 너무 작아서 직수출에 애로가 있다. 따라서 Independent garages에 부품을 공급하는 수입 및 도매상을 접촉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현재 네덜란드의 자동차 부품 도매업계는 최근 2년간 전체 도매상의 14%에 달하는 200개사가 다른 업체에 합병되는 등 큰 폭의 지각변동을 겪고 있다.

네덜란드 자동차 부품 도매업계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장기적인 거래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도매상의 수입규모, 타깃 시장 등을 주의 깊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유럽 물류 기지 구축

OEM 부품 시장의 경우, 애프터 마켓과는 달리 물류가 새로운 경쟁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유럽 내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재고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just in time' 배송을 요구하고 있다.

자동차 제조사들의 즉각 배송 요구는 국내 부품업체에게는 위기이자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후발 경쟁국과의 가격경쟁과 유럽 부품 공급업체들과의 배송 경쟁의 틈새에서 활로를 찾기 위해서는 유럽에 물류기지를 구축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다.

물류기지의 입지로서는 로테르담이 최적지로 손꼽히고 있으며, 기타 안트워프, 함부르크 등이 선호된다. 로테르담 등지에 물류기지를 운영할 경우, 1~3일 내에 유럽 주요국으로 배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럽 기업들과의 동등한 조건에서 가격 경쟁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중국 등 후발 경쟁국과는 배송 시간 단축 등 서비스 면에서 차별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 화학 산업

지구온난화를 방지를 목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키로 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가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발효됨에 따라 네덜란드 화학산업이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박차를 가하고 있다.

네덜란드 화학산업은 시장규모 340억 유로, 고용의 10%, 생산의 15%, 수출의 25%, R&D 투자 의 30%에 달하는 최대 산업분야 하나로서 2005년 기준 네덜란드 화학산업의 이익률은 약 9%대로 산업평균 이익률 6.3%보다 약 1.5배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네덜란드 화학산업이 대표적인 산업으로 발전하기까지는 정부 및 관련업계의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네덜란드 정부 및 관련업계는 네덜란드 화학산업 발전모델을 ‘환경친화적 산업기반 구축’이라는 대명제로 정의하고 중장기적인 성장방안을 모색함으로써 EU내에서도 가장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기반을 형성할 수 있었다.

□ 네덜란드 산업 분야 중 화학 산업이 가장 혁신적

네덜란드 조사전문기관인 EIM(Research Bureau EIM)은 58개 분야의 네덜란드 중소기업 대상으로 조사, 분석한 보고서를 통해 네덜란드 내에서 가장 혁신적인 중소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는 분야는 화학산업 부문으로 10점 만점에 8.21점을 획득했으며 ICT 분야가 8.09점, 기계산업이 7.79점 등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반대로 축산분야 및 소매판매업 분야가 각각 5.10점과 4.68점을 획득하여 네덜란드 중소기업 분야 중 가장 비혁신적인 산업분야인 것으로 동 보고서를 통해 나타났다.

EIM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네덜란드 화학산업분야 중 특히 페인트, 접착제, 향수, 고무 밴드 등이 가장 혁신적인 중소기업들이 집중되어 있는 분야라고 분석했다. 이는 90년대 중반 이후 상기 분야들이 중국, 동남아 국가 등 저임금 국가들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세계시장에 등장하면서 이미 사양화 되는 시점에서 생존을 위한 처절한 기업들의 전략이 오히려 경쟁력을 갖게 하는 데 일조하였다는 것이다.

네덜란드 화학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가장 우선적으로 기술지향적으로 회사의 시스템을 변경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시설투자를 아끼지 않았으며 이와 동시에 새로운 물류시스템과 서비스 도입, 친환경적인 상품개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향상시켜 세계 최고수준의 중소기업들로 성장했다는 것이다.

또한 시장의 협소함을 극복하기 위해 대부분의 종사기업들이 매출규모의 80% 이상을 수출에 집중함으로써 내수산업의 침체기에도 불구하고 연간 10% 이상의 고성장을 지속해 왔다는 점이 특징적인 사항으로 들고 있다.

□ 환경친화적 민-관 협력프로그램 'The Responsible Care Program'

1993년 네덜란드 정부 및 화학산업 관련업계는 환경문제가 2000년대에 더욱 핵심적인 이슈로 떠오르게 될 것을 감지하여 정부와 기업군과의 전격적인 협의를 통해 환경 친화적인 화학산업 발전프로그램인 'The Responsible Care Program'을 개발하게 되었다.

동 프로그램은 네덜란드의 중장기적인 화학산업의 경쟁력이 '환경친화'에 있다고 공동 인식에 기초하여 화학분야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은 매 4년마다 기업의 '환경 친화적 정책 계획서'를 정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매년 말 수행결과를 보고, 평가 받게 됨으로써 산업발전을 위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The Responsible Care Program'을 약 10년간 운영한 결과 네덜란드 화학공장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황가스(SO₂), 산화질소(NO_x), 휘발성유기 화학물(VOCs), 암모니아(NH₃) 농도가 약 50% 이상 감소되어 2010년까지 목표한 달성가능 수치의 90%까지 근접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업들의 구조조정 노력도 경쟁력 확보의 기반

화학산업에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은 환경 친화적 프로그램의 수행과 더불어 기업이익 증대를 위한 자구적인 구조조정 노력 및 혁신적인 경영도입을 병행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였다. 네덜란드 화학산업 관련기업들은 90년대 후반 전세계적으로 불어 닥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평균 30%에 이르는 구조조정을 단행함으로써 저비용, 최대효율의 가치를 노사간 이견 없는 타협으로 이끌어 냈다. 또한 생산/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재정비, 포트폴리오 경영방식채택 등 혁신적인 경영기법을 도입함으로써 위기 극복의 돌파구를 모색할 수 있었다.

□ 고객 마진보장으로 지속적인 거래 유지

마지막으로 네덜란드 화학산업 관련 기업들은 철저한 고객관리와 기업간 전략적 제휴를 강화함으로써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기울였다.

우선 고객관리의 경우 경기침체에 따른 바이어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구조조정에 따라 절감된 비용을 바이어들의 마진확대로 보장해 줌으로써 지속적인 거래를 유지하는 등 중장기적인 대응책을 강구해 왔다.

또한 바이어들이 요구하는 소품종, 특정품목의 오더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동종 기업간 전략적 제휴가 확대되었으며 이로 인해 정보 및 관련기술의 교환 등 전반적인 네덜란드 화학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 네덜란드 화학산업 성장산업으로 확고한 위치 굳힐 듯

네덜란드 화학산업은 불황기 속에서부터 운영되어온 환경친화적 민관협력프로그램이 금년도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라 더욱더 빛을 발휘해 성장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이와 더불어 기업간 전략적 제휴 강화, 고객에 대한 유연한 대응 등 기업들의 자구적인 발전방안들이 지난해부터 회복되고 있는 경기와 맞물려 시너지 효과로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네덜란드 화학산업은 상기와 같은 긍정적인 요인들로 인해 향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며 네덜란드 경제를 이끌고 나가는 주력산업으로 확고한 위치를 굳힐 것으로 전망된다.

3) 네덜란드 조선 산업

□ “Dutch LeaderSHIP 2015”

네덜란드는 자연적으로 국토가 바다와 인접해 있고 전 국민의 60%가 해수면 보다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국가다. 이런 바다와의 밀접한 관계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경제성장, 고용창출 등 다양한 혜택을 네덜란드에 제공하고 있다.

제방의 개발, 인공섬, 항구들, 해상물류, 어업 등의 사업이 대표적인 경제적 효과이며 이와 관련된 항만운영업체, 해상물류업체, 해군, 수산업, 조선산업, 조선기자재 및 서비스 제공업체 등이 발달했고 매년 20 만 명 고용과 120 억 유로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조선산업은 가장 핵심이 되는 분야로 연간 5 만 명 고용을 창출하면서 다양하고 혁신적인 선박들을 전세계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조선업은 조선업체와 다양한 외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성장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협업기관으로는 MARIN, Delft 공과대학, TNO(국책기술 연구기관), 해군연구소등을 들 수 있다.

네덜란드의 조선산업 전망은 전반적으로 밝은 편이다. 네덜란드 국내시장만 해도 국제적 해수면 상승과 거주지역 부족으로 인해 네덜란드에서만도 수많은 준설작업(dredging operations) 수요가 예상되고 있으며 네덜란드 내에 거미줄처럼 분포되어 있는 해수로를 이용한 물류수송도 도로정체가 심해지고 자동차로 인한 공해문제가 대두되면서 점점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해양 레저의 발달과 대중적인 확산으로 인해 다양한 수준의 요트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고 수산업 또한 북해연안을 중심으로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fish farms)으로의 산업전환을 모색하고 있어 관련 선박수요의 꾸준한 증가세가 예견된다. 덧붙여 네덜란드 해군도 소규모 무력분쟁과 해안방어위주로 재편되고 있어 특수 군용선박에 대한 틈새시장도 점차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네덜란드 조선산업은 충분한 고급인력과 축적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만큼 대형 물량 수주 면에서는 한국, 중국 등 신흥조선강국에 밀릴 수 있지만 고부가가치 선박 시장에서의 위치는 당분간 확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6년 네덜란드 선박종별 수주량

Type	Number	GT	CGT
Bulk/Prod/chem. tankers	58	243.513	341.458
Container ships	14	84.998	97.499
Dredging vessels	26	57.62	135.372
Ferries	- -	- -	- -
Passenger ships	9	6.9	26.900
Fishing vessels	3	3.5	11.000
Other non-cargo vessels	141	139.535	378.982
Total	251	536.066	991.211

주: 2008년 9월 기준 입수가 가능한 최신통계/ 자료: VNSI

2006년 네덜란드 최종 선박 인도량

Type	Number	GT	CGT
Bulk/Prod/chem. tankers	61	232.593	327.703
Dredging vessels	14	26.321	67.78
Container ships	38	200.483	243.015
Ferries	3	1.050	3.150
Passenger ships	6	6.188	22.628
Fishing vessels	6	3.249	11.996
Other non-cargo vessels	108	47.538	174.365
Total	236	517.422	850.637

주: 2008년 9월 기준 입수가 가능한 최신통계

자료: VNSI

2006년 유럽국별 선박 수주량

국가	척수	GT	CGT	%
		단위: 1000	단위: 1000	(CGT)
Belgium	4	12,0	16,2	0,1
Bulgaria	31	204,0	221,7	1,0
Denmark	15	1.427,7	937,7	4,3
Germany	206	4.251,3	3.906,8	17,8
Estonia	2	2,0	4,4	0,0
Finland	11	850,5	953,1	4,3
France(**)	22	851,3	1.037,2	4,7
Georgia	0	0,0	0,0	0,0
Greece	2	17,0	21,4	0,1
Hungary	0	0,0	0,0	0,0
Italy	99	2.184,4	2.632,6	12,0
Croatia	65	2.075,2	1.334,4	6,1
Latvia	8	9,9	32,5	0,1
Lithuania	6	9,8	26,0	0,1
Netherlands**	430	1.302,6	2.064,4	9,4
Norway	82	359,3	680,4	3,1
Ukraine	58	501,9	544,4	2,5
Poland**	113	2.352,7	1.900,9	8,7
Portugal	10	67,5	80,3	0,4
Romania	135	1.688,9	1.676,1	7,6
Russia	79	723,4	746,9	3,4
Slovakia	37	87,4	161,8	0,7
Spain	146	752,7	1.004,6	4,6
Czech Republic	11	25,4	47,0	0,2
Turkey	246	1.614,00	1.854,0	8,5
United Kingdom	4	1,6	5,9	0,0
Sweden	4	27,5	45,7	0,2
Total	1.826	21.400,0	21.936,4	100

주: 2008년 9월 기준 입수가 가능한 최신통계

자료: Lloyd's Register-Fairplay / **자료: CESA, VNSI

□ 통계표 용어 설명

- CGT(Compensated Gross Tonnage/ 표준화물선 환산톤수)
 - Compensated Gross Tonnage 의 약자로서 CGRT 가 선박의 GRT 의 계수를 곱한 것으로 나타내지는데 1982 년 7 월 18 일 IMO 의 1969 년 선박톤수 측정에 관한 국제협약이 발효하게 되어 GRT 가 새로운 톤수단위인 GT 로 대체됨에 따라 1984 년 1 월 1 일부터 CGT 로 바뀌어 사용하게 되었다.
- GT(Gross Tonnage/ 총톤수)
 - Capacity Tonnage(용적톤)로서 선각으로 둘러싸인 선체총용적으로부터 상갑판상부에 있는 추진, 항해, 안전, 위생에 관계되는 Space 를 차감한 전용적이다.
- VNSI / De Vereniging Nederlandse Scheepsbouw Industrie 네덜란드어/
The Netherlands' Shipbuilding Industry Association 영어
 - 선박종별 조선소 및 관련 기자재 업체 171 개사가 가입한 네덜란드 조선업 협회
- CESA (the Community of European Shipyards' Associations / 유럽 조선업 협회)

□ 네덜란드 슈퍼요트 산업(SUPER YACHTS)

네덜란드의 슈퍼요트(전장 24 미터 이상의 초호화요트)조선소는 가장 큰 배(주로 독일 및 이탈리아 조선소에서 생산되고 있음)를 만들지는 않지만 품질 면에서는 가장 최고의 요트를 만들어내고 있다.

독일과 이탈리아의 조선소들도 품질 면에서 뛰어나지만 아직까지는 네덜란드 요트조선소의 품질을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다. 2006 년 기준 전세계 슈퍼요트 시장 규모는 연간 400 대 정도로 이중 360 대는 모터를 주 동력으로 사용하는 모터요트(MOTOR YACHT 또는 POWER VESSEL)이며 나머지 40 대는 돛대(SAIL)을 주 동력으로 사용하는 세일요트(SAILING YACHT)이다.

이중 약 6~7% 정도의 물량 즉 23~28 척 정도의 요트를 네덜란드 업체들이 공급하고 있다. 총 수주 물량 면에서 네덜란드 업체의 시장점유율은 하락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수주액면에서는 큰 변동이 없어 네덜란드 업체가 생산하는 슈퍼요트의 가치는 생산 댓 수는 줄지만 해당 가격은 더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네덜란드 슈퍼요트 업체의 경우 조선소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통상 1 년에 1~2 척 정도를 생산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해당 가격도 Royal Huisman 에서 생산되는 세일요트의 예를 볼 때 최하 2,000 만 유로에서 최고 8,000 만 유로에 달할 정도로 최상위 그룹에 속해있다.

현재 네덜란드 조선소 협회 (VNSI)에는 약 170 여 개의 중소 조선소 및 선박기자재 제조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나 그 중 슈퍼 요트급을 생산하는 조선소는 14 개사가 있다. 이들 업체는 짧게는 20 년에서 길게는 100 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명문 조선소들로 설계부터 제작까지 고객들의 기호에 맞도록 맞춤 제작(CUSTOM MADE)방식을 통해 최고급 요트를 생산하고 있다.

□ 주요 수퍼요트 업체 리스트(14 개사)

- Holland jachtbouw, Hakvoort, Jongert, Bloemsma & van Breemen, Kuiper Shipyard,
- Royal Huisman Shipyard, Vitters Shipyard, Heesen Yachts, moonen Shipyard,
- Oceanco, Amels Holland, Feadship Royal van Lent, Van Dam Nordia Shipyard.
- Feadship koninklijke De Vries Scheepsbouw

□ 주요 수퍼요트 소개(4개사)

※ 각 업체별 선박건조현황은 2007년 9월 기준 자료임

○ Amels (<http://www.amels-holland.com>)

- 현재 수주량: 10 척(5,600 만 유로)
- 동사의 52m 짜리 650GT-Semi Custom 171 모델의 성공으로 6 척이 이미 계약을 완료했으며 1 척은 계약이 거의 성사단계에 있다. 171 시리즈 1 호인 Deniki 는 올해 4 월에 이미 인도를 마쳤으며 현재 건조 중인 2,3,4 호는 각각 2007 년 말, 2008 년 4 월, 6 월에 인도될 예정이다.
- 동 모델은 설계부터 건조까지 22 개월이 소요되며 전체기간 중 6 개월은 기본 선체조립, 16 개월은 의장과 부속장비 설치에 소요된다.
- 아멜사의 171 시리즈의 가격은 3,900 만 유로부터 시작된다. 나머지 수주선박 중에는 아멜사의 첫 번째 64.7m Semi-custom 모델인 212 ‘Limited Editions’ 시리즈가 있다. 2006 년 아멜사는 58m Gu, 68.5m Lady Anne, 64.0m Shanti 등 총 세척의 선박을 인도했다.
- 아멜사의 200m 길이의 Vlissingen 조선소에는 총 250 명의 종업원이 일하고 있으며 하청 계약업체까지 포함할 경우 400 명의 직원이 있다. 이 조선소는 현재 판매되고 있는 어떤 수퍼요트도 건조할 수 있는 규모다. 이 조선소는 주로 의장 및 내장을 전담하고 있고 협력업체인 Damen Group 의 폴란드 Gdynia 조선소가 기본 선체 조립을 담당하고 있다.
- 1982 년 사업을 시작한 이래 총 30 척의 요트를 건조 판매하였다. 아멜사 요트의 가격은 Semi-custom 212 모델의 경우 6,600 만 유로, Full-custom 모델 선박의 경우 4,500~5,000 만 유로이다.
- 아멜사는 Damen 그룹에서 전세계에 운영 중인 34 개 조선 업체 중 하나이다. Damen 그룹은 8,700 명의 종업원과 연 매출액 16 억 유로의 조선전문 기업이다.

○ Bloemsma & van Breemen(<http://www.bloemsma-vanbreemen.nl>)

- 현재 수주량: 10 척(5,600 만유로)
- 1974 년도에 선체제작 하청업체로 출발하여 1997 년부터 수퍼요트를 제조하기 시작하였고 현재 전장 40.78m, 만재 배수량 215 톤급 알루미늄 선체의 외돛 세일요트를 건조 중이며 2009 년 인도 예정이다. 2006 년에는 전장 27m 급 모터요트인 Griffioen 을 인도했으며 선체는 알루미늄으로 제작되었지만 외형은 클래식 요트를 본떠 만들었다. 2005 년 이전에는 48m 급과 29m, 25m 급을 각각 건조했다. 동 조선소는 부부가 운영하는 전형적인 가족경영 체제로 네덜란드 대부분의 수퍼요트 조선소는 대를 이은 가족 경영구조가 일반적이다. 조선소 전장은 65m 정도로 주요 부품 및 선체는 외주로 제작되고 본사에서는 조립과 의장공사를 위주로 하고 있다. 조선소의 총면적은 약 2,000 평방미터 규모다.

○ Feadship(<http://www.feadship.nl>)

- 페드쉽사는 Royal Van Lent 조선소, Royal De Vries Yard 조선소, De Voogt Design & Engeneering studio 가 공동으로 설립한 컨소시엄으로 모터요트 분야에서 세계 1 위 기업으로 국제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업체다. 직접고용인력이 1,000 명, 하청업체 1,000 명 등 총 2,000 명의 종업원을 거느리고 있으며 양 조선소에서 각각 최대전장 125m, 180m 규모까지의 요트를 건조할 수 있으며 최근 86m 급 Ecstasea 를 진수한 바 있다. 컨소시엄 내 양 조선소는 2006 년 각각 65.2m Callicsto 와 70m April Fool 를 진수하였다.
- 페드쉽사는 최근 Custom-made 요트주문을 위한 번거로움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고객들을 위해 f45 Vantage 시리즈를 새롭게 선보이고 있는데 동급은 기본 공통 블록에 고객들의 요구에 따라 일부사양을 변경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가격대도 28 백만 유로대로 통상 5,000 만 유로 대의 Custom-made 요트에 비해 획기적으로 낮은 가격에 제공하고 있다.
- 현재 페드쉽사는 14 척의 수주실적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 7 척은 건조 중이며 5 척은 설계 중이다. 이들 요트들은 컨소시엄 내 두 조선소에서 각각 건조 중이다.

3.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네덜란드는 EU회원국으로 개별적으로 다른 나라와 자유 무역 협정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

○ EU 회원국: 총 27 개국

- 네덜란드,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그리스 (15 개국 기존 회원국)
- 헝가리, 체코, 폴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키프로스, 몰타 (10 개국 - 2004 년 가입국)
- 불가리아, 루마니아 (2 개국 - 2007 년 가입국)

가. 참고: EU 의 자유무역협정 정책 및 체결 현황

1) 지역 통상협정체결

- EU 의 기본적 통상정책 방향은 세계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시장을 개방하고
 - 유럽산 상품 및 서비스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해외시장을 확보하는 것임.
 - 이러한 맥락에서 EU 의 통상 부문 중점 추진 과제는 자유무역 및 시장개방, 해외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DDA 협상에서 균형된 결과 도출, MERCOSUR, GCC, ASEAN 등 지역 협력체와의 FTA 추진, 지적권, 투자, 정부 조달, 시장 접근 개선 등으로 요약될 수 있음.
 - FTA 추진 관련, EU 는 MERCOSUR, GCC, ASEAN 등과 같은 지역협력체와 FTA 협상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음.
 -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WTO 에 가입할 경우 관계를 심화시켜 나갈 예정이며 조달 시장 개방 관련 EU 기업에 조달시장을 개방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EU 시장접근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임.

2) 지역 통상협정체결 현황

- GATT Article XXIV 하에 통보된 협정(자유무역지역 및 상품 관세동맹)
 - EU 연합(25)
 - 관세 동맹: 안도라, 터키
 - FTA :
 - 유럽: Faroe 아일랜드(덴마크), 스위스(리히텐슈타인 포함). 마케도니아, 크로아티아, 불가리아와 루마니아(불가리아와 루마니아는 2007.1.1일부터 EU 가입)
 - 지중해: 알제리아,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레바논, 모로코, 팔레스타인, 시리아, 튀니지, 칠레, 멕시코, 남아연방, 일부 OCT/PTOM II
- GATT Article XXIV 하에 통보된 협정(자유무역지역 및 서비스 관세동맹)
 - EU 연합(25),
 - 여타 유럽: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루마니아와 불가리아는 2007년 1월 1일부터 EU에 가입됨)
 - 여타 지역: 칠레, 멕시코
- WTO에 통보되지 않은 협정(상품교역)
 - 산마리노
- 기타(EU가 WTO에게 포기권 요청한 협정으로 특혜무역협정임)
 - ACP
- 2007년 5월 7일부터 한-EU FTA 협상이 시작되었으며 2008년 상반기 발효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음.

3) 양자간 협정 체결을 포함한 양자간 협상(협상 개시 및 협상 중 포함)

- 협상국
 - ACP/EPAs, 알바니아, 알제리, 아제르바이잔, 백러시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캐나다, 중국, 이집트, GCC(Gulf Cooperation Council), 이란, 이라크, 요르단, 카자흐스탄, 레바논, MERCOSUR, 몰도바, 몬테네그로, 모로코, 팔레스타인, 러시아, 세르비아, 시리아, 튀니지, 우쿠라이나,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 저율의 원천세 적용을 위해 세계적인 조세협약 유지 확대, 네덜란드는 납세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주자가 해외에서 발생시킨 소득에 대해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세계 60여개국과 광범위한 과세협약을 체결

4) 과세협약

- 네덜란드가 낮은 원천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는 네덜란드기업은 유리한 세제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아짐
- 만약 과세협약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거주자의 해외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는 'Unilateral Decree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이라는 국제규정에 의해 이행될 수 있으며 'EC Parent-Subsidiary Directive' 규정은 EC 회원국간의 배당금 지급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원천징수세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나. 참고: 네덜란드의 법인세

네덜란드의 법인세율은 2007년 최저기준 20%로 OECD 평균 28%, EU 평균 25%, 남미 28%, 아태지역 29%에 비해 낮으며 2004년부터 매년 인하추세를 지속하고 있음. 네덜란드에 설립한 외국기업이 상기 각종 면세, 감세 제도를 활용 할 경우 법인세 20%도 실제 납부금액은 세계 최저수준 범주에 속함

아울러 네덜란드 법인세는 누진세율을 적용 최초 과세대상 이윤 25,000유로까지 20%, 20,001~60,000유로는 23.5%, 60,000초과는 25.5%를 부과

III. 무역

1. 수출입동향

가. 교역 규모

네덜란드의 교역 규모는 2007년 말 기준 7,600억 유로에 달하고 있다. 수출은 4,022억 유로, 수입은 3,587억 유로로 435억 유로의 무역흑자 구조를 보이고 있다.

네덜란드의 무역수지

(단위: 백만 유로)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수 출	261,681	287,337	326,641	368,280	402,227
수 입	234,004	256,990	292,439	331,671	358,690
무역 수지	27,677	30,347	34,202	36,609	43,537

주: 품목 구분: HS 4 단위

자료: World Trade Atlas

나. 교역 주요 국가

네덜란드는 EU 회원국으로 교역의 약 65% 정도가 회원국간 역내 교역으로 충당하고 있다. 특히 2004년부터 EU 회원국이 확대되면서 체코, 헝가리 등 동구권과의 교역이 급증하여 역내 교역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007년 기준 네덜란드의 최대 교역 국가는 독일로 전체 교역 규모의 약 23%의 비중을 점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국가별 수출

(단위: 백만 유로)

순위	국 별	2004	2005	2006	2007
1	독일	71,499	80,398	92,802	96,186
2	벨기에	34,320	42,169	42,045	53,710
3	영국	28,927	29,575	32,512	36,292
4	프랑스	28,102	30,399	31,017	33,243
5	이탈리아	17,010	18,173	18,290	19,511
6	미국	12,017	13,702	16,255	17,512
7	스페인	11,231	13,114	13,122	14,269
8	폴란드	5,786	5,740	6,641	7,080
9	스웨덴	5,642	6,429	6,631	6,883
10	러시아	3,364	4,539	5,537	6,821

네덜란드의 국가별 수입

(단위: 백만 유로)

순위	국 별	2004	2005	2006	2007
1	독일	45,830	48,389	56,287	62,636
2	중국	18,985	25,721	30,926	37,484
3	벨기에	24,977	27,202	31,411	33,369
4	미국	20,272	22,021	25,268	26,181
5	영국	16,277	16,857	19,309	20,672
6	러시아	6,772	12,294	15,327	15,958
7	프랑스	12,787	13,617	15,122	15,759
8	일본	9,382	9,342	10,098	11,076
9	이탈리아	6,088	6,711	7,280	7,815
10	노르웨이	5,786	5,740	6,641	7,108

자료: World Trade Atlas/ 품목 구분: HS 4 단위

다. 교역 주요 품목

네덜란드의 경우 교역량의 상당부분이 중계무역형태로 수입 후 다시 EU 각국으로 수출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어 수출품목과 수입품목이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다.

2006년 및 2007년 기준 네덜란드의 주요 수출품은 석유 및 역청유, 자동차자료처리기기, 인쇄기기 및 부품, 전화기, 디지털통신기기 및 부품, 원유, 사무기기 및 부품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원유, 자동차자료처리기기, 사무용기기 및 부품, 석유 및 역청유 등이다.

네덜란드의 품목별 수출

(단위: 백만 유로)

순위	품목별	2005	2006	2007
1	석유 및 역청유	19,606	25,482	26,148
2	자동차자료처리기기	22,356	23,182	16,360
3	인쇄기기 및 부품	593	657	10,233
4	전화기, 디지털 통신기기 및 부품	2,195	2,351	9,954
5	원유	6	9,163	9,879
6	사무용기기 및 부품	11,742	14,223	8,604
7	의약품	6,680	7,624	7,891
8	TV 및 영상기기	1,912	2,765	5,339
9	의료기기	3,905	4,216	4,170
10	트랙터	2,696	3,257	3,963

네덜란드의 품목별 수입

(단위: 백만 유로)

순위	품목별	2005	2006	2007
1	원유	26,146	31,935	32,254
2	자동차자료처리기기	21,960	23,411	15,071
3	석유 및 역청유	9,488	12,753	13,679
4	전화기, 디지털통신기기 및 부품	2,493	2,292	12,080
5	사무용기기	10,726	13,524	8,232
6	승용차	8,212	8,328	8,213
7	인쇄기기 및 부품	419	487	8,027
8	의약품	6,972	7,494	7,505
9	TV 및 영상기기	2,516	3,343	5,893
10	알루미늄	2,127	3,660	4,209

자료: World Trade Atlas/ 품목 구분: HS 4 단위

2.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가. 교역 규모

독일, 영국, 이탈리아에 이어 우리나라의 대EU 4번째 수출 대상국인 네덜란드에 대해 우리나라는 2007년 네덜란드에 44억 9,000만 달러를 수출함으로써 전년대비 24.4% 증가했다. 수입은 37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2.4% 증가했다.

한-네 수출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05		2006		2007		2008.1-7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수출	3,647	21.3	3,609	-1.0	4,489	24.4	2,843	32.1
수입	2,760	59.6	3,025	9.6	3,703	22.4	2,332	2.7
수지	887	-30.6	584	-34.2	786	25.7	511	-

주: 품목 구분: MTI 4 단위/ 자료: KOTIS(2008.9 기준)

나. 교역 주요 품목 및 특징

한국과 네덜란드는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를 보이고 있어 교역확대 여지가 매우 크다. 한국이 전자 제품 및 자동차, 유기화학품 등의 제품 생산에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마케팅 활동은 다소 취약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네덜란드는 높은 인건비로 인해 최근 들어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하는 대신 마케팅 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있는 추세로 나가고 있다.

한-네덜란드간 상호 보완적인 관계의 대표적인 사례는 LG전자와 필립스의 지속적인 긴밀한 협력 관계이며, 2003년 LG필립스의 파주 공장 설립 추진은 가장 최근의 예가 될 것이다. 또한, 네덜란드는 마케팅의 지원이 가능해 네덜란드 중개상을 이용한 유기 화학품 및 중고 기계의 대 동구권 진출 등을 들 수 있다.

현재 수출 호조 품목으로는 경유, 건설 중장비, 모니터, 휴대용 전화기, 컬러TV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한국이 네덜란드로부터 수입하는 품목들은 반도체 생산 관련 기자재, 유기 화학품, 의료용 기기 등 낙농품 등을 들 수 있다.

한국의 대 네덜란드 주요 수출품목 및 금액

(단위: 천 달러, %)

순위	품목명	2007		2008.1-7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계	총 계	4,488,720	24.4	2,842,993	20.6
1	제트유 및 등유	0	-	360,488	-
2	무선전화기	436,941	27.9	275,954	18.6
3	건설중장비	602,376	44.3	269,115	-30.9
4	윤활유	228,903	103.8	232,850	114.8
5	승용차	382,046	-33.8	148,389	-44
6	경유	769,530	89	136,881	-28
7	선박	116,294	39,596.00	108,402	74.6
8	자동차부품	110,591	22.3	84,995	38.4
9	무선통신기기부품	117,216	219.2	78,964	23.4
10	컴퓨터부품	107,743	-3	71,558	13.6

주: 품목 구분: MTI 4 단위/ 자료: KOTIS(2008.9 기준)

한국의 대 네덜란드 주요 수입 품목 및 금액

(단위: 천 달러, %)

순위	품목명	2007		2008.1-7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계	총계	3,703,122	22.4	2,332,389	2.7
1	반도체 제조용 장비	1,530,929	12	1,062,778	15
2	고철	440,110	142.7	115,464	-64.1
3	나프타	90,649	-	93,634	3.3
4	낙농품	62,748	65.7	51,139	34.1
5	반도체 제조용 장비 부품	61,072	30.1	45,868	26
6	합성수지	52,977	5	44,534	30
7	기타 정밀 화학 원료	42,772	-0.6	39,619	71.7
8	기초 유분	25,423	100.3	37,263	69.9
9	가축 육류	51,219	28.4	27,734	-5.8
10	운반 하역 기계	16,342	-10.5	26,053	173.4

주: 품목 구분: MTI 4 단위

자료: KOTIS(2008.9)

3. 수입규제제도

네덜란드의 대외통상정책은 전적으로 EU의 통일지침에 따르며,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수입장벽은 없다. 유럽의 물류허브로서 네덜란드는 EU 및 역외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는 재수출로 연결되어 수입, 수출 모두를 장려하고 있으며, 수출입은 연평균 10% 이상씩 증가하고 있어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수입관리는 국가별 관리와 품목별 관리로 구분된다. EU회원국으로부터 수입에 대해서는 자유화되어 있어 수입 허가가 필요 없다. 육류, 과일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 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 농수산성 장관 허가: 농수산물 수입령이 정한 가축, 육류, 과일, 낙농제품
- 경제성 장관 허가: 공산품 수입령이 정한 석탄, 철강, 석유류 등
- 관계부처 장관 허가: 특정 지역으로부터의 수입 및 원산지 불명 제품

네덜란드 독자적인 수입 관리 및 규제제도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으며, EU의 통일된 지침 및 규격, 관리와 수입쿼터 등을 운영하게 된다.

가. 수입 규제 제도

수입의 급격한 증가 또는 덤핑 등 불공정한 교역 행위로 인하여 EU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조사 결과 판단될 때 EU 당국은 산업 피해 구제 조치로서 EU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수입제한조치, 반덤핑관세부과, 상계관세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수입규제 조치는 각 회원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독단적으로 취할 수 없고 EU 차원에서 결정되며 EU 집행위의 타당성 조사 결과를 기초하여 결정된 조치는 EU 전 회원국에서 동시에 이행된다.

1) 반덤핑

수출국의 기업이 덤핑가격으로 수출하여 수입국 산업에 피해를 초래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 EU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수입 규제 조치이다.

EU 집행위는 EU기업으로부터 한 일정 수출국 기업이 덤핑 수출을 하고 있어 EU산업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제소를 받으면 반덤핑 규정(384/96/ec)에 의거, 조사 후 반덤핑 조치의 타당성 여부를 평가한다.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을 좌우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 덤핑 존재: 해당 수출국(제3 역외국) 기업의 EU 수출가가 자국 내수 가격보다 낮을 때 덤핑으로 간주한다.
- EU 산업에 피해 존재: 덤핑 수입으로 EU역내 산업이 상당한 피해를 받고 있음이 입증될 때 EU산업에 피해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EU역내 산업이 시장점유율을 상실하고 EU 생산자가 생산가를 줄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생산, 판매, 수익, 생산성 등에 부정적인 요인이 될 경우)
- EU의 전반적 이익: 반덤핑 조치를 취할 때 드는 비용이 그로 얻는 이익과 불균형을 이루지 않을 때 반덤핑 조치가 EU의 전반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EU 집행위는 석탄과 철강제품에 대해서는 잠정 또는 확정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으나 석탄과 철강제품 이외 상품의 경우에는 이사회에 의해 확정 반덤핑관세 부과가 결정된다.
- EU 집행위는 덤핑제소 접수일부터 45일 내에 사전조사, 공식 조사를 개시할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타당성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제소업체(들)의 생산이 EU 총 생산의 25% 미만일 경우에 공식 조사가 거절된다.

2) 반보조금(Anti-subsidy) 및 상계 관세

보조금에 대한 국제적 규율은 보조금과 상계 조치에 대한 WTO의 협정에 의해 상당히 강화되었다. EU는 WTO의 협정 내용을 EU 보조금 규정에 통합하여 1995년 1월 1일부터 수출 보조금을 받고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 반보조금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EU 규정은 EU 역외국 정부의 수출보조금을 받고 EU에 수출되는 상품에만 적용되고 해당 제품에 상계 관세가 부과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상계 관세가 부과된다.

- 수출보조금 또는 한 일정 산업, 일정 기업에 한정된 보조금
- EU산업에 물질적 피해(material injury) 초래: 수출보조금을 받고 싼 가격으로 들어온 수입 제품으로 인해 EU역내 산업이 시장점유율을 상실하고 EU 생산자가 생산가를 줄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생산, 판매, 수익, 생산성 등에 부정적인 요인이 될 경우

- EU연합의 전반적 이익: 반덤핑 조치를 취할 때 드는 비용이 그로 얻는 이익과 불균형을 이루지 않을 때
- 반덤핑 조치와 마찬가지로 집행위가 조사하고 잠정 조치를 취하나 최종 조치는 이사회에 의해 결정된다. 제소와 조사 절차는 반덤핑 조치와 유사하다.

3) 세이프가드

EU 수입제도는 자유 수입을 일반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세이프 가드 조치를 취하는데 예외적 경우란 급작스러운 대폭의 수입 증가의 경우로 EU역내 산업과 기업, EU 공익에 위협적인 요인이 될 때를 의미한다. EU 집행위는 회원국으로부터 요청을 받거나 또는 자발적으로 세이프가드 조사를 하고 case-by-case 형식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반덤핑이나 상계관세처럼 기업이 직접 세이프 가드 조치의 도입을 요청할 수 없다. 세이프가드 조치는 WTO의 세이프 가드 협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세이프가드 조치로는 수입쿼터로 수입물량을 제한하는 조치와 감시조치가 있는데 감시(surveillance) 조치는 엄격한 의미에서 수입 제한 조치가 아니다. 다만 해당 제품의 수입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수입 라이선스가 요구된다. 현재 감시제도는 일부 국가의 철강제품에 적용되고 있다.

나. 수입 쿼터 제도

EU는 원칙적으로 수입 쿼터 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WTO 협정 내에서 2004년까지 일부 섬유제품에 대해 쿼터 제도가 적용되었으나 2005년 1월 1일부터 원칙적으로 전면 폐지되었다. 그러나 섬유쿼터제도 폐지 이후 중국산 섬유제품과 신발이 대량 수입되어 EU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는 업계 및 EU 회원국 정부의 압력으로 EU당국은 중국산 일부 섬유 제품과 신발류에 대해 긴급 수입제한 조치(세이프 가드)를 취하여 섬유제품에 대해서는 수입 물량을 제한하고 있는 한편 신발류에 대해서는 반덤핑 조치를 취하고 있다.

다. 관세 제도

네덜란드는 EU회원국으로서 EU 관세제도를 따른다. 네덜란드는 EU 공동 관세 제도가 도입된 지난 1968년부터 여타 EU회원국과 동일한 관세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EU의 주요 관세제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EU는 일반적으로 GATT(현 WTO)가입국 뿐만 아니라 비가입국에도 협정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EU와 관세동맹 체결 여부에 따라 일방 또는 쌍무특혜 관세 조치를 취하고 일부 제품에 대해 수입 관세의 감면, 면제 등 관세혜택을 부여하기도 한다. 또한 EU연합의 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민감성에 따라 제품의 관세율이 결정된다. 예를 들어 EU산업이 완제품을 제조하는데 필요하나 EU에서 생산되지 않은 원자재 또는 반제품 등에는 낮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관세를 일시적으로 면제한다.
- 관세율: 관세는 EU가 정하여 매년 발표하는 EU 관세율 표에 의하여 각 회원국 세관당국이 징수한다.
 - EU 관세율 표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제품의 관세 분류 방식인 HS(Harmonized-System) 분류 체계를 기초로 EU가 공동으로 정한 통합분류(CN) 방식에 의해

분류되며 관세율에는 수입 부담금과 농산물의 경우 공동농업정책에 의한 농업 부담금 등이 포함된다.

- EU 집행위는 매년 관세율 표를 EU 관보를 통해 공표한다. 일반적으로 관세율에는 종가 관세 (Ad-valorem Tariff)가 적용되고 석탄, 농산물 일부, 식품, 영화 필름 등에는 종량세 (Specific Duties)가 적용되며 국제가격의 변화에 대하여 일정수준의 관세 유지를 목적으로 담배, 과일, 카펫 및 시계 일부 등에는 종량세로 관세의 상하한을 설정 한 후 그 범위 내에서 종가세를 부과하는 선택관세(Alternative Tariff)가 있다. 또한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심한 과일, 채소, 화훼류 등의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율이 신축적으로 조절되는 계절 관세(Seasonal Tariff)가 적용된다. 한편,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세뿐만 아니고 수입부과금 (Import Levy)을 부여한다.
- EU 관세율은 EU 집행위 관세(CUSTOM) 사이트(TARIC)에서 참조할 수 있음.
 - 해당 인터넷 사이트 주소: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dds/en/tarhom.htm

라. 교역 관련 주요 법규

네덜란드는 유럽연합(EU) 회원국으로서 EU의 통상법규를 따른다. EU 통상정책의 실제 수단은 공동 관세, 산업피해구제조치(반덤핑, 상계 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와 더불어 제3국의 무역 장벽 및 시장 접근 정도에 관한 조사, 분석을 기초로 대외통상교섭과 협정 체결 등인데 다자 또는 양자간 협의를 통해 통상 조치의 결정을 내리기도 하지만 일방적인 조치를 통해 이행하기도 한다.

1) 원산지 규정

원산지 규정은 기타 통상조치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반덤핑, 상계관세, 긴급 수입 제한 조치, 원산지 표기 요건 및 여타 차별적인 수량 제한 또는 관세쿼터 등과 같은 무역정책 수단으로 사용된다.

- EU 원산지 규정의 기초법: 1992년 10월 12일 자 이사회 규정 2913/92

2) EU 공동관세

매년 EU 집행위는 EU 공동 관세율을 관보를 통해 발표하고 있다. EU 관세율은 EU 집행위 관세부서 사이트를 참조할 수 있다.

- TARIC: http://ec.europa.eu/comm/taxation_customs/dds/en/tarhome.htm

3) 수출입 관련 규정

EU 수입규정(Regulation 3285/94)은 EU로 수입되는 물품에 공동 적용되는 규정으로 원칙적으로 수입물품의 수량제한을 금지하고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제한적인 시장 접근을 보장한다. 단, 수입상품이 EU산업에 심각한 손실을 끼치는 것을 예방 또는 치유하는 조치로 절차 규정에 의거, 반덤핑,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 조치 등을 취한다.

수출도 마찬가지로 수출규정(Regulation 2063/69)에 의거, 개인과 기업은 특별한 제한 없이 석유와 가스, 무기, 위험 폐기물을 제외한 원칙적으로 모든 상품을 수량제한 없이 제 3국에 수출할 수 있다. 단, 수출로 인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상품이 결여될 위험성이 있거나 회원국의 공익상 적절한 보호조치가 취해져야 하는 상황에서 집행위는 회원국의 요청이나 독자적인 결정으로 수출 허가제도를 취할 수 있다.

4) 통상 장벽 규정

통상장벽 해소를 위해 별도의 조치가 불가피한 경우 주로 WTO제소 또는 WTO 협정에 따른 보복조치(양허 철회, 중지, 관세인상, 수량규제 도입 등)를 취한다.

5) 산업 피해 구제 조치

산업 피해 구제 조치는 수입의 급격한 증가 또는 불공정한 교역행위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될 때 EU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로서 주로 긴급수입제한조치, 반덤핑 관세부과, 상계관세부과 등을 의미한다.

상기와 같은 통상법규 이외에도 환경 분야의 각종 규정과 산업분야에 있어서 각종 공업 규격과 기술표준 인증제도, 안전규정(CE마킹), 상품 관련 제조자의 책임제 등이 네덜란드를 비롯하여 EU 시장을 접근하는데 기술장벽이 되고 있다.

4. 대한수입규제 동향

2008 년 9 월 19 일 기준 EU 로부터 반덤핑 규제를 받고 있는 우리나라 제품은 5 개 품목이며, 그 외 2 개 품목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받고 있다.

구분	조치 유형	대상 품목
규제 중	반덤핑 관세	폴리에스테르단섬유(PSF), PET 칩, 양문형 냉장고, 실리콘 (우회덤핑관세), 철강제 관연결구류
조사 중	반덤핑 관세	스텐레스스틸 냉연강판(신규조사), 철강제관연결구류(만기재심),

5. 관세제도

가. 개황

네덜란드는 EU회원국으로서 EU 관세제도를 따른다. 네덜란드는 EU 공동 관세 제도가 도입된 지난 1968년부터 여타 EU회원국과 동일한 관세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EU의 주요 관세제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EU 는 일반적으로 GATT(현 WTO)가입국뿐만 아니라 비가입국에도 협정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EU 와 관세동맹 체결 여부에 따라 일반 또는 쌍무특혜 관세 조치를 취하고 일부 제품에 대해 수입 관세의 감면, 면제 등 관세 혜택을 부여하기도 한다.

- 또한 EU 연합의 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민감성에 따라 제품의 관세율이 결정된다. 예를 들어 EU 산업이 완제품을 제조하는데 필요하나 EU 에서 생산되지 않은 원자재 또는 반제품 등에는 낮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관세를 일시 또는 영구적으로 면제한다.
- 관세율: 관세는 EU가 정하여 매년 발표하는 EU 관세율 표에 의하여 각 회원국 세관 당국이 징수한다.
 - EU 관세율 표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제품의 관세 분류 방식인 HS(Harmonized-System)분류 체계를 기초로 EU 가 공동으로 정한 통합분류(CN) 방식에 의해 분류 (6 단위까지는 HS code 와 동일)되며 관세율에는 수입 부담금과 농산물의 경우 공동 농업 정책에 의한 농업 부담금 등이 포함된다.
- EU 집행위는 매년 관세율 표를 EU 관보를 통해 공표한다. 일반적으로 관세율에는 종가 관세 (Ad-valorem Tariff)가 적용되고 석탄, 농산물 일부, 식품, 영화 필름 등에는 종량세 (Specific Duties)가 적용되며 국제가격의 변화에 대하여 일정 수준의 관세 유지를 목적으로 담배, 과일, 카펫 및 시계 일부 등에는 종량세로 관세의 상하한을 설정 한 후 그 범위 내에서 종가세를 부과하는 선택관세(Alternative Tariff)가 있다.
- 또한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심한 과일, 채소, 화훼류 등의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율이 신축적으로 조절되는 계절 관세(Seasonal Tariff)가 적용된다. 한편,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세뿐만 아니라 수입부과금 (Import Levy)을 부여한다.
- EU 관세율은 EU 집행위 관세(CUSTOM) 사이트(TARIC)에서 참조할 수 있다.
 - 해당 인터넷 사이트 주소: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dds/en/tarhom.htm

나. 통관 시 적용되는 규정

1) 상품 분류 번호

모든 상품의 수출입 시, 통관서류에 상품분류번호가 기재되어야 하며 상품분류번호에 따라 해당 품목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네덜란드에서는 모든 EU회원국과 마찬가지로 8자리의 EU 상품분류 제도(CN CODE)가 적용된다. 필요에 따라 수입 시 8단위보다 더 상세히 분류된 10자리의 세분 번호가 적용될 수 있다. CN CODE 8자리 상품 분류 번호의 앞 6자리 까지는 HS 코드와 일치한다. 상품분류번호에 따라 관세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상품 분류 기재 시 정확 한 상품분류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2) 원산지 규정

상품의 원산지 규정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정책적 결정을 수행하는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원산지 규정 또한 네덜란드에 국한된 자국 원산지 규정이 없으며 EU의 원산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모든 상품의 원산지가 중요성을 갖는 것은 관세율을 결정하는 데 기초 자료가 될 뿐 아니라 GSP 혜택, 반덤핑 관세, 수입 물량 제한 조치, 심지어는 수입금지와 같은 무역 정책적인 조치 적용에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3) 관세부과가액

상품의 실질 거래 가격, 즉 송장 금액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된다. 단, 인도 조건에 따라 송장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송장 금액과는 별도로 관세부과 가액 산정 시 반영되는 요소들이 있다. 운송료, 보험료, 로열티, 라이선스 수수료, 연구 개발비 등이 그러한 것들이다.

통관 시 관세 이 외에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율을 회원국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며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19%가 적용됨)와 일부 특정 제품(담배, 주류, 석유 등)에 대해서는 특별세(exci se)가 부과된다(또한 특별세의 세율도 회원국마다 차이가 있다).

6. 주요인증제도

가. 네덜란드 검사제도

네덜란드 시장은 EU 통일인증마크인 CE Marking을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나, 네덜란드 자체적인 인증마크를 추가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KEMA-KEUR’라는 인증으로서, 수출입 제품 등에 있어 강제 사항은 아니나, 네덜란드 내에서는 94%가 인지할 정도로 알려져 있다. 동 인증 취득을 위해서는 비교적 까다로운 절차와 고가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1) KEMA-KEUR 인증 제도

동 인증은 네덜란드 KEMA가 인증하는 것으로 주로 전기제품의 ‘안전(safety)’상태를 검사하는 인증이다. 1924년도에 국제 규정에 근거하여 자체적으로 안전검사를 통과한 완제품 및 부분품에 인증한다.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덴마크에서도 신청 가능하며, KEMA는 세계 20 개국에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EU의 CE마크 인증은 시장진출을 위한 강제 인증이나 동 인증은 부가적인 것이다. 그러나 수천 종의 제품은 동 인증도 취득한 바 있다. 동 인증의 취득에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수천 유로에서 수만 유로가 소요되기도 하며, 인증취득 후에는 매 1년마다 해당제품 생산공장 및 해당제품에 대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동 정기검사에도 수천 유로가 소요된다.

2) CE마킹 제도

27개 EU회원국과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의 EFTA국가에 수출하려면 다음과 같은 22개 카테고리의 품목에 CE 마킹 지침(93/68/EEC)에 의거, CE 마크를 획득, 부착해야 한다.

CE 마킹 대상 품목 및 규정 지침

품 목	규정 지침
가스기기(Appliances Burning Gaseous Fuels)	90/396/EEC
사람수송용 케이블(Cableway Installation to Carry Persons)	2000/9/EC
저압 전기 기기(Low Voltage Electrical Equipment)	73/23/EEC
건설자재(Construction Products)	89/106/EEC
폭발용 기기 및 보호제품 (Equipment and Protective System for used in potentially explosive Atmospheres)	94/9/EC
민간용 폭발물(Explosives for Civil Uses)	93/15/EEC
온수보일러(Hot Water Boiler)	92/42/EEC
가전 냉장·냉동고(Household Refrigerators & Freezers)	96/57/EC(에너지효율지침)
승강기(Lift)	95/16/EC
기계(Machinery)	98/37/EC
선박(Marine Equipment)	96/98/EC
의료기기(Medical Devices)	93/42/EEC
의료용 임플란트(Active Implantable Medical Devices)	90/385/EEC
시험관 치료용 기기(In 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s)	98/79/EC
수동저울(Non-automatic Weighing Instruments)	90/384/EEC
무선전신 및 통신 말단기기 (Radio Equipment & Telecommunication Terminal Equipment)	99/5/EC
개인보호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89/686/EEC
단순압력용기(Simple Pressure Vessels)	87/404/EEC
압력기기(Pressure Equipment)	97/23/EC
여가용 보트(Recreational Craft)	94/25/EC
장난감(Toys)	88/378/EEC
Trans-European Conventional Rail System	96/48/EC, 2001/16/EC

- 전자파적합성 지침(89/336/ EEC)
 - 모든 전자전기 제품은 전자파 적합성 지침의 기술 기준을 준수하고 CE 마킹을 획득해야 한다.
- 결함 제품에 대한 책임
 - 85/374/eec(1999/34/EEC 수정 지침) 지침에 의거, 제조자(수입, 유통자 포함)는 결함이 있는 제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 일반 제품 안전
 - 92/59/EEC 지침에 의거, 제조자(수입, 유통업자)는 시판 상품에 대한 안전을 보장해야 하고 위험한 제품을 시장에 내 놓아 인체나 환경에 손상을 끼쳤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 환경 규격
 - 2000/14/EC 지침에 의거하여 실외에서 사용되는 기기는 동 지침의 소음 발생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3) 에코 라벨

에코 라벨은 친환경적 제품에 부여하는 라벨로 자율적 라벨이다. 에코 라벨은 1993년 이후 적용되는 라벨로 현재까지 24개 품목 군에 대하여 기준이 제정되어 있으며 4개 품목군에 대하여 기준 제정이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외에도 32개 품목 군에 대하여 EU 집행위와 관련 업계 단체들이 에코 라벨 기준 제정의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 기준 기 제정 품목
 - 세제: 일반 청소세제, 식기세척기 세제, 설거지세제, 세탁용 세제
 - 기기: 식기세척기, 전구, 휴대용 컴퓨터, PC, TV, 냉동고, 진공청소기, 세탁기
 - 종이 제품: 복사용지, 화장지
 - 가정, 정원 용품: 침대 매트리스, hard floor coverings, 실내용 페인트 및 안료, 토양 개선제, 가정용 섬유제품
 - 의류: 신발, 섬유제품
 - 관광: 캠프장 및 서비스, 관광객 편의 시설 서비스
 - 유탄유: 유탄유

- 기준 제정 추진 품목
 - heat pump, 비누와 샴푸, 프린트용지, 가구

- 제정 가능성 검토 품목
 - 문구류, 벽지, 쓰레기봉투, 쇼핑백, 필기도구, 전화, 복사기, 소형 가정용 전기기기, 패션 액세서리, 장갑, 가죽제품, 스포츠 장비, 완구 및 게임, 포장지, DIY 제품, 에어컨류, 난방기기, 물 끓이는 시스템, 절연기, 건축부분품, 건축서비스, 소매서비스, 건조기, 금융서비스, 배달서비스, 자동차수리서비스, 자동차, 부속용품, 위생용품 등

4) 에너지 라벨

에너지 소비율에 따라 A-G까지 에너지 효율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A는 에너지 효율성이 가장 우수한 것을 의미하며 G는 가장 낮은 것을 의미한다.

에너지 효율성을 표시해야 하는 대상 품목은 냉장고, 냉동고, 냉장-냉동고 콤비, 세탁기, 건조기(electric tumble dryers), 세탁기-건조기 콤비, 식기세척기, 램프, 전기 오븐, 에어컨 등이다.

- GEEA(Group for Energy Efficient Appliances)
 - 네덜란드, 덴마크, 스위스, 프랑스 등 유럽국들이 운영하는 에너지 절약제품 보조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포럼이며 GEEA 규격에 적합한 제품은 GEEA의 에너지 라벨을 사용할 수 있음.
 - 대상 품목은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팩시밀리, 복사기, 스캐너, 복합기, 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배터리 충전기 등(19품목)
 - 정회원:
 - Switzerland: The Swiss Federal Office of Energy (SFOE)
 - Denmark: The Danish Energy Authority (DEA)
 - Netherlands: The Netherlands Agency for Energy and the Environment (SenterNOVEM)
 - Germany: The German Energy Agency (dena) / Gemeinschaft Energielabel Deutschland (GED)
 - 준회원:
 - Sweden: The Swedish National Energy Administration (STEM)
 - Austria: The Austrian Energy Agency (E.V.A.)
 - France: The French Agency for Energy and the Environment (Ademe)

나. 네덜란드 검사 및 인증 관련 기관

- KEMA Corporate
 - P.O.Box 9035, 6800 ET Arnhem, The Netherlands
 - Tel: +31 (0)26 356 9111
 - Fax: +31 (0)26 389 2477
 - Homepage: www.kema.com
 - Remarks: KEMA-KEUR 인증기관
- Dutch Standardization Institute (NEN)
 - P.O.Box 5059, 2600 GB Delft, The Netherlands
 - Tel: +31 (0)15 269 0390
 - Fax: +31 (0)15 269 0190
 - Email: info@nen.nl
 - Homepage: www.kema.com
 - Remarks: 네덜란드 국가 표준원으로서 네덜란드 및 EU 표준에 관한 정보 제공

7. 지적재산권

가. 특허권

네덜란드 특허법(Rijksoctrooiwet 1995)은 1995년 4월1일자로 발효되었으며, 특허는 산업 재산사무소에 등록하여야 한다(Rijswijk 소재 Bureau voor de Industriële Eigendom).

네덜란드의 특허법은 장기보호와 단기보호로 나누어지며, 장기보호는 광범위한 조사를 거친 후에 이루어지는데 20년간 보호되며, 단기보호는 6년간 보호된다. 특허 요건 중의 하나인 참신성(novelty)에 관한 조사를 해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특허는 제3자에게 사용권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공익에 필요하다거나, 특허부여 후 3년 이내에 적절히 사용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허 출원자에게 라이선싱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후 특허출원자가 선 특허출원자의 원천기술에 기반하여 개발되었으나, 중요한 신기술일 경우에는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다.

네덜란드는 파리협약(1975), 유럽특허협약(1973), 특허협력협정(1970), 스트라스부르그 협정 (1963)에 가입되어 있으며, 유럽공동체 특허협약에도 1989년도에 참가하였다.

유럽공동체 특허는 원헨 또는 하부기관이 있는 Rijswijk에서 등록할 수 있다.

- European Patent Office
 - Add: Patentlaan 2, 2280 HV Rijswijk
 - Tel: +31(0)70-3402040
 - Fax: +31 (0)70-3403016
 - Homepage: www.european-patent-office.org/

나. 상표권

1) 상표권 제도 개요

1971년 베네룩스 3국은 공동으로 상표보호법을 제정하였으며, 1996년부터는 EU 지침에 따라, 상표규정에 맞춰 네덜란드 규정을 개정하였다(EC Directive 89/104, 1998년 12월 21일).

상표 보호기간은 10년이며, 10년 단위로 갱신이 가능하다. 상표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헤이그에 있는 베네룩스 상표사무소에 등록하여야 한다.

- The Benelux Trademarks Office
 - Add: Bordewijklaan 15, 2591 XR Den Haag
 - Tel: +31 (0)70-3491111 / Fax: +31 (0)70-3475708
 - Homepage: www.bmb-bbm.org/gb/pages/index.htm

마드리드협약 회원국으로 동 회원국에 일괄 상표등록을 할 경우, 이 시스템에 따라 상표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하나, 특정 1개국에 받아들여지지 못할 경우에는 전체에 대해서 무효의 효력을 가질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2) 상표등록방법 및 절차

개인, 회사, Organization이 등록신청을 할 수 있으며, 등록을 위해서는 "Formulier voor het Benelux-Depot van een merk", 소위 A-form이라고 불리는 서류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만약 등록하는 브랜드가 레터(Letter)로 구성되어있는 경우는 브랜드를 정확히 기입해야 하며, 브랜드가 레터(Letter)와 로고로 구성되어있는 경우에는 10개의 흑백사진을 동봉하여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서류 제출 이전에 등록할 브랜드가 중복되지 않았는가를 사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사전 준비조사를 위해서는 "Verzoek betreffende onderzoek naar eerdere inschrijving" 소위 B-form이라고 불리는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The Benelux Trade Mark Office는 B-form 서류가 제출되는 대로 조사에 들어가며 이 과정에서 상표나 로고가 중복 여부를 알아볼 수 있다. 등록 신청자나 기관은 Benelux Merken Bureau로부터 등록상표조사 결과를 통보 받으며, 만약 등록 상표나 로고가 이미 등록된 경우에도 신청자가 원할 경우 BMB는 거절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이미 등록된 회사나 기관에 통보가 되며, 이미 등록된 회사나 기관이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등록 상표나 로고가 상당히 유사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등록 신청자가 등록을 추진할 경우, 이미 등록된 기관이나 회사, 또는 개인이 지적소유권을 발효하여 법적 절차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등록 기간으로는 제출한 날짜로부터 약 6내지 7개월이 소요되나, 등록 신청자가 'Fast Search' (비용은 별도)를 택할 경우 6주 정도가 소요된다.

유효기간, 등록상표 개정 및 취소와 관련, 등록상표의 유효기간으로는 신청허가 날짜로부터 10년간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등록상표 개정은 매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 등록상표 취득 후 향후 3년간 또는 5년간 등록상표를 정기적으로 사용한 후더라도, 특별한 사유 없이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상표 등록권의 상실을 초래할 수 있다.

상표가 사용되었으나 등록되지 않은 경우 특별 케이스로 등록상표 취득에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이런 경우에도 등록상표권을 발효할 수 없기 때문에 소유자와의 법적인 시비는 불가피하며 소요되는 시간이나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

외국업체사 Benelux 3국의 상표 등록을 위해서는 네덜란드에 등록된 회사를 통하여 등록상표 취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외국기업은 자국에서 세계 각국의 상표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다. 저작권

저작권(Copyright)은 특별한 절차에 의해서 보호되는 것이 아니며, ‘독특하며, 개성이 포함됨 (original and personal character)’을 원칙으로 한다. 베른협약(1886), 국제저작권협약(1952)에 가입되었으며, 1912년 네덜란드 법으로도 보호 받는다. (Auteurswet 1912)

서적, 영화 등의 보호기간은 사후 70년간이며, 음반은 50년이다.

라. 저작인접권

네덜란드는 1993년 저작인접권법(Wet op de naburige rechten)을 제정하여, 예술가, 프로듀서, 음반업자, 방송국 등은 저작권과 관련한(저작권을 이용한 새로운 편성 등) 인접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한다. 별도 등록은 불필요하며, 공연 등이 이루어진 후의 다음해 1월부터 50년간 보호된다.

8. 통관/운송

가. 통관 절차 흐름도

EU회원국 밖에서 네덜란드로 유입되는 물품은 먼저 통관이 된 후 자유물품(free goods)이 된 후 EU 내 판매가 가능하다. 통관은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통관된 후 바이어에게 직접 배송되는 경우와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물류 창고로 옮겨진 후 통관되는 경우로 구분된다.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통관된 후 바이어에게 직접 배송되는 경우는 **세관 신고→제품의 EU국 안전, 건강, 경제 및 환경 요구 조건 충족 여부 검사→수입관세 납부→바이어로 배송** 절차를 거친다.

물류창고를 경유하여 통관되는 경우는 **컨테이너 터미널→물류창고로 보세운송→창고 보관→세관신고 및 통관→제품의 EU국 안전, 건강, 경제 및 환경 요구 조건 충족 여부 검사→수입관세 납부→바이어로 배송** 절차를 거친다.

나. 소요시간 및 제출 서류

네덜란드는 유럽의 관문으로 세계에서 가장 손쉬운 통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네덜란드 통관관련 전량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로 통관 절차를 수행하기 때문에 세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세관사이트를 접속 직접 수행 가능하다.

접속 후 CN번호, Commercial Value, 제품명, 총량, (경우에 따라 관세 특혜 대상품목은 원산지증명 C/O) 번호 입력) 등을 입력시키면 즉시 통관된다.

EDI를 통해 통관 후 네덜란드 세관이 다소 의심스러운 경우는 즉시 관련서류 제출을 요구하므로 Commercial Invoice, BL, Packling List는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다. 주요 항구

네덜란드의 주요 항구는 로테르담과 암스테르담 항구가 있으나,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량의 대부분이 로테르담항을 경유하고 있다. 로테르담항만 물량은 암스테르담 물량의 10배 수준에 달한다.

라. 컨테이너 비용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소용되는 비용은 20" 컨테이너와 40"컨테이너 모두 같으며(서류를 기준으로 통관), 로테르담 컨테이너 터미널의 경우 컨테이너 핸들링 비용 약 137.5 유로(아시아 운송), Security Charge(ISPS) 15유로, 컨테이너 운송비(컨테이너 터미널-로테르담 지역)는 약 200유로가 소요된다. (2008년 9월 기준)

마. 한국-주재국간 운송 소요 기간

한국-네덜란드 구간 해상운송 소요시간은 항해루트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한국-로테르담 직행루트 24-27일, 한국-함부르크-로테르담 26-29일 정도가 소요된다.

IV. 투자

1. 투자환경

가. 네덜란드의 경제 특성

- 유럽의 Little Giant
 - 협소한 국토 면적: EU 15 개국 중 12 위, 한반도의 1/5 수준
 - 세계 7 위의 무역 대국
 - 초대형 다국적기업 다수 소재: 세계 500 대 기업 중 13 개, 유럽 500 대 기업 중 33 개
- 유럽의 Gate
 - 유럽 수입물량의 60%, 수출물량의 30% 취급
 - 세계 최대 규모의 로테르담항 보유 (유럽 물동량의 40% 점유)
 - 유럽 시장의 Test Market: 시장 자유화로 국내외 기업간 경쟁 치열
- 유럽의 Garden
 - 연간 화훼류 수출 45 억 달러 (세계 시장의 60% 공급)
 - 첨단기술개발로 화훼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성공
- 유럽의 경제발전 Model
 - Polder Model: 노사정 협력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
 - 열악한 국토 환경 하에서 물류, 화훼, 금융 등 틈새 산업 육성, 성장

나. 투자 적격지로서의 네덜란드 비즈니스 환경

1) 지리적 중심지 및 양호한 접근성

- 반경 300 마일 (일일 생활권) 이내 1 억 7,000 만 명의 인구와 유럽 주요 기업의 50% 소재
- 유럽의 3 대 시장인 독일, 프랑스, 영국의 중간 지점에 위치
- 독일 루르 공업지대를 포함한 유럽 주요공업지역과 수로 및 육로로 연결
- 로테르담에서 주요 도시까지 거리 및 운송 수단별 소요시간

도시 명	거 리(km)	도로/기차	운 하
오스트리아(비엔나)	1,180	2 일	10 일
프랑스(릴리)	825	1 일	2 일
독일(베를린)	710	2 일	8 일
헝가리(부다페스트)	1,435	3 일	11.5 일
폴란드 (바르샤바)	1,285	4 일	10.5 일
체코(프라하)	890	3 일	-
스위스(바젤)	670	2 일	4 일

자료: Rotterdam Hinterland Connection, Port of Rotterdam

2) 풍부한 사회간접자본

□ 로테르담항(Port of Rotterdam)

- 상하이, 싱가포르에 이어 전세계 3 위의 물동량. 처리능력은 연간 1,000 만 TEU 의 컨테이너와 4 억 600 만 톤의 화물 처리. 선박으로 운송되는 화물의 37%가 로테르담과 암스테르담항을 경유
- 로테르담항 항만정보시스템(INTIS): 로테르담항은 INTIS 라 불리우는 정보시스템을 구축, 터미널의 모든 정보를 전자문서 교환시스템(EDI)을 통해 처리. 세관망, 기업망, 공공망과 연계된 항만물류 종합 정보시스템

□ 암스테르담 스키펴(Schiphol) 국제공항

- 스키펴 공항은 승객기준 유럽 5 위, Cargo 기준 유럽 3 위의 공항으로, 전 세계 87 개국 267 개의 지역으로 취항함. 물류, 운송, 보관 및 출하시설이 우수하며, 해외 각 지역과의 화물연결 체계도 탁월함. 1980 년 이후 약 140 개의 공항관련 Award 수상
- 암스테르담의 항만 및 공항시설과 로테르담의 항만시설은 도로, 철도망, 내수로 등 내륙 운송수단을 통해 유럽 주요 시장들과 연결. 도로는 총 연장 134,000km, 수로는 6,200km, 철로는 6,500km 임. 도로 포장률 90% 이상이며, 선박운행 가능 내수로는 5,000km, 이중 1,500 톤 이상의 대형선박 운행가능 수로는 1,800km

3) 우수한 물류 전문 인력

- 네덜란드는 전통적으로 무역 국가로 무역 및 운송이 화란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세계 7 위의 무역 대국이며, 세계 5 위의 대외 투자국이다.
- 3 만 명 이상의 풀타임 근로자가 물류 관련 비즈니스에 근무하며, 160 여 개의 물류 전문 서비스 업체를 보유하고 있으며 물류 관련 협회 및 기관, 대학 등 다양한 교육 기관에서 학위 및 물류 실무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 로테르담 해운물류대학(STC-R.Shipping and Transport College in Rotterdam)
 - 광양분교 개설 (2007.9.10)

4) 효율적이고 비즈니스마인드의 세관시스템

- EU 공통의 관세법을 적용 받지만 운용면에서는 EU 국가별로 관세법 집행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네덜란드는 세관 통관절차가 간편하고 융통성이 많다고 볼 수 있다.
- 물류 반입 일자에 따라 부가세나 또는 통관세 없이 다른 유럽 국가로의 물류 수송이 가능하며, 보세 창고의 허가도 매우 신속적이다.

5) 유럽 국가 중 최고의 외국어 구사능력

- 남녀노소 및 직업 구분 없이 대부분이 영어를 구사하며, 영어 이외에 독어, 불어 등 기타 외국어 구사도 우수하다.
-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유연한 노동시장을 자랑함. 단기 및 파트타임 계약 등 탄력적인 고용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파업 등 분규로 인한 인력 손실은 적은 편으로 알려져 있다.

다. 네덜란드 비즈니스 환경의 단점

1) 높은 인건비, 비효율적 고용 시장

- 유럽 다른 국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높고, 평균 근로 시간이 적은 편에 속한다.
- 근로자에 대한 권익보호를 우선시하는 법령과 문화 때문에 종업원 결근이 많고, 정규직 해고 시에는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네덜란드 정부는 공공부문 및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근로자와 정부, 근로자와 기업 간 크고 작은 마찰이 이어지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2. 외국기업 투자동향

가. 국별 對 네덜란드 투자동향

對 네덜란드 연도별 국가별 투자 유치 현황

(단위: 백만 유로)

국가 명	2005	2006	2007	2008 1Q
벨기에	4,228	6,424	15,065	1,717
독일	-851	453	-1,141	1,317
핀란드	48	395	28	-26
프랑스	7,160	-5,856	20,103	310
그리스	12	-164	-6	-11
아일랜드	2,723	1,832	738	707
이탈리아	916	823	-557	-111
룩셈부르크	5,415	-1,854	1,821	115
오스트리아	584	125	57	57
미국	907	736	13,061	2,371
홍콩	-30	-32	18	10
일본	226	1,905	950	-3
인도	-49	3	1	0
러시아	23	21	17	3
노르웨이	-29	-504	-18	14
기타	-1,757	1,602	-2,945	1,071
총계	38,352	6,363	72,653	10,590

자료: DNB (네덜란드 중앙은행, 2008.6) - 9월 기준 최신 업데이트 자료

나. 네덜란드 지역별, 업종별 투자 개황

네덜란드는 우리나라 면적의 1/5에 해당하는 면적을 가진 작은 국가이며, 전국이 고루 발달하여 로테르담 항만지역 또는 암스테르담 공항지역(스키폴 국제공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역이 유사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특색에 따라 외국기업의 업종별, 지역별 투자도 뚜렷한 특징을 보이지 않고 있다. 네덜란드 정부도 내외국 기업간의 비차별적 대우는 물론 지역별, 업종별 투자유치환경을 특성화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른 별도의 통계나 자료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이는 외국기업의 자국화 진전, 자국기업의 외국자본 침투로 내외국기업간 경계가 없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국가별 자본 이동에 의거한 통계수치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금액기준 최대 투자국은 벨기에이며, 프랑스와 미국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산업별로는 고용창출규모를 기준으로 ICT(27%의 고용점유), 전자전기(11%), 기계류(10%) 등으로서 IT와 제조업이 외국기업투자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내외국인 비차별 대우로 인해 국별, 업종별, 지역별로 구분된 외국기업의 투자실적이나 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있으나, 외국기업의 대네덜란드 투자동향은 하기와 같은 일반적인 경향을 추출할 수 있다.

1) 對 네덜란드 투자 개요

유럽 단일시장 도입 이후 네덜란드는 외국 기업들의 유럽 물류센터(EDC, European Distribution Center) 및 유럽지역본부(European Headquarter) 입지로 주목되어 왔다. 네덜란드의 발달된 금융 시스템 및 유리한 세제 시스템으로 다국적 기업의 지주회사 및 금융센터가 다수 설립되어 왔다. 이로 인해 세계적 기업의 제 3국 우회 투자기지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지리적 이점 및 발달된 투자환경에도 불구하고, UNCTAD 집계에 의한 네덜란드의 투자유치 실적은 연간 편차가 상당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다국적기업들이 동구 및 중국지역 등으로 투자거점을 분산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한편, 네덜란드 중앙은행(DNB)에서는 투자자금의 유출입 금액을 투자통계로 제시하고 있으나, 집계기준이 달라 기업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자료로는 활용이 불가능하다. 특히 DNB 통계는 다국적기업의 본지점간 대출 및 재투자, 그룹 내부기업간 포지션 변화 등의 제반 금융거래를 반영하고 있어 순수 FDI 투자실적으로 분석하기는 어렵다.

2) 물류 중심지로서의 외국 기업 투자 동향

네덜란드 국제물류협회(HIDC, Holland International Distribution Center)가 주장하는 네덜란드 물류입지의 강점은, (1)우수한 인프라, (2)좋은 기업환경, (3)발달된 물류서비스, (4)친기업적인 정부 등을 들고 있다.

HIDC의 자체 통계에 의하면 유럽에 투자한 외국기업들의 70%가 European Logistics Center로 네덜란드를 선택하고 네덜란드 수입액의 40%가 다른 유럽 지역으로 재수출된다.

네덜란드에 EDC의 설치 외국 기업을 보면, 자동차의 경우 Deltran Corporation, Fuji Heavy Industries, Perfect Fit Industries, TYC Europe, 화학의 경우 Essential Industries, Masterank Ltd., Sattler, Toyo Gosei, 의류 및 스포츠용품의 경우 Altama, Dunlop Slazenger Group, Macpac wilderness Equipment, 식품 및 음료의 경우 GUM Products International, Heritage Health, Vodka Cruiser 등 다수가 있다.

3) 제3국 우회투자 경유국으로 이용되는 네덜란드

네덜란드의 발달된 금융시스템 및 유리한 세제시스템으로 다국적 기업의 지주 회사 및 금융센터의 기능을 하는 기업도 많이 설립되어 왔다. 이는 네덜란드 기업이 아닌 외국기업이 제 3국에 투자할 때 네덜란드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 한 후 이를 통해 제 3국에 투자하는 경우이다. 네덜란드 기업명의로 한국에 투자하는 사례 중 필립스, ING 등 네덜란드 토종 기업의 대한투자를 제외하면 상당 부분이 이와 같은 제 3국 기업의 네덜란드 우회 투자이다.

외국투자기업이 네덜란드를 이용하는 또 다른 이유로는 외국투자기업에 대해 관대한 과세정책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네덜란드는 기업이 발생시킨 이윤에 대해서는 1회 부과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주주의 주식처분으로 실현된 자본소득이나 배당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으며, 네덜란드기업이 외국으로 지불하는 이자와 로열티 그리고 외국기업이 네덜란드 기업에 지불하는 이자와 로열티 등에도 낮은 세율을 적용 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그간 조세 피난처로 알려져 있던 케이먼 군도 등 카리브 연안지역에 버금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절세 가능 국가로 절세를 목적으로 외국기업이 설립한 일명 '페이퍼 컴퍼니'수가 2006년 기준 약 1,700여 개로 세계 유수의 다국적 기업 1,200여 개도 절세를 목적으로 네덜란드에 지주회사(Holding company)를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지주회사들은 네덜란드 내 투자뿐만 아니라 제3국 우회투자를 목적으로 한 경우도 많다.

4) 최근 외국 기업의 대 네덜란드 투자 동향

동구권으로 투자거점 이전에 따라 네덜란드의 실질 FDI 감소 추세, 유럽의 투자유치강국 네덜란드의 투자유치 실적이 2000년대 이후 감소세를 보이는 이유로, 동구권에 비해 상대적인 투자환경 악화, IT 서비스부문의 투자유치 감소, 숙련노동자 및 대단위 투자유치 공간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네덜란드 투자유치 강점 분야로는 소프트웨어,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등이며, 동 부문은 여전히 유럽 경쟁국에 비해 높은 FDI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으나, 제약 등 여타부문은 경쟁력을 잃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전체적으로 다국적기업의 관심이 동구권 및 중국 등 제3국 신흥 시장으로 이전되면서 상대적으로 네덜란드의 투자유치환경 및 경쟁력이 저하되었다고 볼 수 있다. 네덜란드에 투자한 외국기업 수는 2006년 기준 5,380개로 집계되어 2005년도에 비해 1.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나, 외국 기업을 통한 고용창출 규모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NFIA, HIDC, Ernest & Young, DNB, UNCTAD WID Country Profile, Financial Dagblad

5) 중서부 유럽 거점으로서 투자 매력은 여전히

네덜란드 투자유치 강점 분야로는 IT, BT, 화학,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및 부품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산업은 네덜란드 본토 기업들의 활동이 왕성하거나 물류 허브로서의 이점을 이용할 수 있는 분야들로서 유럽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FDI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다국적 기업들이 동구 및 러시아시장을 겨냥한 동유럽 물류거점을 별도로 설립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네덜란드에 대한 투자여력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나, 중서부 유럽의 물류 중심지로서 네덜란드의 매력은 여전히 높은 편으로서 한국의 중견, 중소기업들의 네덜란드 투자도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3. 우리기업 투자동향

가. 우리 기업의 대 네덜란드 투자 진출 실적(도착 기준)

한국의 대 네덜란드 투자 진출

(단위: 건, 천 달러)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2006	29	9	240,755	36	124,065
2007	29	11	685,918	43	268,975
2008 2Q	21	5	414,214	34	164,160
누계 (68~08.2Q)	238	102	4,044,755	260	2,853,879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지역별 해외투자현황 통계 - 2008년 9월 기준 최신 통계자료

나. 우리 기업의 대 네덜란드 업종별 투자 진출 현황(도착 기준)

한국의 대 네덜란드 업종별 투자 진출 현황(신고 기준)

(단위: 건, 천 달러)

산업별	2008 2Q		누계(1968-2008 2Q)	
	투자건수	투자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식료품 제조업	1	28	3	606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1	66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1	27,604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1	300
1차금속 제조업			1	45
금속가공 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1	93	2	193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제조업	1	8,768	24	1,704,736
전기 장비 제조업			1	7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4	275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	12,046
기타 운송 장비 제조업			4	1,671
기타 제품 제조업			3	2,853
총 계	3	8,869	67	1,750,997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지역별 해외투자현황 통계 - 2008년 9월 기준 최신 통계자료

다. 우리 기업의 지역별 투자 동향

우리 기업의 대 네덜란드 투자는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 유럽 공동물류센터’ (KEDC, 주관자는 KOTRA 암스테르담 무역관)의 운영으로, 중소기업형 현지 법인 개설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의 네덜란드 투자 진출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진행되어 왔다.

- 유럽 물류센터: LG 전자, 삼성전자, 대우전자, 쉐브롤릿 자동차, 한국타이어, 하이로 등
- 조립생산공장 및 서비스센터: 현대중공업, 삼성전자, LG-필립스 등
- 유럽마케팅 및 판매센터: 메디슨, 히타치-LG, 이수화학, 대상 등

상기와 같은 투자 진출 유형에 맞추어 지역별로는 로테르담 항만을 중심으로 한 투자 및 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을 중심으로 한 유럽 마케팅 중심형 투자 지역으로 대별된다.

- 로테르담항만지역 투자: 삼성전자, 한국타이어, 현대중공업, 현대상선 및 한진해운 등
- 암스테르담공항지역 투자: 엘지전자, 메디슨, 히타치-LG, 이수화학 등
- 기타지역: 대우자동차부품(브레다 지역) 등 교외지역 도시에 산재
- 2007 년 말, 대우 세브로레는 딜러 체제로 전환, 팬텍은 철수했다.

라. 우리 기업 주요 진출 현황표

회사명(국문)	진출 연도	취급 분야	종업원 (한국)	종업원 (외국)
(사)한국선급	1993	선박 및 기자재 검사	1	0
로테르담 aT센터	1992	한국농식품 홍보 및 시장 개척, 농산물 수출유통 정보수집가공 전파	3	0
인터불고 네덜란드	1994	한국식품	4	5
(주)한진해운	1976	해상운송 등 종합물류서비스 제공	3	60
코막 유럽	2003	중장비 attachment	2	3
현대상선 네덜란드	1996	컨테이너수송	5	52
현대엔진 유럽서비스센터	2001	선박 엔진 부품 및 기자재	8	13
현대중합금속(주) 네덜란드지사	2007	용접재(Welding Consumables)	1	0
현대중공업(주) 로테르담 지사	2000	운송장비(선박건조, 엔진제작, 중장비, 충전기, 해양설비 등)	4	0
삼성전자 네덜란드 물류법인	1998	전자제품	40	102
삼성전자 베네룩스 법인	1995	전자제품 및 사무기기	17	150
삼성전자 Overseas	1997	전자제품	1	7
고려제강 유럽판매법인	1991	Steel Wire, Wire Rope	3	3
대우일렉트로닉스(주)	1993	전기, 전자제품	1	24
볼보건설기계 유럽	1998	건설기계 수입, 보관, 변경, 유통	1	70
수산중공업 유럽 지사	1998	건설중장비 전문업체, 유압식 브레이카, 크라셔, 직진식(굴절식) 크레인	2	2
하이로지스틱스 유럽	2005	물류서비스(LG전자 유럽물류법인)	7	50
대륙화학공업(주) 유럽지사	2002	건설장비부품	1	0
대상유럽	1994	식품원료, 건식원료, 가공식품, 김치	2	1
맥트랜스로지스틱	2001	물류	1	2
메디슨 유럽	2004	영업, 서비스, 마케팅	4	11
아시아나항공 암스테르담 화물지점	1994	항공화물	1	3
와이드 유럽	2004	Speical Displays for Medical and Industrial Markets	1	3
유니와이드테크놀러지	2005	Server, workstation		
(주)대한항공	1973	여객 및 화물 운송	4	13
(주)범한판토스 베네룩스법인	2002	해운/항공 수출입 운송, 통관, 창고, 배송, 수출입 대행	4	18
(주)한국외환은행 암스테르담 지점	1979	모든 금융 업무 (기업, 소매, 투자 금융)	10	5
프라이스위터하우스쿠퍼스 어카운턴트 엔비	1985	회계, 세무, 컨설팅	4	5,000
히타치엘지 암스테르담 지사	2006	Optical Storage 제품 판매, SVC	4	22
이수유럽	2001	세제원료(계면활성제 및 그 원료)	2	0
파켄오피씨 유럽	2006	OPC 드럼	1	0
원진유럽	2004	내화물 제조	6	11
로알소버린 홀랜드	2006	Laminator & Laminating Film, Office Products, Home Appliances	2	3
엘지전자 베네룩스법인	2002	Consumer Electronics & Home Appliances	6	80
엘지씨엔에스 유럽	2003	IT Consulting, System Integration, System maintenance, H/W Resale	22	12
LG전자 유럽물류서비스법인	2006	물류서비스	20	130
LG전자 유럽 Shared SVC 센터	2006	금융, 세무, 회계등 SSC	10	4
디엔에스홀랜드	1995	건설 장비 생산 판매	1	2
시브롤레 유로파츠센터	1996	자동차 A/S용 부품	2	17
쌍용 유럽부품센터	2007	자동차 A/S용 부품	2	3

자료: KOTRA 2008 해외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

4. 주요 투자법 내용

가. 주요 투자법 개요

네덜란드에는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특별법이나 금지, 제한규정이 없다. 내국인과 외국인 동일 대우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다. 다른 투자유치 선진국과는 달리 별도의 외국투자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혜택도 없으며, 내외국인 동일대우 원칙에 의거 법인세를 점진적으로 낮추고 있다. 내외국기업 구분 없이 기업유치를 위한 몇 가지의 인센티브 제도는 운영하고 있다.

나. 투자 장려/제한/금지 분야

네덜란드는 법령을 통해 투자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않으며 특정 요건만 갖출 경우 외국인의 현지지점 설치, 법인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단, 네덜란드가 정책적으로 육성코자 하는 물류서비스, 농업 등 네덜란드 고유의 강점분야에는 로테르담 항만청 등 부문별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한 투자유치 활동이 왕성하며, 1:1 협상에 의거 외국기업 유치에 매진하고 있다.

다. 인센티브 개요

네덜란드 정부에서 제공하는 외국법인만을 위한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으며 네덜란드 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이전에 대해 제공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혜택은 네덜란드 내 설립된 법인 모두에 해당된다. 우리나라와 같이 직접적인 금융혜택 등의 직접적인 인센티브보다 많은 외국투자기업들이 매력을 느끼는 것은 네덜란드 세무당국의 법인세 관련 편의제도 때문이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 법인이 해외에 설립한 지사와의 특수거래관계에 대한 법인세율 사전 확정 제도 등은 다국적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복잡한 세무관계를 사전에 고정된 비율로 확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경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 많은 기업들이 네덜란드를 해외진출 거점으로 삼는 중요한 결정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아래는 상기 간접적인 인센티브 외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보조금 제도이다.

1) 중앙정부의 IPR (지역 투자 보조금)

- 경제력이 약한 지역에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포함
- Greenfield 투자가 주요 대상이며, 네덜란드 북부지역이 주요 수혜지역
- 중앙정부의 투자지원 보조금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투자금액의 25%는 자기자본으로 투자

2) EU 제도에 따른 인센티브

- ESF-II(유럽연합 사회기금-II)는 신규 채용, 실업직원 채용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 EFRO(지역개발펀드)는 유럽연합 조건에 부합 시 제공

3) 수출 촉진 제도

- EVD에서 시행하며, 우리나라 중소기업청의 프로그램과 유사
- PSB(신규 수출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원프로그램), PESP(초기 수출의 타당성을 분석해주는 프로그램), EKV(수출신용보험제도) 등

4) 고용보조금

- 지역고용사무소(Arbeidsbureau)와 협력하여 실업자를 고용했을 경우에 수혜 가능
- 종업원 교육을 위해서 ESF 등 프로그램 수혜 가능

5) 환경, 에너지 인센티브

- 환경의 경우, 유럽연합의 EU THERMIE프로그램 수혜 가능
- 에너지의 경우 에너지 상황호전에 기여한다는 추천을 받는 경우에 수혜 가능

6) R&D 보조금

- BTS: 환경기술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해주는 제도
- TOP: Technical Development Projects Decree에 의해 신규 개발에 따른 위험을 경감해 주기 위해 최대 25%까지 비용 지원

7)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대한 FDI 인정 여부 및 인센티브

- 경영권 획득을 목적으로 한 주식 취득의 경우로서, 회사설립, 인수합병의 형태를 포함하여, 관계회사간 이루어진 모든 금융거래(대출, 재투자이익잉여금, 그룹사간 계정구조 변경) 및 부동산 거래 등을 모두 직접투자자로 인정
-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대해서는 일부 분야에 한해서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해당 직접투자가 에너지 절약형 자산 구입, 환경친화적 자산 구입, 영화(film) 제작산업 투자, 신기술 취득을 위한 조사연구 비용 및 해당 종업원 임금 등과 같이 특정항목에 속할 경우에만 인센티브를 제공

라. 투자 관련 서비스 기관: 네덜란드 투자진흥청

네덜란드 투자진출 관련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법령, 제도 관련 문의 시 충분한 답변을 해 준다. 특히 서울주재 네덜란드 대사관 내 서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어 한국에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참고로 NFIA는 네덜란드 투자기관인 EVD와 2008년 법령에 의해 통합되었으나, EDV의 Operational Unit으로서 상당한 독립성을 가지고 운영 중이다.

- 네덜란드 본부 (Netherlands Foreign Investment Agency – NFIA)
 - Add: Be Zuidenhoutseweg 2, P.O.Box 20101, 2500 EC The Hague, The Netherlands
 - Tel: +31 70 379 8818
 - Fax: +31 70 379 6322
 - Website: <http://www.nfia.nl>
 - Remarks: 투자유치 총괄 및 외국기업 지원을 담당하는 네덜란드 경제부 산하 투자 유치 기관
- 서울 사무소
 - Add: Kyobo Building, 13th fl., Chongno 1-ka, Chongno-ku, Seoul, Korea
 - Tel: +82 2 732 1924
 - Fax: +82 2 732 1925

- Homepage: <http://www.nfia-korea.com>
- E-mail: info@nfia-korea.com
- Remarks: 한국기업의 네덜란드 진출 지원

(자료: NFIA, PWC Netherlands, 네덜란드 중앙은행 자료 종합)

5. 진출형태별 절차

네덜란드의 외국 기업진출 형태는 (1)대표 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2)지점(Branch), (3)법인 설립 등으로 나누어지며, 법인 설립은 다시 유한회사(B.V.)와 주식회사(N.V)로 나누어 진다.

업체 설립 형태는 외국 기업과 내국 기업이 자격 조건이나 설립 요건이 동일하며 외국 기업도 내국 기업과 같은 방법에 따라 현지 상공회의소 법에 따라 회사 설립 등기를 한다, 일단 등기 후 에는 ‘외투기업’ 등 별도의 법적 지위 없이 국내 기업으로 간주된다.

진출 분야도 중앙은행 및 공용방송사업 외에 업종별 제한은 없다.

네덜란드의 경우, 제조업, 서비스업을 막론하고 모든 분야에서 외국인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며 단 국가 중앙은행(한국은행에 해당)과 네덜란드 국영 공용방송(TV, 라디오)에 대한 외국 기업의 지분 참여 및 유사 형태 기관 설립은 금지되어 있으나 은행, 방송업도 상업적 목적 하에서는 설립이 허용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제한 및 금지 업종은 없다고 볼 수 있다.

은행업, 비즈니스 서비스업 (법률, 회계, 컨설팅 등), 교육 및 의료 서비스 모두 개방되어 있다.

가. 대표 사무소(The Representative Office, The Liaison Office)

1) 대표 사무소 설치 개요

대표 사무소는 현지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므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득을 창출할 수도 없으며, 시장 정보 수집 또는 국내 연락망으로서 활동한다. 대표 사무소는 현지 상공회의소에 등록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지만 사무실 운영의 필요에 의거 상공회의소에 등록하는 경우가 많다. 등록을 해야만 회사 명의의 은행구좌 개설, 전화 설치 및 자동차 임대, 직원 채용 등이 편리하기 때문이다.

대표 사무소는 소득을 창출하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 납부의무는 없으나 대표자는 개인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은 물론, 근로 허가 및 거주 허가는 받아야 하며, 직원 채용 시 일반적인 현지 노동법규의 적용을 받게 된다.

대표 사무소가 그 사업 활동 내용을 변경하고 실제적인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지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2) 대표 사무소 설치 절차

대표 사무소를 상공회의소에 등록하는 절차는 ‘지사’ 설립의 경우와 동일하다.

나. 지사 (The Branch Office)

1) 지사 설립 개요

지사는 현지의 독립법인이거나 아닌 모기업의 일부인 지점으로서, 사업을 영위한다는 점에서는 B.V.라고 하는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법인과 차이가 없으나, 상공회의소에 등록은 하여야 한다.

지사 설립에는 회사등록증 발급을 위한 상공회의소 등록 절차와 부가세 번호 등 발급을 위한 국세청 등록 등 2가지의 등록 절차가 있다.

2) 지사 설립 시 필요 정보 리스트 및 절차

- 회사명
- 회사 등기부 등본
 - 등록된 회사명, 등록 주체, 주소, 등록된 국가가 표시되어야 한다.
 - 발급 후 1개월 미만인 것으로 경우에 따라서 공증된 회사의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할 수도 있다.
- 회사 정관 (Articles of Incorporation)
- 회사에서 법적으로 지정한 해외법인의 대표이사 (Executive Director)와 지점 관리자 (Branch Manager)에 대한 정보
 - 개인에 대한 일반 정보 (국적, 주소, 생년월일, 출생지, 회사입사 날짜, 결혼여부, 등)
 - 공증된 여권 사본
 - 개인의 은행 계좌 정보
- 네덜란드 내에서의 주소
 - 지점 사무실의 임대 계약서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 지점이나 대표 사무소의 지점장이나 담당자에 대한 위임장 (A Letter of Authorization)
- 상공회의소 (Chamber of Commerce)에 등록
 - 상기의 서류들을 네덜란드어 또는 영어로 공증하여 등록 후 사본을 요청한다.
 - 상공회의소 연락처: Kamer van Koophandel Amsterdam (KVK Amsterdam)
Add. De Ruijterkade 5, 1013 AA Amsterdam, The Netherlands
Tel. 31-(0)20-5314000 / Fax. 31-(0)20-5314799
Homepage: www.kvk.nl (신청 절차 상세 안내 및 신청 양식 다운로드 가능)
- 국세청 등록 (세무번호 취득): 설립 후 네덜란드 Tax Office에 등록해야 한다.
 - 현지 회계법인 연락
 - 세무 신고서 작성: ‘Opgave Gegevens Startende Onderneming’(Statement of Information for Starting Up a New Business)

- 2006년 7월부터 고용주는 새로운 고용인에 대해 업무시작 적어도 하루 전에는 네덜란드 지역 Tax Office 'Firstday registration form'으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신청서는 3일 내에 네덜란드 국세청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거나 회계법인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 일반적으로 법률적으로 회사가 설립되면 Tax Office에서 관련 활동을 신고하라는 요구 서류를 지사나 대표 사무소로 발송하게 된다
- 국세청 연락처: Belastingdienst Amsterdam
Add. kingsfordweg 1, 1043 GN Amsterdam, The Netherlands
Tel. 0800-0543 / Fax. 31-(0)20-6877299
Homepage: www.belastingdienst.nl (신청 양식 다운로드 가능)

3) 지사 설립의 장단점

- 장점
 - 네덜란드 진출 초기에는 지사 설립이 법인설립 보다 간소하고 신속하게 설립할 수 있으며, 비밀 유지가 용이하다.
- 단점
 - 지사가 수행한 법적 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클레임에 대해 모기업(본사)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점에서, 자본금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B.V.(유한책임회사) 또는 N.V.(주식회사)와 다르다. 이 점에서 외국 기업들은 지사보다는 유한책임회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다. 법인 설립 (B.V.)

1) 법인 설립 개요

- 네덜란드에서의 법인은 유한책임회사(B.V.)와 주식회사(N.V.)의 두 가지가 있으나, 규모가 크지 않으며, 증시상장을 원하지 않을 경우 통상 B.V. 형태의 법인을 설립한다. 유한책임 회사는 주식공모를 할 수 없으며 주식양도는 제한되어 있다.
- 지사 설립 시에는 공증인이나 일반 여부에 관계없이 지사설립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현지법인 설립에는 공증인이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2) 법인 설립 시 필요 정보 리스트

- 회사명 (Name of the Company)
- 위임장 (Power of Attorney)
 - 위임장은 승인된 대표나 이사가 서명해야 한다. 이는 네덜란드 법무법인의 공증인이 설립자를 대신하여 법인을 설립할 것을 위임하는 서류로 서명권자의 권한을 대행한 변호사가 작성한 간단한 법률적 진술서가 필요하다.(법무법인에서 일반적으로 서식제공)
- 설립자 (Incorporator)
 - 설립자가 네덜란드인이거나 네덜란드 거주자일 필요는 없다. 일반적으로 설립자는 한국에 있는 모회사가 되며, 한국의 모회사인 경우는 모회사의 이름, 주소, 공증된 모회사의 등기부 등본, 가장 최근 연차보고서, 개인의 경우는 주소, 출생지, 생년월일, 국적, 직업 등 기타 개인정보

- 이사진 명단 (Members of the BoD of Dutch B.V.), 감사 명단 (Members of the Supervisory Board of Dutch B.V.)
 - 일반적으로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회사를 설립할 경우 감사 명단은 필요 없다.
국적, 출생지, 생년월일, 주소, 회사에서의 권한에 대한 정보, 여권 사본 등 필요
- 설립하게 되는 B.V.의 이사의 권한에 대해 지정한 선언문 (Declaration)
- 승인, 발행 납입 자본금
- 은행 인증서 (Bank Letter of Good Standing)
 - 설립자/이사진의 윤리적 거래와 지불능력 상태에 대해 설립자의 거래은행에서 발급한 인증서로 은행의 로고가 인쇄된 편지지에 내용과 서명이 필요하다.
- 대차대조표 (Balance Sheet)
- 모회사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Business Registry)
- 모회사의 회사 등기부 등본: 발급 후 1개월 미만이어야 한다.
- 정관 작성에 필요한 정보 (Articles of Association of Dutch B.V.)
 - 하기 사항은 법무법인의 공증인이 Dutch B.V.를 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정관을 작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필수 정보 사항이다.
 - 회사명, 회사 설립 목적, 주소지, 내규, 발행 주식 수, 자본금, 유로화로 계산된 명목상 주식 가치, 주식 종류, 주식 양도 등에 대한 규정
 - B.V. 설립에는 (i) 이사진의 허가 또는 (ii) 다른 주주에게 양도하는 규정이 없이는 주식의 양도를 금하는 조항이 요구된다. 주주총회 규칙, 주주 의결권, 운영, 해산에 관한 자세한 사항, 만약 운영 이사들이 부재시에 다른 이사(들)의 권한과 과정, 감사에대한 조항, 재무제표, 회계연도, 소득 분배와 손실 처리에 대한 조항, 설립자의 권리, 현금성 자본이 아닌 경우 다른 형태의 자본의 종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 은행계좌 (Bank Account)
 - 설립 B.V.의 이름으로 은행계좌 개설이 필요하다. 유럽에 있는 어떤 은행이나 상관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네덜란드에 지점이 있는 은행을 추천한다. 최소 자본금 18,000유로 입금이 필요하다.

3) 법인 설립 절차

- 네덜란드에서의 회사명 확인 절차
 - 설립자는 설립하려는 회사의 이름이 기존 회사와 동일하거나 아주 유사한지에 대해 지역 상공회의소(Chamber of Commerce)를 통해 전국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름이 B.V.로 시작하거나 끝나야 하며 상호명이 네덜란드어일 필요는 없다.
- 법무법인을 통해 신청서류 준비 완료
 - B.V. 설립 시 필요한 정보리스트에서 필요한 서류들을 네덜란드어로 공증해야 한다
- 네덜란드 법무성에 “이의 없음 확인서(Declaration of No Objection)”발급 요청
 - 설립자들이 지난 8년간 파산 경험이 있는지의 여부, 회사 설립자, 이사진, 실질적 의사 결정자에 대한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상공회의소 (Chamber of Commerce)에 가등록 (B.V. i.o.)
 - 법인 설립에 필요한 정식 절차를 밟는 데는 통상 약 2개월이 소요된다. 법무부 동의서 발급 이전이라도 법인은 잠정적으로 그 활동을 수행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반드시 상호 뒤에 표기하는 B.V. 다음에 i.o.라는 표기를 붙여야 한다 (i.o.란 'in oprichting'의 약자로 '법인 설립 절차 진행 중'이라는 의미). B.V. i.o.는 상업등기소에 등록하면 개시가 가능하다. B.V.설립 완료 전까지는 설립자와 이사가 개별적으로 B.V. i.o.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으며 회사의 설립 전에 관련 영업 활동 및 계약 등이 필요한 경우 사용될 수 있는 법률 제도이다.
- 설립한 B.V. 명의로 은행계좌 개설
 - 설립 자본금: 18,000 입금
 - 법인 자본금 보유 및 투자 내역 증명: 은행 잔고 자본금이 최소 18,000유로 이어야 한다.
- 자본금 납입 은행 증명서 발급 요청
 - 자본금 납입 후 관련 은행에서 증명서를 발급 받아 공증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 Deed of Incorporation 작성을 위해 필요한 신청 서류 준비 완료
 - 이의 없음 확인서 (Declaration of No Objection)
 - 최종 정관
 - 자본금 납입 증명서
- 상공회의소에 법인으로 정식 등록
 - 공증된 Deed of Incorporation을 바탕으로 공증인은 상공회의소(Chamber of Commerce)에 공증인이 Deed of Incorporation을 날인할 날짜로부터 8일 이내에 회사를 등록해야 한다.
- 설립 이후의 정보 갱신
 - 사업 활동 변경 부분이 있는 경우 등록을 변경해야 하며 변경에 대한 정보 갱신이 요구된다.

4) 법인 설립 업무 처리기간 규정

- 일반적으로 법무부가 추가 질문 사항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Declaration of No Objection (이의 없음 판정서)는 수 일에서(급행) 약 10 영업일 이내에(일반) 법무부에 의해 발급된다.
- 실제로 필요한 정보와 문서를 수집하는 것을 포함하여 전체 법인 설립 절차는 일반적으로 3~5주의 기간이 소요된다.
- 가장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사항은 이의없음 판정서와 관련하여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일과 B.V.의 최초 자본 총액과 관련하여 은행 확인서를 획득하는 일이다.
- 그러나 이러한 정보를 단기간에 입수할 수 있을 경우에는 법인 설립이 경우에 따라 1~2주 이내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

5) 법인(B.V.) 설립의 장단점

○ 장점

- 현지 법인이 수행한 법적 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클레임에 대해 자본금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된다.

○ 단점

- 지사 설립의 경우보다 준비해야 할 서류와 비용이 많이 든다.
- 지사 및 법인 설립은 네덜란드에 설립할 사무실의 법적 지위이며 동 지사 또는 법인에 파견할 근로자의 법적 지위와는 별개로 취급된다. 동 지사 또는 법인에 파견할 근로자는 (1)근로허가서 (Working Permit) 취득, (2)임시체제비자(MVV) 취득, (3)현지 부임 후 거주허가증(Residence Permit) 취득 등의 3개 단계를 별도로 거쳐야 한다

라. B.V.(유한책임회사) / 지점(Branch) / 대표 사무소(Rep. Office)의 차이

	B.V	지점	대표 사무소
동일체 여부	○ 한국 모회사와 B.V.는 법적으로 별도인격체 ○ 화란법률의 적용받음	○ 한국 모회사와 지점은 법적으로 동일 인격체 ○ 화란법률의 적용받음	○ 실제적인 사업 활동에 관여할 수 없고 비영업적 활동(마케팅 조사, 업무 연락)만을 수행할 수 있으며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득을 창출할 수 없다. ○ 사업 활동 내용을 변경하고 실제적인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 등록을 갱신해야 한다. ○ 화란법률의 적용 받지 않음
공통점	○ 개방 경제 체제로 네덜란드의 회사법은 내국 기업과 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음 ○ 네덜란드에 주재할 사람들(네덜란드 국민 또는 외국인)에 대한 확인 규정이 엄격함 ○ 파견 직원의 근로허가(Work Permit)와 거주허가(Residence Permit) 필요함 ○ 직원을 채용 시에는 반드시 노동법에 따른 규정을 준수해야 함		
법인 세율	○ 과세 대상 소득에 처음 25,000까지 - 20% ○ 과세 대상 소득에 25,000부터 60,000까지 - 23.5% ○ 과세 대상 소득에 60,000이상 - 25.5%		해당 사항 없음

자료: NFIA (네덜란드 투자진흥청)

마. 공장설립 가이드

외국기업이 네덜란드 내 공장부지를 확보하는 방안은 1) 네덜란드 측 합자/합작선의 현물 출자, 2) 지방정부로부터 유상배정, 3) 부지임차 등 3가지 방법이 있다.

공장설립을 위한 표준절차는 없으며, 각 지방정부 또는 중앙정부인허가 관련사항이 외국인의 입장에서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외국인 투자기업은 네덜란드 투자진흥청(NFIA)를 접촉, 자문을 구한다.

NFIA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지역을 선정,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준다.

□ 공장 설립 관련 인허가 사항

공장의 용도와 규모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등에 기초하여, 건 별로 심사가 이루어진다. 공장의 규모, 용도 등에 따라 중앙정부 승인 사항 또는 지방정부 승인 사항으로 구분되며, 특히 공장 설립에 따른 환경평가를 매우 까다롭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NFIA 또는 전문 컨설팅 회사의 도움이 필요하며, 부동산 취득 및 공장 신, 증축과 관련된 인허가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내국인과 동일한 대우를 받으며,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제한이 없다.
- 부동산 취득 시 지역 등기소에 반드시 등록해야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등록 시 소유권, 저당권, 관련 법원 판결 등이 모두 기재된다.
- 기타 건축물 신, 증축의 경우, 관할 시청 내 지역건축심의위(Local Council)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신, 증축 신청 시 Local Council 에서는 건축 부지, 건축물의 디자인, 공해산업 여부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 허가 여부를 결정하며, 일부 대형 건축물이나 특별 사안에 대해서는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의 허가 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 건축물의 공업용수 허가는 관할 수로국(Water Board)의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며, 공해 사업의 경우는 공해 방지법 및 수질오염 방지법 등에 의해 추가적으로 관련 시설물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6. 투자입지여건

가. 유럽 물류 운송의 허브 네덜란드

- 육상운송산업, 유럽 내 국제 화물 운송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22%
-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구는 매년 4 억 600 만 톤 화물 운송, 스키폴 국제공항은 유럽에서 4 번째 규모의 항공화물 허브 연간 160 만 톤 화물 처리
- 다국적 기업 유럽 지역 물류센터 70% 네덜란드에 위치
- 지리적으로 유럽의 관문에 위치, 충실한 사회 기본 인프라(도로, 전력, 통신, 금융), 다국어 구사가 가능한 풍부한 고급인력 및 유연한 노동시장이 이점

나. 네덜란드 물류 운송 산업 관련 주요 지표

- 전체 네덜란드 총 산업 생산의 10% 차지(2008 년 기준)
- 약 150 개의 물류업체가 네덜란드에서 일반/특수 물류창고 운영 중
- 260 억 유로가 중소규모 업체들에 의해 창출됨, 노동인력 1 인당 노동생산성은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62,000 유로
- 네덜란드 물류 운송산업 중 3PL(제 3 자 물류) 서비스산업규모 약 65 억 유로(추정치)
- 주요 기업 Exel, Vos Logistics, Frans Maas Groep, TNT Solutions 등, 고용인력 약 17,500 명

- 유럽 내 3PL 의 경우 대부분 대외출입구(공항, 항만)와 물류센터, 물류센터와 제품 유통업체 및 고객사와의 수송에 주력
- 2005 년 1 월 1 일 기준, 3PL 관련 기업은 약 23,000 개. 대부분 육상 운송 업체 (Trucking, Courier)
- 3PL 기업의 8% 이상은 중소기업 업체 이들 업체가 3PL 산업 생산 중 75% 차지
- 전체 운송 중 75%가 도로, 나머지 30%는 내륙 해운 이용, 철도 내륙 수송은 2% 내외

주요 물류 인프라 현황 (2008년 기준)

도로망	134,981 km, 고속도로 3,267 km(속도제한 120km/hour)
철도	2,797 km, 2/3 이상이 전철화
수로	6,211 km, 75% 이상 운하
항구(바다)	15, 주요항구 포함 (Rotterdam, Amsterdam, Vlissingen/Terneuzen, Moerdijk, Delfzijl)
공항	25, 4개 국제공항 포함 (Schiphol, Rotterdam, Eindhoven and Maastricht)
항공운송사	70+ 유럽을 포함 전세계를 대상으로 영업
항공사	28+, 주요항공사 포함(KLM, American, Continental, Delta)
파이프라인	총 16,500 km, gas 4,348 miles, oil 366 miles, refined products 445 miles

다. 네덜란드의 산업 단지

- 네덜란드는 산업별 특색 있는 산업단지, 외국인 전용 기업단지 등이 없으며, 외국기업은 해당 기업의 비즈니스형태에 따라 입지를 선택해야 한다. 물류유통 중심일 경우 로테르담이 유리하며, 유럽 본부 성격일 경우 스키펴 공항이 있는 암스테르담이 유리하다.
- 네덜란드에는 특징적인 산업단지는 없으나, 유럽물류거점으로서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대부분의 산업단지는 Warehouse 중심으로 전국에 걸쳐 도시 별로 조성되어 있다. 제조 업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산업공단은 DSM(화학), Hoogeveen(철강) 등을 제외하고는 미미 하다. 그러나, DSM(DSM 화학회사 소재: 한국의 울산과 유사), Hoogeveen(Hoogeveen 제철 소재: 한국의 포항과 유사) 등도 방대한 규모의 1 개 단위회사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엄밀한 의미에서의 산업단지로 정의할 수는 없다.
- 네덜란드 내에 소재한 많은 공단들(암스테르담, 림버그, 로테르담, 알미르 등 다수 지방 공단 소재)은 대부분이 Warehouse 를 중심으로 구성된 단지라고 할 수 있으며, 이들 공단에 소재한 기업들의 활동은 물류 혹은 부가가치 물류로 집약된다. 즉 단순 물류 유통뿐 아니라 반제품 혹은 완제품을 수입하여 일부 가공단계(라벨링, 일부 조립 등 포함)를 거쳐 소비 시장별로 특화된 상품을 재생산, 수출/판매 활동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 제조업이 약하고 서비스업이 발달한 네덜란드의 특성 상 한국식 산업단지의 개념이 네덜란드에는 없다.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물류중심 항만도시인 로테르담이 잘 개발되어 있으며, 동 항만을 중심으로 석유화학단지가 일부 집적되어 있다. 나머지는 전국적으로 유명기업 및 중소기업 등이 산재해 있을 뿐이며, 자연발생적으로 생성된 중소기업의 산업 클러스터가 일부 생성되어 있으나 대규모 또는 인공적으로 조성되지 않아 산업시너지 효과는 크지 않다.

라. 과학단지(사이언스파크)

- 지방자치 단체별로 산업육성 전략으로 "Science Park"를 운영하고 있다. 연구단지 성격의 Science Park 에는 대학부설연구소 또는 벤처중소기업 등이 소재하고 있으며, 산학협력의 산실로 평가 받고 있다. 현재 네덜란드에 설치된 Science Park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위 치	설립 연도	면적(Ha)	입주 업체/기관 수	근로자 수
Nijmegen	1989	1.5	25	100
Wageningen	1989	5.5	39	400
Amsterdam	1991	20.0	20	150
Leiden	1984	30.0	25	640
Enschede	1981	18.5	106	1,115
Groningen	1988	6.0	51	460
Delft	1992	30.0	15	27

자료: The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마. 지역별 투자 여건

네덜란드의 산업단지 및 과학단지 등을 감안한 지역별 투자여건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로테르담

유럽 최고의 항만인 로테르담 항만을 중심으로 물류서비스, 석유화학 입지로 유력하며, 쉘 등 세계적 정유사 및 보팩 등 액화화학 물류기업의 활동이 왕성하다.

2) 아인트호벤

필립스전자, ASML(반도체장비) 등 유력기업이 입주, IT 및 전자산업입지로 유력하다.

3) 암스테르담

알스미어 화훼경매장 및 스키폴 공항이 인접해 있으며, 공항물류서비스 및 대기업 마케팅본부 입지로 유력하다.

4) 고린켄

다멘 조선소가 소재하여 조선 및 조선기자재 산업 입지로 유력하며 조선기자재 관련 전시회 등도 동 지역에서 개최된다.

7. 노무관리

가. 노사관계

네덜란드는 노사분규가 적게 발생하는 편이며, 노사 분규가 발생하면 신속하고도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노사분규가 장기화될 경우 노동조합과 사측 어느 쪽에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공감대가 오랜 기간 형성된 결과이다.

1) 노동조합

네덜란드의 노동조합 결성비율은 27%에 불과한 데, 이는 유럽 평균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노조원들은 네덜란드 산업노조연맹, 크리스찬국가노동자조합 연맹 및 중고급 근로자 협의회라고 하는 3개의 노동조합의 지배를 받는다.

2) 사용자 단체

사용자들은 사용자 단체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으며, 네덜란드에는 3개의 주요 사용자단체가 있다. 대규모 산업 연합회들을 대표하는 VNO-NCW 연합회, 중소기업들을 통합하고 있는 MKB Netherlands, 농업 단체들을 통합하고 있는 LTO Netherlands이다.

3) 노동위원회

네덜란드는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에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지 위하여 근로자의 수가 50인 이상인 기업들은 노동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위원회의 위원들은 근로자들이 직접 선출하며, 회사의 규모에 따라 3인에서 25인까지 다양하다. 노동위원회 위원들은 반드시 노동조합 조합원이 아니며 회사의 모든 근로자들을 대표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노동위원회 위원의 해임은 금지되어 있다.

나. 사회보장제도

네덜란드의 사회보장은 크게 대상 집단에 따라 2가지로 분류하는데, 국민보험제도(모든 거주자)와 사회보장제도(모든 근로자)이다.

국민보험제도는 모든 거주자가 노령, 배우자나 부모의 사망, 자녀보호와 양육, 특별의료비 등으로 인한 금융상의 경과에 대해 보상을 받는다.

사회보장제도에서는 모든 근로자가 질병, 실업, 장기근로불가 및 진료로 인한 금융상의 경과에 대해 보상을 받는다. 사회보장 관련 법률에는 수많은 법률과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들은 의료비, 질병 및 근로불가능 수당, 실업수당 및 기타 수당 등을 다루고 있다.

사회보장제도에 투입되는 사회보장분담금은 대부분 정부가 부담하지만 근로자가 일부 부담하거나 사용자가 부담하는 강제적인 분담금도 있다. 사용자 분담금을 피보험 임금의 비율로 표시하면, 불구수당 7.96%, 실업수당(WW) 4.45%, 의무건강보험법(ZFW) 6.25% 등이 있으며, 모든 분담금의 경우 연간 지급할 최대금액이 정해져 있다.

다. 노동법규

네덜란드에서 근로자들의 이익은 법률규정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법규에는 근로시간, 최저임금, 공휴일 수, 공휴일 수당, 안전규정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법규정 이외에도 고용주 단체와 노동조합이 합의한 단체근로합의서도 있다.

1) 근로시간법

근로시간법은 산업계와 정부 모든 부문에 적용되는 단일규정이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는 표준 근로시간과 휴식시간, 여성들을 위한 임신 중과 임신 직후 근로시간 변경 허용, 어린이 근로금지 및 예외규정, 16-17세 청소년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 근로시간에 대한 기록 유

지 규정, 근로자들에게 근로형태 변경을 통지할 의무 등이 포함되어 있다. 상급직원과 관리 직원에 대한 근로시간법 적용 및 그들의 의무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예외규정이 있다.

일반적으로 관리자 직위에 있는 근로자들에게는 시간 외 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 관례이다. 이들에게는 시간 외 근무수당이 봉급에 이미 반영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 문제는 개별 고용계약서에 분명히 명시되어야 한다.

법정 최저임금과 공휴일 수당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규 근무시간의 3분의 1 이상을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법정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저 임금은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다르며 상근직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현지직원 연간 최소휴가일수는 주당 근무시간 x 4배로 1일 8시간 근무 시 160시간, 20일이 연간 휴가일수가 된다.(160시간 = 8시간 x 5일 x 4배). 휴가일수는 차년도로 이월가능하나 5년이 지난 휴가일수는 자동 삭제된다.

유급공휴일은 신년 1월1일, 부활절 월요일 3/4월(변동), 여왕생일 4월30일, 자유의 날(5월 5일), 예수승천일 5월(변동), 화이트월요일(변동), 성탄절(12월25일), 박싱데이 12월 26일 등이며, 법으로 명시된 다른 유급휴가일은 결혼과 같은 개인적인 행사 1-3일, 배우자 또는 자녀사망 3일, 다른 모든 가족 축일 1일 등이다.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데 대한 보상금 지급은 고용계약 종료시 또는 고용주와 근로자의 쌍방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2) 현지 직원 병가 일수 한도와 병가 시 고용주의 비용 부담 여부

현지 직원 병가는 2년까지 인정되며 네덜란드 기업의 경우 Corporate Doctor제도를 운영하여 직원 병가 시 해당 의사 또는 기관이 치료와 건강 상태를 관리하며, 가능한 조속히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직원이 고의적으로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건강상 문제 발생 시 공식적인 청구로 사용할 수 있다,

고용주는 병가 발생시 2년간 매월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나 2년이 지나면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법원, 노동사무소 등에 해당 내용을 통지하고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각 기업들에서는 병가기간 급여지급을 위해 현지직원 병가대비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3) 고용 계약 및 계약의 종료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그의 지시에 따라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법적으로 피고용인으로 간주된다. 대부분의 경우 임시 고용계약은 고용 계약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개별 고용계약에는 법규정이나 단체 노동협약의 규정에서 허용하지 않거나 배치되는 조항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네덜란드에서 직원 고용 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계약 기간으로, 개별 계약의 기간에 관계없이 3번까지의 고용계약은 임시 계약으로 계약기간 종료 시 별도의 통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즉 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면 된다. 그러나 4번째 계약부터는 일종의 종신 고용으로 들어가며 이때부터는 계약해지를 위해서 법원 및 노동사무소에 직원 해고를 위한 절차를 신청해야 하므로 계약 갱신 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직원 계약해지를 위한 조건은 크게 두 유형으로 직원의 근무실적과 회사의 조직변경 또는 사업영역변경이 있다.

먼저 근무실적과 관련하여 해고 시 퇴직금은 필요없으며 고용주가 자체적으로 만든 평가시스템에 따라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문서를 축적하여 해고 시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된다. 평가시스템과 문서에 대한 현지법 규정은 없으며 전적으로 고용주의 재량에 달려있다.

조직변경, 사업영역변경에 따른 경우 일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통상 근무년수별로 1개월치 급여를 지급한다. 즉 5년 근무하였으면 5개월치를 급여를 지급하면 된다.

고용계약서는 확정된 일정기간 또는 불특정 기간으로 하여 체결될 수 있으며, 확정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 그러한 계약은 무기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간주된다. 모든 계약에서 수습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법정 최대 수습기간은 2개월이다. 동 기간 내 어느 시점에 양 당사자가 어떠한 의무조건없이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고용계약서에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채용지정일 및 고용개시일, 계약의 성격(상근직 또는 임시직), 수습기간, 근무기간, 특정 계약기간, 직위 및 요구가 있을 경우 간략한 직무기술 내용, 임금, 2 차 고용기간 (예: 연금지급계획), 해당될 경우 비경쟁조항 및 비밀유지 조항 등.

고용주가 피고용자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할 경우 계약 종료를 통지하고 종료하기 전에 노동 사무소의 허가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 유한책임 회사의 관리 책임자 해임
- 법원에 의한 고용계약 해지
- 임시직 고용계약 기간의 만료
- 근로자가 수습 기간 중 해고될 경우
- 고용주와 근로자 쌍방의 합의에 따른 고용 관계 종료
- 즉각 해고 사유(심각한 무능력, 절도 등 수용할 수 없는 행위, 총체적인 업무태만, 합리적인 업무 할당에 대한 반복적인 수용 거부)에 해당할 경우 등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 질병에 걸려있을 경우. 단, 그 기간이 2년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 군복무 중일 때. 단, 단체협약이나 법정규정이 이를 허용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 출산 8 주전부터 출산후 16 주까지의 임신부인 경우
- 근로자가 노동협의회 회원인 경우 등

4) 법정 최저임금

법정 최저임금은 해마다 상향조정되고 있는 추세이며, 2008 년도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다.

(단위: 유로, 세전 임금)

23 세 이상	1356.60
22 세	1153.10
21 세	983.55
20 세	934.30
19 세	712.20
18 세	617.25
17 세	535.85
16 세	468.05
15 세	407.00

자료: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Employment – 2008 년 9 월 기준 최신 업데이트 자료

5) 자체 평가 규정 및 인센티브 등 상여금 지급 관련

네덜란드 현지법에는 계약서에 명시된 이외의 인센티브와 상여금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전적으로 고용주의 재량에 달려 있다. 따라서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급여인상분, 1개월 상여금 등은 고용주 재량하에 실시할 수 있다.

8. 조세제도

가. 법인세

법인세는 네덜란드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의 전세계 소득에 대해 부과되거나, 외국법인의 네덜란드 내 상설조직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해 부과된다.

네덜란드의 법인세율은 2007년 최저기준 20%로 OECD 평균 28%, EU 평균 25%, 남미 28%, 아태지역 29%에 비해 낮으며 2004년부터 매년 인하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네덜란드에 설립한 외국기업이 상기 각종 면세, 감세 제도를 활용할 경우 법인세 20%도 실제 납부 금액은 세계 최저수준 범주에 속한다.

아울러 네덜란드 법인세는 누진세율을 적용 최초 과세대상 이윤 25,000유로까지 20%, 20,001~60,000유로는 23.5%, 60,000유로 초과는 25.5%를 부과 한다.

거주자인 법인 납세자는 전세계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네덜란드에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나, 국외에서 얻은 이윤에 대해 외국에서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네덜란드 세금을 면제해주는 여러 규정들이 '이중과세방지' 관련 조세협정, 일반 법령 및 참여지분 면세제도 등에 규정되어 있다.

나. 개인 소득세

취업을 통해 얻는 소득을 포함하여 네덜란드에서 창출하는 일정 소득 요인들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주식옵션 등도 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

과세대상이 대상 소득그룹으로 세 가지 유형을 설정하고 있는 데, (1군 소득)은 직장가정에서 얻는 과세대상 소득, (2군 소득)은 고액의 이자로부터 얻는 과세대상 소득, (3군 소득)은 저축 및 투자로부터 얻는 과세대상 소득으로 구분하고 있다.

납부해야 할 세액은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 가능 손실(비용)을 차감한 과표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데, 기초 차감액 1,972유로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으며, 추가 차감여부는 개인별 소득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

직장과 가정에서 얻는 소득에 대한 일반 소득세율은 연간 소득규모에 따라 4개 단계로 나누어 적용되는데, 1단계 소득(16,893유로까지)에 대해서는 34.15% (65세 이상은 16.25%), 2단계 소득(16,894~30,357유로)에는 41.45% (65세 이상은 23.25%), 3단계 소득(30,358~51,762 유로)에는 나이에 관계없이 42%, 4단계 소득(51,763유로 이상)에도 나이에 관계 없이 52%의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다. 주재원 및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특별 공제 - 30% 비과세 규정

네덜란드에 일시적으로 부임하는 주재원은 일정한 상황 하에서 30% 비과세규정을 소정의 협약과 신청요건을 필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에세 네덜란드 체제와 관련한 추가적 수당에 대해 비과세하는 것으로서, 동 일괄 비과세 수당은 최대 총급여와 수당의 총액의 30%까지 가능하며, 이 최대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급여에 100/70을 곱한 후 이의 30%를 구하면 된다.

라. 부가가치세

모든 상행위를 하는 자연인 및 법인(상인)은 상행위로 인한 매출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 매출에 대한 세금은 부가가치세(VAT; Value Added Tax)로도 불리는데, 네덜란드에서는 동 부가세가 재화나 용역의 생산 및 분배의 순환단계마다 부과되도록 되어 있다.

가장 간단한 형태의 부가세 형태를 보면, 기업이 자신의 매출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 하지만 (매출부가세), 구매 시에는 자신이 지불한 부가세(매입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이후 해당기업은 세무당국에 주기적으로 세무신고를 하며, 매출부가세에서 매입부가세를 공제한 후 잔액을 세무당국에 납부하며, 반대로 매입부가세가 매출부가세를 초과하게 되면 차액에 대해 환급을 받는다.

표준 부가세율이 네덜란드는 19%이며, 이는 대부분의 상품과 용역의 거래에 적용된다. 부가 세율이 6%로 낮은 품목의 경우는 식품, 서적과 신문, 신문광고, 의약품, 승객운송 및 호텔 숙박업에 적용된다. 그러나, 네덜란드에서 제 3국으로 수출될 경우 해당 수출상품에 대한 부가세율은 제로이다.

네덜란드에서는 수출입 물류가 많이 제3국에서 물품이 네덜란드 물류창고로 입고되는 시점에서는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고, 물류창고에서 네덜란드 바이어에게 물건이 인도되는 시점에서 수입통관이 일어나며 이 때 부가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부가세납부 및 환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네덜란드는 부가세납부 유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제품을 수입통관하는 시점에서 부가세를 내지 않고, 분기별 정산을 하여 상계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동 부가세 상계과정은 통상 네덜란드 물류기업이 대행하고 있으므로 제3국의 수출업자는 네덜란드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과 같은 혜택을 누리게 된다.

마. 환경세 및 기타

지하수, 상수도, 쓰레기, 연료 그리고 에너지세 등은 환경세로 분류할 수 있다. 이는 환경세법에 규정된 것들이며, 환경세와 유사한 크고 작은 세금들이 있는 데, 소비세(excise duties), 자동차세 그리고 승용차 및 이륜구동자동차에 대한 세금 등이 그들이다.

외국기업이 네덜란드 내에 보유 중인 부동산을 처분하였을 때는 구입 및 매각차액에 따라 CIT Act 규정에 정한 과세표준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차액의 최초 25,000유로에 대해서는 20%, 60,000유로 이상은 23.5%, 6만 유로 이상에 대해서는 25.5%를 내야한다.

(자료: 네덜란드 재무부발간 조세안내 번역자료(2004), 네덜란드 투자진흥청 투자환경 안내 한글자료(2005) 및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현지 세무전문 변호사 상담. 2007.12)

바. 조세 우대 제도

1) 금융소득 면세(Participation exemption)

네덜란드 소재 기업이 투자기업이나 자회사의 보유주식으로부터 나오는 배당금이나 주식처분으로 실현된 모든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100% 면세, 면세 혜택을 위한 요건은 5%이상의 모든 지분 참여면 되고 면세조항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일부 예외사항을 두고 있다. 미국기업이 네덜란드에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동 회사를 통해 제3국에 투자할 경우, 동 추자에서 발생한 배당금이나 주식처분에 대한 이익은 면세다.

2) 적재산권 원천과세 면세 및 감세제도(0% tax for interest & royalties from/to Netherlands)

네덜란드 소재 기업이 외국으로 지불하는 이자와 로열티에 대해 원천과세 제외되고 외국기업이 네덜란드 소재 기업에게 지불한 이자와 로열티에 대해서도 낮은 원천세율을 적용한다. 코카콜라, 나이키, 이케아 등 브랜드 로열티 수입이 많은 기업들이 네덜란드에 지주회사를 다수 설립했고, 기업뿐만 아니라 유명 연예인 등 개인도 지주회사 설립을 통해 절세 혜택을 받고 있다.

3) 과세율 사전 설정 가능

관계회사간의 비즈니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과세대상 이윤을 사전에 결정하는 시스템, 해당 과세대상 이윤과 과세율을 세무당국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함으로써 해당 기업의 투자결정은 물론 기업의 재무계획을 명확히 할 수 있다.

4) 국제적 과세협약 네트워크

저율의 원천세 적용을 위해 세계적인 조세협약 유지 확대, 네덜란드는 납세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주자가 해외에서 발생시킨 소득에 대해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세계 60여 개국과 광범위한 과세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네덜란드가 낮은 원천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는 네덜란드기업은 유리한 세제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만약 과세협약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거주자의 해외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는 'Unilateral Decree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이라는 국제규정에 의해 이행될 수 있으며 'EC Parent-Subsidiary Directive' 규정은 EC 회원국 간의 배당금 지급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원천징수세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9.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가. 외환 거래 및 해외 송금

1) 개관(OVERVIEW)

네덜란드는 외환거래와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타 국가에 비해 매우 자유로운 편이나 사안별로 정기적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재정 및 통화정책은 유로화가 네덜란드 공용통화로 결정된 1999년 1월1일부로 중앙 정부에서 관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로화 사용 국가 15개국 간의 자금 유통을 위한 절차가 더욱 간편해졌으며 수수료 또한 저렴해졌다. (13개 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페인, 네덜란드, 사이러스, 몰타)

유로화는 2002년 1월부터 본격 유통되고 있으며 2007년1월까지 중앙은행에서 과거 길더(guilders)와 주화를 교환해주었다. 유로화는 2032년1월까지 길더화로 계속 교환해 줄 예정이나 소장 등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 가능하며 일반 상행위에는 사용할 수 없다.

외국 기업들 또한 네덜란드 내국 기업과 동일한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EU가입국 기업의 경우 자국기업과 반드시 똑같은 대우를 받도록 강제 규정되어 있다. 외국기업들은 네덜란드 기업을 100% 소유할 수도 있으며 자본금, 이익, 기술 로열티 및 수수료 등을 자유롭게 본국으로 송금할 수도 있다. 현지 자금조달도 자국기업과 마찬가지로 네덜란드 소재 다국적은행, 네덜란드 은행 등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가능하며 L/C 결제 등 각종 무역관련 결제 서비스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네덜란드 거주자는 네덜란드 중앙은행 De Nederlandsche Bank (DNB)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공인된 은행을 통해서는 금액의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해외 송금이 가능하다. 50,000 유로 이하의 국제 송금은 별도의 양식 없이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한편, 모든 국제결제는 네덜란드 중앙은행의 balance-of-payments 부서에서 상시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연계되어 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또는 외국 기업간의 외환송금 중 50,000유로가 넘는 경우는 반드시 중앙 은행 DNB에 통보되어야 하며 송금 시 이용은행에 구비되어 있는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한편 건별 송금 시 일일이 신고해야 하는 수고를 덜기 위해 중앙은행은 월별, 분기별 또는 연별 총괄 보고도 허용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자금세탁을 방지코자 EU 위원회에서 제정한 “자금세탁 방지조항(Directive on the Prevention of the Use of the Financial System for the Purpose of Money-Laundering (91/308/EEC)”을 준수하고 있으며 2005~2006년 사이 개정된 최신 EU 규정 또한 2007년 6월15일부터 네덜란드 내에서 시행되고 있다. 동 규정은 15,000유로를 초과하는 모든 현금 송금에 적용된다.

2) 자산처분이익, 주식 배당이익, 투자금액 유입 및 상환

국내 거주 및 비거주자 모두 별도의 승인 없이 네덜란드 기업의 주식을 구입할 수 있다. 아울러 보유 주식의 판매에 따라 발생하는 자산 이윤의 본국 송환 또한 아무런 제약이 없다. 다만, 자산이나 보유주식의 매각은 반드시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야 하며 세무당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소득신고를 해야 한다.

주식 배당이익에 대한 송금도 제한이 없으나 다만 25% 소득세율의 적용을 받게 된다. 하지만 송금국가가 네덜란드와 조세협약을 체결한 경우, 일반적으로 25%보다는 적은 금액의 세금을 납부하면 되고 EU 가입국간의 배당이익은 종종 세금이 면제되고 있다.

해외 투자자본의 국내유입에 대한 규제도 없으며 다만 자국 내 비거주자에 대한 2년 이상의 장기 차관 중 총 금액이 450만 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네덜란드 중앙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투자자본에 대한 이익과 상환 또한 자유로우며 이 경우 소득세도 면제된다.

나. 자금 조달

1) 개관 (OVERVIEW)

네덜란드는 장단기 자금조달 금융이 매우 잘 발달되어 있다. 유럽 중앙은행(The European Central Bank - ECB)은 유럽 내 경기부양을 위해 2003년 재금융 이자율을 2%까지 하향조정하였으며 최근 인플레이션 방지를 위해 2005년 이후부터 점차 이자율을 높이고 있어 2008년 7월에 4.25%까지 상향한 상황이다.

네덜란드 내에서는 내외국 기업을 막론하고 자금조달에는 큰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특히 암스테르담 주식시장은 브뤼셀, 파리 등 주식시장과 함께 Euronext alliance를 이루고 있으며 공식 명칭 또한 Euronext Amsterdam으로 사용하고 있다.

2) 단기 자금 조달

네덜란드 금융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유니버설(universal) 은행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유니버설 은행은 상업은행(commercial)과 투자은행(investment or merchant)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는 은행으로 개인 및 기업금융은 물론 파이낸싱 및 보증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모두 제공한다. 네덜란드 3대 유니버설 은행은 ABN-AMRO, Internationale Nederlanden Group (ING), Rabobank Nederland이다.

ABN-AMRO와 ING는 유럽 내 은행들 중에서도 거대 은행군에 속하는데 Rabobank는 유럽 내 탑30 은행 중 하나이며 네덜란드 내 모기지(mortgage)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참고로 ABN-AMRO는 2008년 초 Bank of Scotland, Fortis Bank, Santander 은행의 컨소시엄에 인수되었다.

단기 금융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당좌대월(overdraft)”이며 매년 은행과 기업고객 간 당좌대월 한도를 조정한다. 이자율은 각 은행별 최저우대 금리와 연계되어 있거나 유럽 은행간 조달금리(Euribor) 혹은 유럽 중앙은행의 각 은행에 대한 자금대출 금리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단기 조달 금융을 위한 증권상품은 상품재고(inventories), 화물보관증(warehouse receipts), 보증(guarantees) 또는 모기지(mortgages)의 신탁도 양도도 포함되며 주요 고객에 포함되지 않는 특히 중소형 규모의 기업들은 우대 고객에 비해 높은 이자율과 낮은 신용한도를 받게 된다.

네덜란드의 은행 시스템은 국제적인 자금운영 및 무역금융 활동을 위한 고객들의 요구에 기민하게 응대할 수 있는 경쟁력이 있다. 암스테르담과 로테르담은 특히 1차 상품을 위한 유럽 내 교역과 물류의 중심지이다. 네덜란드 은행들은 이러한 산업적 특성대문에 단기 자금 제공에 탁월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ING 와 Fortis 은행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기업들은 단기 자금조달을 위해 단기 기업어음(CP)등을 자주 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금융상품들은 유로권역(euro-zone)내 금융시장에서 Euribor 금리에 연동되어 거래된다.

팩토링(Factoring)도 네덜란드 내에서 잘 구축되어 있는 단기 금융상품으로 ING Commercial Finance社가 업계를 리드하고 있다. 이 업체는 미국의 GE captial과 ING그룹의 조인트 벤처였던 NMB Heller社의 네덜란드 내 사업을 2005년 100% 인수함에 따라 탄생된 기업이다. ING Commercial Finance社외에는 Rabobank Nederland社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De Lage Landen Factors社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3) 중장기 자금 조달

중장기 자금은 네덜란드 내 주요 유니버설 은행과 유로권역 내 여타은행들을 통해 어렵지 않게 조달할 수 있다. 모기지 은행과 모든 상업은행들은 산업 및 상업용 건물 건축을 위한 장기 모지론(ortgage loans)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런 상품들의 이자율은 초기에 확정되지만 종종 일정 기간별로 이자율 조정이 가능하여 자금이용기업들의 자금운용에 편의성을 도모해 주고 있다.

은행들은 다양한 담보에 의해 보장되는 장기 신용상품도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 서비스들은 고객과의 관계, 고객의 신용상황을 고려한 수수료가 반영된 이자율을 지불해야 한다.

중장기 자금의 주요 공급원은 NIBC로 동 기관은 2차 대전 이후 국가재건을 위해 설립된 공공은행으로 2007년 8월 아이슬란드계 은행인 Kaupthing에 매각되었으며 대형기업과 공공기관을 주요 고객으로 하고 있다. NIBC는 시중 금리로 자금을 대출하며 일반적으로 전체 투자금액의 50% 정도를 대출해 준다. 한편 NIBC로부터 2004년에 분리된 민간 회사인 Alpinvest Partners社도 네덜란드 내 주요 벤처캐피탈 중 하나이다.

네덜란드 경제부(Ministry of Economic Affairs), 은행, 보험사, 기업연금펀드와의 조인트 벤처의 한 축으로서 NIBC는 대기업들이 위험은 높지만 전망이 밝은 합병, 인수, 새로운 프로젝트의 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대상 기업의 자금조달 필요성을 확실히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기업 자체도 건설하고 지속적인 이익창출 가능성이 있으며 유능한 경영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아울러 동 기업이 NIBC외에 다른 곳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불가능 해야 한다.

네덜란드 정부는 신용대출을 위한 담보가 부족한 중소형 기업에 대해서도 대출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Besluit Borgstelling MKB-kredieten—BBMKB) 신규창업 및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에 대해 최대 6년간 100만 유로까지 대출에 대한 보증을 제공한다. 네덜란드 정부는 2006년에 동 프로그램을 위한 예산을 2011년까지 7억 6,500만 유로로 증액할 것을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이와 관련된 유사 프로그램으로는 2006년에 시작된 Uitdagingskrediet이 있으며 동 서비스는 자금조달시장 접근이 어렵고 다소 실패 위험이 높은 기술 및 상품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기업들에게 무이자로 100만 유로까지의 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참고로 동 서비스는 2008년 “Innovation Credit”으로 명칭이 변경될 예정이며 예산도 2,500만 유로로 확대될 계획이다. 이 프로그램의 수혜를 위해서는 종업원이 100명을 넘지 않는 소기업이어야 하며 농업이나 금융서비스 분야의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자율

(단위: %, 기간평균)

	2003	2004	2005	2006	2007
One-month	2.35	2.08	2.14	2.94	4.08
Three-month	2.33	2.11	2.18	3.08	4.28
Six-month	2.30	2.15	2.23	3.23	4.35
Twelve-month	2.33	2.27	2.33	3.44	4.45
Three-month loans to local government	2.29	2.07	2.14	3.04	4.24
Three-month euro-dollar deposits	1.13	1.55	3.50	5.13	5.24
Three-month euro-yen deposits	-0.05	-0.08	-0.02	0.24	0.73
Euro area 10-year	4.16	4.14	3.44	3.86	4.33
United States 10-year	3.99	4.26	4.29	4.79	4.62
Japan 10-year	0.99	1.49	1.37	1.74	1.67

자료: 네덜란드 중앙은행 (2008년 9월 기준 최신자료)

V. 기타 유용한 정보

1. 시장 특성

가. 소비자 특성

1) 근검절약의 실용적 소비패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물에 젖은 휴지를 말리는 곳이 나타나면 그 곳이 네덜란드이다" 라는 농담이 있을 정도로 네덜란드 국민은 대개 검소하다. 이 같은 국민성을 반영하여, 제품 구매 시 브랜드보다는 실용성에 바탕을 둔 저렴하고도 내구성이 있는 제품을 선호하는 편이다.

2) Very Slow Adopter

네덜란드 인들은 기술이나 제품 트렌드에 다소 둔감한 편으로 필요치 않을 경우 사용 중인 제품을 단지 유행이나 새로운 기능 때문에 바꾸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사용 중인 핸드폰이 다소 구형이고 새로운 기능을 탑재한 제품이 출시되었다 해서 핸드폰을 바꾸는 경우는 드물며 필요 시 각 통신사에서 회선 가입과 함께 제공하는 Bundle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 필요할 때는 지갑을 연다

네덜란드 가정에는 통상 1인당 2대의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다. 한대는 출퇴근 용으로 매우 저렴하거나 낡을 때까지 낡아서 분실이나 고장이 나더라도 금전적 손실이 적은 자전거이고 하나는 주말 가족 나들이나 레저용으로 사용하는 고가 자전거이다. 출퇴근용 자전거는 대개 중고일 경우 50~100유로, 새 자전거일 경우 100~300유로를 지불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주말용 자전거의 경우 GAZELLE, GIANT, BATABUS 등 현지 인기 브랜드 자전거가 통상 500~2000유로를 호가하는 고가가 일반적이다. 또한 운동용 사이클의 경우 최소 700~3000유로 선까지 다양한 제품이 팔리고 있다.

평소 자린고비로 유명한 네덜란드 인들도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필요할 경우에는 자신의 월평균 급여의 상당부분을 선뜻 할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후영향과 스포츠를 좋아하는 국민성으로 인해 TV시청이 많은데 이를 위해서 고가의 LCD TV 구매도 늘고 있는 등 네덜란드 소비자들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고가의 제품도 마다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4) 다취향 소비패턴

네덜란드는 전국민의 1/5가 네덜란드에서 출생하지 않은 비자국민이며 1/5중에서도 네덜란드 국적이 없는 순수 외국인만 70만이 넘는 다인종 국가다. 따라서 각각 선호하는 제품이 다양할 수 밖에 없으며 이러다 보니 특정 트렌드가 시장을 주도하는 경우는 의류 등 트렌디 소비재 외에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5) 실버(Silver)층 구매력 탄탄

네덜란드인들은 통상 65세 전후에 정년을 맞게 되며 이후에는 정부 연금과 개인연금 그 외 투자소득으로 생활하게 된다. 20세 전후에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일반적인 네덜란드의 경우 노년층은 부부단위로 생활하거나 독거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노인들은 필요한 부분 이상의 가처분 소득을 확보하고 있게 된다. 의료는 정부에서 무상으로 공급하게 되므로 노년층은 의류 등 주로 생활소비재나 가전제품 등을 구입하는 등 소득을 사용하게 되므로 여타 소비자층보다 상대적으로 풍족한 구매력을 보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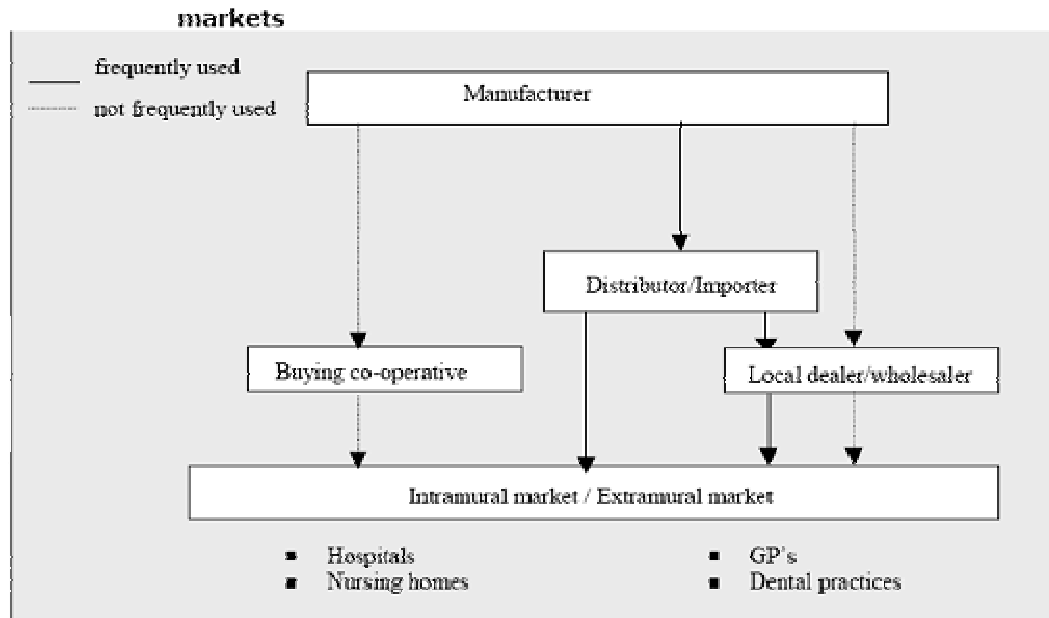
나. 경제특성

- 유럽의 Little Giant
 - 협소한 국토면적: EU 15 개국 중 12 위, 한반도의 1/5 수준
 - 무역대국 (2007 년 기준 수출 4,022 억 유로, 수입 3,587 억 유로)
 - 초대형 다국적기업 다수 소재: 세계 500 대 기업 중 16 개 기업보유 (유럽 500 대 기업 중 33 개 보유)
- 유럽의 Gate
 - 유럽 수입물량의 60%, 수출물량의 30% 취급
 - 세계 최대규모의 로테르담항 보유(유럽 물동량의 40% 점유)
 - 유럽시장의 Test Market: 시장자유화로 국내외 기업 간 치열한 경쟁
- 유럽의 Garden
 - 연간 화훼류 수출 45 억 달러(세계시장의 60% 공급)
 - 첨단기술개발로 화훼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성공
 - 평평한 국토보유로 국토개발 활용률 100%에 육박
- 유럽의 경제발전 Model
 - Polder Model: 勞-使-政의 협력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사례
 - 독일, 프랑스 등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그리고 척박한 국토조건에도 불구, 물류, 화훼, 금융 등 틈새산업을 육성, 경제성장지속

다. 유통채널

네덜란드 내에서 유통채널의 경우 크게 제조기업이 최종수요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방식과 제조기업-도매상-최종수요자에게 판매되는 간접판매방식으로 크게 나뉘어지고 있다.

- 직접 판매방식은 제조기업이 최종수요자에게 대규모로 공급할 때 이루어지는 방식임.



- 간접 판매방식은 현재 네덜란드 소비재 유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방식임. 수입상과 디스트리뷰터를 경유한 판매방식으로서 자금력이나 글로벌 네트워크가 취약한 대부분의 제 3 국 제조업체가 취하는 방식이기도 함.
- 네덜란드 내 디스트리뷰터를 통해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전시회 또는 상담회 등에 참가하여 네트워크를 꾸준히 발굴, 유지해 가는 것이 추천할 수 있는 방안임.

라. 한국상품 인지도 및 유망상품

일반적으로 네덜란드 바이어들은 한국산 제품이 가격 대비 품질 수준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단 한국제품의 경우 전반적으로 아시아 국가들의 제품과 비교해서는 상대적으로는 뛰어난 품질을 보유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일본산 및 유럽산에 비해 인지도가 낮은 게 흠이라고 평가함에 따라 제값을 받기 위한 우리 기업들의 노력이 요구된다.

네덜란드에서 호평받고 있는 제품들은 삼성, LG등이 주도하고 있는 가전 제품군과 SUV를 중심으로 하는 승용차, 건설중장비 등이 있다. 최근 SET TOP박스 등 IT기술력을 앞세운 제품들이 네덜란드에 공급되고 있고 일부 제품들은 KPN, TELE 2 등 현지 유력 케이블, 인터넷 공급업체에 대량으로 납품하고 있기도 하다.

2. 물가정보

가. 암스테르담(네덜란드) 기초 통계자료

	2003	2004	2005	2006	2007
명목 1 인당 GDP(USD)	33,251	33,906	35,067	36,696	38,763
명목 물가 상승률(%)	2.1	1.2	1.7	1.2	1.6
명목 임금 상승률(%)	2.6	1.5	0.8	1.9	1.8
미화 대비 연평균 환율	1.13	1.12	1.24	1.26	1.37

나. 암스테르담(네덜란드) 물가 정보(1 USD = 0.66662 EUR)

번호	항 목	가격(USD)			
1. 식재료			6.1	사과 1kg	2.99
1.1	쌀 1kg	2.60	6.2	오렌지 1kg	2.25
1.2	밀가루 1kg	3.08	6.3	레몬 1kg	3.87
1.3	백설탕 1kg	2.51	6.4	바나나 1kg	2.54
1.4	스파게티 면(엔젤헤어) 1kg	2.46	7. 채소		
1.5	계란 12 개	2.46	7.1	양배추 1kg	2.69
1.6	햄 1kg	20.85	7.2	양상추 1kg	1.19
1.7	베이컨 1kg	22.35	7.3	당근 1kg	5.07
2. 육류			7.4	양송이 버섯 1kg	9.54
2.1	쇠고기 등심 1kg	10.49	7.5	감자 2kg	4.95
2.2	쇠고기 안심 1kg	21.72	7.6	양파 1kg	2.67
2.3	돼지고기 목살 1kg	8.24	7.7	토마토 1kg	4.88
2.4	돼지고기 등심 1kg	14.99	8. 과자 및 당류식품		
2.5	닭고기 가슴살 1kg	11.24	8.1	스낵과자 130g	1.80
3. 어패류			8.2	초콜릿 100g	1.13
3.1	냉동새우(중간 크기) 1kg	29.97	8.3	씨리얼(콘플레이크) 375g	2.46
3.2	대합조개 1kg	7.19	9. 음료		
3.3	연어(생) 1kg	16.14	9.1	탄산음료 250ml 캔 6 팩	1.94
3.4	냉동참치 1kg	18.20	9.2	생수 1L	0.99
4. 낙농품			9.3	오렌지주스(100%) 1L	2.18
4.1	우유 500ml	1.35	9.4	아메리카노 커피(전문점)	3.60
4.2	요거트 150g	0.98	9.5	카페라떼 커피(전문점)	4.56
4.3	치즈(슬라이스) 500g	6.00	9.6	인스턴트 커피 125g	4.17
4.4	버터 500g	3.84	9.7	Ground 커피 500g	5.84
4.5	마가린 500g	1.49	9.8	홍차 티백 25bags	1.31
4.6	바닐라 아이스크림 473ml	1.94	9.9	코코아 250g	2.51
5. 유지			10. 주류		
5.1	식용유 1L	2.39	10.1	맥주 355ml 캔 6 팩	6.29
5.2	올리브오일 1L	8.69	10.2	스카치 위스키(750ml) 1 병	49.49
6. 과일			10.3	와인 750ml	138.01
			11. 담배		

11.1	담배 1 갑	7.65	16.8	제왕절개수술	무료
12. 패스트푸드			17. 자동차 및 차량유지		
12.1	햄버거 1 개	4.50	17.1	경승용차 900~1,299cc	14,250.95
12.2	치킨 런치세트 1 개	10.43	17.2	소형승용차 1,300~1,799cc	31,502.10
12.3	치즈피자 라지 1 판	24.74	17.3	중형승용차 1,800~2,499cc	54,003.60
13. 잡화			17.4	대형승용차 2,500~3,500cc	85,505.70
13.1	치약 150g 1 개	7.43	17.5	초대형 3,500cc 이상	150,010.00
13.2	샴푸 400ml	14.93	17.6	무연휘발유 1L	2.25
13.3	칫솔 1 개	5.99	17.7	LPG(단위부피 당)	1.01
13.4	화장비누 1 개	6.44	17.8	경유 1L	1.85
13.5	면도기 1 개	35.25	17.9	자동차 등록비(2,000cc 신차)	무료
13.6	전기 면도기	61.50	17.10	자동차보험료 의무(2,000cc 신차)	2,025.14
13.7	건전지 AA size 4 개 1 세트	7.43	17.11	자동차보험료 임의(2,000cc 신차)	2,025.14
13.8	미용용 화장지 1 통	8.93	17.12	엔진 오일 1 회 교체 비용	75.01
13.9	화장실 롤 티슈 12 롤	4.41	18. 교통비		
13.10	세탁용 세제 3L	8.78	18.1	도심 1 시간 주차료	6.00
13.11	섬유 유연제 1L	6.60	18.2	지하철 기본요금(1 구간)	2.40
13.12	주방용 세제 750ml	5.03	18.3	시내버스 기본요금	2.40
13.13	살충제(스프레이 식) 330g	2.09	18.4	택시 기본요금	6.38
13.14	전구 60W 2 개(백열등)	6.00	18.5	택시 1km 당 추가요금	2.25
14. 의류 및 신발			18.6	철도이용료(100km)	26.10
14.1	남자정장	1,318.59	19. 통신이용료		
14.2	여자정장	5,250.35	19.1	전화 개통비 1 회선	89.17
14.3	여성핸드백	1,350.09	19.2	전화 사용료 월 기본요금	30.24
14.4	아동복	44.25	19.3	전화요금(시내) 3 분	2.18
14.5	청바지	134.96	19.4	국제전화 3 분	4.50
14.6	남자코트	1,413.09	19.5	휴대전화 개통비	무료
14.7	여자코트	1,162.58	19.6	휴대전화 사용료 월 표준 1 분	0.30
14.8	티셔츠	148.51	19.7	인터넷 가설비(최소 DSL)	138.70
14.9	신사화	450.03	19.8	인터넷 월 사용료(최소 DSL)	73.31
14.10	숙녀화	375.03	19.9	국내우편 일반편지 1 통	0.99
14.11	드라이클리닝(정장 한 벌)	25.28	19.10	국제우편 일반편지 1 통 (현지~서울)	1.50
15. 가구			19.11	특급우편 1kg 이하(현지~서울)	198.15
15.1	소파 3 인용(패브릭)	1,048.57	20. 주택환경 및 공공요금		
15.2	침대 퀸 사이즈 매트리스	373.52	20.1	아파트 월 임차비용 150 m ²	3,750.25
16. 의료비			20.2	단독주택 월 임차비용 150 m ²	4,200.28
16.1	의료보험료 4 인 가족 1 년	5,490.37	20.3	중개수수료 월 임차료의 % (단독주택)	100%
16.2	병원진료비(의료보험 X)	57.00	20.4	임차보증금 월 임차료의 % (단독주택)	150%
16.3	병원진료비(의료보험 O)	무료	20.5	가정용 전기요금 kWh	198.15
16.4	진통제 10 정	4.11	20.6	가정용 가스요금 m ³	300.02
16.5	해열제 100 정	14.85			
16.6	흉부 x-ray 비용 1 회	187.51			
16.7	치과 방문 1 회(스켈링 1 회)	67.50			

20.7	가정용 수도요금 m ³	375.03
20.8	케이블 TV 1 달(기본)	22.50
21. 가전제품		
21.1	LCD TV 40 인치	1,499.65
21.2	DVD Player 범용형	134.41
21.3	냉장고 600 리터급	1,048.42
21.4	세탁기 10kg(드럼형)	899.91
21.5	전자렌지 20 리터급	97.06
21.6	에어컨	898.56
21.7	토스터기 1 개	88.51
21.8	식기세척기 24 인치(폭)	672.04
21.9	데스크탑 본체	299.94
21.10	노트북	1,573.60
21.11	컴퓨터 프린터기	148.51
22. 문화서비스 및 도서		
22.1	복사용지 1 권 250 매 (A4 또는 Letter Size)	3.72
22.2	개봉극장 입장료 1 회(성인)	13.50
22.3	DVD 타이틀 1 개(신작 기준)	45.00
22.4	도서 1 권(신작 소설)	30.00
22.5	공연 best seat (유지컬, 대형극장 기준)	105.01
22.6	CD 앨범 1 장 (대중음악 신작 앨범 기준)	29.99
22.7	해당국 유력 일간 신문 1년 구독료	675.05
23. 교육		
23.1	유치원 수업료 1 년(사립)	9,000.60
23.2	초등학교 수업료 1 년(사립)	18,001.20
23.3	중학교 수업료 1 년(사립)	30,002.00
23.4	고등학교 수업료 1 년(사립)	37,502.50
23.5	국공립 대학교	2,307.15
23.6	사립 대학교	2,307.15
23.7	전문대학	2,307.15
23.8	외국인 학교 초등 수업료 1 년	23,701.58
23.9	외국인 학교 중등 수업료 1 년	27,376.83
23.10	외국인 학교 고등 수업료 1 년	29,626.98
24. 외식 및 숙박		
24.1	패밀리레스토랑 4 인	150.01
24.2	특급 호텔(5성급) 1 박	525.04
24.3	중급 호텔(3성급) 1 박	225.02
24.4	특급 호텔(5성급) 조식	44.25
24.5	중급 호텔(3성급) 조식	20.25
25. 스포츠		

25.1	골프장 그린피(퍼블릭)	67.50
25.2	골프공 1 다스(12 개)	60.00
25.3	피트니스 클럽 1 년 이용료	1,260.08
26. 임금		
26.1	사무직 일반 초임(대졸)	3,300.22
26.2	사무직 비서 초임(대졸)	2,700.18
26.3	생산직 일반 초임(학력 무관)	2,550.17
26.4	가정부 시간당 임금(주중)	15.00
26.5	베이비시터 시간당 임금(주중)	10.50
27. 이미용 서비스		
27.1	여성 헤어컷 1 회	52.50
27.2	남성 헤어컷 1 회	31.50
28. 화장품		
28.1	바디로션	34.26
28.2	영양크림	122.74
28.3	스킨로션	37.50
28.4	밀크로션	68.25
29. 관공서 요금		
29.1	여권 발급 비용	72.53
29.2	신규자동차운전면허증 발급 비용	69.75
30. 근무환경		
30.1	주당 법정근무시간	38 시간
30.2	출산휴가일수	16 주
30.3	연간 국경일수	10 일
30.4	토요휴무제	시행

* 비교

1.5	10 개
4.2	1L
9.8	20bags
10.1	330 ml
19.5	2 년 이상 가입 시
20.5	월
20.6	월
20.7	년
21.4	7kg
23.5	EU 회원국, 30 세 이하
23.6	EU 회원국, 30 세 이하
23.7	EU 회원국, 30 세 이하
28.1	250ml
28.2	50ml

3. 바이어 발굴

가. 오프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네덜란드에서 오프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방법으로는 각 산업별 전문 협회나 기관, 그 외 전문 잡지 등 매체 그리고 전시회 등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으나 실제로는 업체 리스트를 입수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특히 협회나 기관에서는 DB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들의 홈페이지에도 회원사 연락처나 제품, 담당자 명을 기재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전시회 일 경우 주최측에 업체 리스트를 요구하면, 유료 디렉터리로 판매하거나 참가를 희망한다고 밝힐 경우에 한해 일부 무상으로 주는 수도 있다.

오히려 산업별 전문잡지에 게재되는 업체광고나 소개를 참고할 경우, 종종 적격 바이어를 발굴할 수 있는데 문제는 대부분의 네덜란드 잡지들은 화란어로 제작되므로 화란어를 모를 경우 인쇄매체를 이용한 발굴도 역시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현지에서 가장 유력한 오프라인 바이어 발굴 방법은 전시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로테르담, 암스테르담, 유트레히트, 마스트리히트에서 열리는 전시회들을 잘 활용할 경우, 전시업체 또는 현지 부대행사 참석 업체들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 주요 네덜란드 전시장
 - Rai 전시장: www.rai.nl
 - Utrecht jaarbeurs 전시장: www.jaarbeursutrecht.com
 - Rotterdam Ahoy 전시장: www.ahoy.nl

나. 온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무역관 유료조사대행 요청이 여의치 못하는 기업들은 네덜란드 바이어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네덜란드 바이어 정보 관련 가장 유명한 인터넷 사이트는 <http://www.abcdirect.nl/e1/>으로 약 12만 개사의 기업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동 사이트는 네덜란드 기업 디렉터리 중 유일하게 영어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품목별 기업검색이 가능하다. 아울러 기업의 간단한 정보(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등)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동 정보를 통해 바이어들과 접촉할 수 있다. 이 밖에 다른 온라인 업체 검색 사이트는 아래와 같다.

- www.kcompass.nl
- www.hoovers.com
- www.europages.nl
- www.kellysearch.nl
- www.kvk.nl

4. 상관습 및 거래시 유의사항

가. 비즈니스 관행

1) 대금결제는 신용거래 방식 선호

네덜란드의 경우 점차적으로 대금결제방식에 있어 기존 L/C거래에서 신용거래로 변화되고 있다.

보편적으로 네덜란드 바이어들은 30일에서 90일정도의 외상거래를 선호하고 있으며 이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TT 방법을 택하는 쪽으로 계약이 추진되고 있다. 신용장(L/C) 거래의

경우 은행에 현금을 예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수수료도 많이 들기 때문에 바이어들이 초기 계약의 경우 상당수가 외상거래 또는 TT거래를 요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한편, TT거래나 유산스(USANCE)거래 시는 수출자나 수입자 중 어느 일방이 전적인 피해를 감수해야 하므로 초기 거래 시 선뜻 이런 결제조건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수 있다.

KOTRA에서는 초기거래의 양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용카드로 무역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KOPS” 시스템**을 개발 운영 중이다. KOPS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기존 신용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수출자는 수출보험, 바이어는 자동적으로 한 달간의 USANCE 및 지급보증보험에 따른 지급대금 구상권을 갖게 되어 초기 거래 시 매우 유용하게 활용 될 수 있다.

KOPS 시스템은 http://etrade.buykorea.org/KOPS/kops_kor.jsp?pgNo=2001 사이트에서 자세한 이용안내를 받을 수 있다.

2) 독점 에이전트 요구

네덜란드는 지리적으로 유럽의 중심과 전통적인 상인정신의 기질로 인해 항상 비즈니스 활동무대가 네덜란드에 한정하지 않고 유럽 전역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네덜란드 바이어들의 경우 상담 시 유럽전역 또는 베네룩스지역에 대한 독점 에이전트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무조건 거부하기 보다는 일단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3) 네덜란드를 이용한 아프리카, 중동인들의 무역사기 주의

나이지리아를 비롯한 아프리카인들의 무역사기는 이미 알려진 바 오래이다. 이들 사기단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사기를 치는가 하면 이제는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선진국을 이용하고 있으며 무역 및 금융부분에서 개방화된 네덜란드가 대표적인 활용처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기단의 수법은 대개 비슷하다. 자국의 은행이 한국의 은행 또는 서방은행과 코레스 계약이 되어 있지 않아 현금을 네덜란드에 있는 자금 보관회사 또는 자금중개회사 (Security Company 라고 함)에 맡겨 놓을 테니 직접 찾아가거나 중개회사에 송금을 요청하라고 한다. 이 과정에서 사기단이 현금 수송비용을 요구하거나 중개 회사에서 자금 송금비용을 요구한다.

이러한 사기단들의 경우 대부분 허위주소와 06(국가코드 포함 시 31-6-고유번호)으로 시작 되는 핸드폰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인데, 상기와 같은 유형의 제의가 왔을 경우에는 암스테르담 무역관을 통해 확인절차를 거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나. 비즈니스 상담에서 성공하기

1) 상담 전 준비사항

네덜란드 상인은 협상에 대단히 능하며, 사소한 일에도 냉정한 편이다. 또한 교육수준과 사회적 지위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이들은 거래자간의 신뢰도를 매우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신규판로 개척이 매우 힘들다. 그러나, 한번 거래를 맺으면 쉽게 거래선을 바꾸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우선적으로 제품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보유해야

네덜란드 바이어들은 비즈니스 상담 시 사전에 체계적으로 제품에 대해 조사하고 이를 숙지하기 때문에 상담 시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내고 있다.

아울러 상대방의 경우도 해당제품에 대해 확실한 정보와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 다양한 질문과 요청이 이루어 지기 때문에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제품에 대한 전문적이고도 철저한 지식이 요구된다.

□ 첫 접촉은 우편을 이용

네덜란드 바이어들은 비즈니스 상담 시 우편, 팩스, 이메일, 전화 등 모든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우편을 통한 정보를 선호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 바이어정보에 대한 공개가 여타 국가보다 비교적 투명하기 때문에 세계주요국의 수출상들로부터 수많은 거래제의 쏟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바이어들은 팩스나 이메일보다는 우편을 통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선호하고 있다.

따라서 우편을 통해 제품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첫 번째 우편에는 제품 카탈로그, 회사소개서, 제품설명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무역관을 통해 바이어리스트를 입수하셨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암스테르담 무역관에 제공하는 바이어리스트 경우, 개별적인 전화접촉을 통하여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수입상들만을 엄선하고는 있으나 이들 바이어 역시 당장의 구매의사보다는 제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우선 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우편을 통한 세심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거래성사를 위한 지름길로 인식된다.

□ 영문 카탈로그는 필수

대부분의 해외마케팅이 그러하듯 제품에 대한 영문 카탈로그는 네덜란드에서 더욱 필수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네덜란드 국민의 약 80%가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기 때문에 별도의 네덜란드어로 된 자료가 필수적이지 않기 때문에 영문자료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우리기업들의 경우가 꼭 국문 카탈로그를 전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바이어들은 쉽게 관심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영문 카탈로그 제작은 필수적이다.

또한 네덜란드 기업 및 제품 카탈로그에 대해 기업의 얼굴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카탈로그 제작 시 가능하다면 고급스럽게 제작하는 것이 신뢰를 갖게 하는 데 유리하며 내용 중 오, 탈자 등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 기업소개서(Company Profile)도 중요

네덜란드 바이어들은 납기준수와 안정적인 제품 공급을 매우 중요시하기 때문에 수출업체의 신뢰도는 공급선을 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기업소개서는 바로 회사의 신뢰도를 높이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제품설명서와 함께 필수적인 첨부물이다.

기업소개서에는 일반적 사항 외에도 공장이나, 사무실, 연구시설 등의 사진이 들어가면 더 큰 신뢰감을 줄 수 있으며, 발명특허이나 신제품 생산능력 등 자기 회사 고유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만일 회사소개서 제작이 어렵다면, 회사 역사, 직원 수 등 기초정보만이라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제품 카탈로그와 같이 제작되어도 무방하다.

□ 첫 접촉 시 Price List 송부는 금물

네덜란드 바이어들과 접촉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첫 번째 접촉 시 가격리스트를 보내는 것은 금물이라는 것이다. 잘 모르는 공급업체가 대뜸 가격리스트를 보내왔을 경우, 대부분의 네덜란드 바이어들은 모든 바이어들에게 배포하는 홍보물쯤으로 여기며, 실거래 가격은 그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처음부터 가격리스트를 배포한 업체들은 네덜란드 바이어의 혹독한 가격 후려치기에 당혹해 하는 경우가 많다.

샘플 역시 첫 번째 메일링에 동송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 볼펜, 열쇠고리 등 저가품이 아니라면 좀 더 상담이 진행된 다음에 샘플을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 통역원을 활용도 고려

네덜란드인들의 영어실력은 비영어권 지역에서 가장 뛰어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따라서 협상을 자신들이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어에 자신이 없을 경우에는 통역을 활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영어-화란어-한국어가 능통한 통역원의 경우 1일 기준 (오전 9시-오후 5시) 약 250유로 수준이며 무역관 홈페이지에 언급되어 있는 여행사를 통해 추천 받을 수 있다.

2) 상담 시 비즈니스 매너 및 유의사항

□ 방문은 항상 사전약속을 통해

바이어들과 접촉이 잘 이루어져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면 바이어를 방문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네덜란드 바이어가 우리제품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보이며 한국을 방문 한다면 가장 좋으나 일반적으로 수출자가 방문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방문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면 항상 바이어와의 사전약속이 필수적이다. 네덜란드인들은 유럽 내에서도 가장 실용적이고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약속을 하지 않고 방문하게 되면 좀처럼 만나주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만나게 되더라도 부정적 이미지를 갖게 되기 때문에 거래가 이루어 지기가 쉽지 않다.

□ 선물 및 복장도 중요

네덜란드인들 역시 비즈니스에 있어 선물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방문할 기회가 생기면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선물의 경우 뇌물성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최대한 가벼운 것으로 해야 한다. 아울러 한국을 나타낼 수 있는 전통적인 선물이라면 오랫동안 이미지를 각인 시킬 수 있다.

한국에서 선물을 준비해갈 경우 전통 차잔, 자개 보석함 등이 좋으며 한국에서 미처 준비를 못해 현지에서 구입할 경우에는 와인이나 초콜릿 등이 효과적인 인상을 줄 수 있는 선물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상담 중 선물을 준비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한국으로 귀국해서 감사편지와 함께 선물을 송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상담 시 복장 역시 신경을 써야 한다. 복장의 경우 정장이 가장 바람직하나 정장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최대한 단정한 복장을 갖추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의를 차릴 수 있다.

□ 적절한 대화 주제 선택

네덜란드인은 사업 상의 성공을 즐기며, 보통 사업과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대화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 외에 편안한 대화 주제로는 축구와 네덜란드 문화, 가정 생활 등을 들 수 있다. 종교와 관련된 주제는 다소 심각해질 수가 있으므로 가벼운 대화 시에는 삼가는 것이 좋다.

□ 가격경쟁력이 무엇보다도 우선

네덜란드 시장은 유럽의 테스트 마켓이다. 소비자들은 검소할 뿐 아니라 상인기질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가격조건을 거래 시 가장 고려되는 요소로 여기고 있다 따라서 가격 경쟁력은 네덜란드 시장에서의 성공의 제 1순위로 여겨지고 있다.

□ 문화적 금기 사항

네덜란드인들과 처음 만났을 때 이름을 불러도 좋다고 하지 않는 한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이 좋다.

네덜란드인은 가족을 중시하기 때문에 일찍 귀가하는 편이므로 저녁식사를 겸한 상담은 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좋다.

상대의 배우자나 이성친구, 또한 자녀에 관한 이야기는 상대방이 말을 하지 않는 한 먼저 꺼내는 것은 실례이다. 또한 여성에게 결혼 여부를 묻는 것 또한 실례이니 참고해야 한다.

5. 무역, 투자진출시 애로사항

네덜란드는 유럽 내 물류교역을 근간으로 경제를 끌어오고 있는 국가로 무역거래에 있어서는 가장 효율적이고 규제가 적은 통관제도와 무역관련 규정을 운영 중이다.

따라서, 특별한 비관세 장벽이나 차별정책은 없으며 투자 또한 어떤 외국기업이더라도 네덜란드 내에 법인을 설립할 경우 내국기업과 동일하게 간주하는 등, 역시 별다른 제제나 특별 조항이 없어 유럽 내에서도 가장 선호되는 지역 중 하나다.

6. 진출 성공, 실패 사례

가. 로알소브린 성공 사례

라미네이터 및 라미네이팅 필름 등을 제조 수출하는 (주)로알소브린(사장: 임타관)이 KOTRA 공동물류센터 이용에 힘입어 유럽시장 확대를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월 14일 KOTRA 암스테르담 무역관에 따르면 지난 2005년 5월부터 로테르담 공동물류센터를 이용하기 시작한 (주)로알소브린은 소량주문 수주 및 납기단축이 가능해지면서 바이어의 고객만족도가 높아져 수출증대를 시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5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유럽 바이어에 대한 수출이 미미했는데 공동물류센터 이용으로 2006년에 19만 2,000유로 그리고 2007년에는 15만 9,000유로를 수출했다”고 (주)로알소브린의 최인범부장은 흐뭇한 표정으로 말했다.

KOTRA 암스테르담 무역관은 (주)로알소브린이 독일법인(창고포함)을 폐쇄하고 네덜란드로 이전하는 단계에서부터 밀착 지원해 왔는데 공동물류센터 이용지원 외에도 현지 바이어 발굴 서비스, 네덜란드 법인 설립지원 서비스, 마이오피스 제공 등 유럽시장 확대를 위한 제반 마케팅지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에서 법인(창고 포함)을 운영하다 문화적 문제 등 어려움을 겪고 네덜란드에서 사업을 계속하게 됐는데, KOTRA의 지원이 없었으면 이렇게 수출이 늘어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로알소브린 관계자는 밝히고 있다. “처음에는 1인 법인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법인에는 4명(본사파견 2명, 현지 2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공동 물류 센터에 힘입어 수출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라고 이준호 네덜란드 법인장은 밝혔다.

또한, 최근 (주)로알소브린에게 희소식이 생겼다. 세계적인 사무용품 체인업체인 Office Depot의 유럽본부와 100만 유로 상당의 수출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주)로알소브린이 과거에는 엄두도 못 냈던 Office Depot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다. “KOTRA가 운영하고 있는 공동물류센터에 우리 제품이 이미 있고 주문 후 3일 이내에 유럽 전역에 배송될 수 있다고 하니 구매책임자의 태도가 달라지더군요. 아마 재고가 유럽 땅에 있다는 것이 바이어에게 큰 신뢰를 얻은 것 같습니다.”라고 최부장은 말했다.

중소업체인 (주)로알소브린이 이렇게 세계적인 대형 체인점 (Mass Merchandiser)에 납품하게 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앞으로 자체적으로 물류창고를 설립 운영을 검토하고 있다. 공동물류센터를 통해 유럽수출이 배가되어 판매법인도 설립하고, 나아가 자가물류창고도 갖게 되는 유럽시장진출 패턴은 (주)파캔오피씨, (주)디어포스 등 몇몇 국내 업체에서도 볼 수 있다. “(주)로알소브린처럼 사업이 번창하여 자체물류창고를 운영할 정도로 회사가 커진 것을 보면 기쁩니다”라고 KOTRA 무역관 관계자는 밝히고 있다.

KOTRA 암스테르담 무역관은 2004년 4월부터 로테르담 항에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유럽수출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물류센터를 설립 운영하여 왔고, 현재는 25개 업체가 이용하고 있으며, 2006년 공동물류센터를 통해 유럽에 수출된 금액이 1,500만 달러를 돌파하였다. 최근에는 법인/지사 설립지원 업무를 강화하는 등 국내 중소기업의 유럽시장 진출을 더욱 심도 있게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 에이팩 성공 사례

통상 유럽 바이어들은 자신들이 재고 부담을 갖지 않으려고 공급자(수출업체)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국내 중소기업이 유럽에 수출을 시작하거나 물량을 증가시키려고 할 때 부딪히는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직수출에 따른 높은 물류비와 신속한 딜리버리 시스템의 부재이다.

(주)에이팩은 컴퓨터 부품 (CPU Cooling Fan)을 제조 수출하는 업체인데, 자사 제품의 품질과 가격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었으나 제품 특성 상 거래처는 소량, 신속 납품을 요구하였다. 나아가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해 상담하는 바이어마다 유럽에 물류센터 구축 여부를 문의하였고 아직도 구축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 먼저 물류센터를 구축한 뒤 상담을 계속 하자고 하여 상담에 어려움을 겪곤 하였다.

(주)에이팩은 이러한 거래처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항공운송을 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운송비가 해상 운송에 비해 매우 높게 나와 결국 단가가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단가에 매우 민감한 자사 제품 특성상 항공운송을 고집할 수 없었다.

그렇다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해상운송을 이용하자니 바이어의 신속납품 요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었다. (주)에이팩은 유럽시장 진출이 막혔다시피 했고 유럽 수출 담당자인 최과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랫동안 전전긍긍하였다.

그러던 중 최과장은 KOTRA 암스테르담 무역관에서 운영하는 로테르담 공동물류센터에 대해 듣게 되었고, 그는 로테르담 공동물류센터야 말로 자신의 회사를 위해 꼭 필요한 시스템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자신이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며 해결하고자 했던 유럽수출 방법이 바로 KOTRA 암스테르담 무역관에 의해 이미 2년 전부터 지원되고 있음을 알고 미리 알지 못한 것에 안타까워했다. 그는 곧 (주)에이팩 내 임직원들에게 유럽시장을 진출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로테르담 공동물류센터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적극 주장하였다.

드디어 2006년 10월 19일 (주)에이팩의 제품이 로테르담 공동물류센터에 입고하게 되었다. 이전까지만 해도 물류센터의 선 구축을 요구하며 주문을 주저하던 바이어들이 로테르담 공동물류센터에 제품이 입고될 것이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입고 예정 일자에 맞춰 주문을 채도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첫 선적분이 순식간에 소진 되었고 바이어의 추가 주문을 충족할 수 없게 되자 일시적인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바이어에 대한 고객만족 차원에서 항공으로 물건을 실어 나르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2006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유럽 수출이 불가능 했던 (주)에이팩이 2006년 하반기에만 10만 유로 이상의 수출실적을 거양하게 되었으며 금년(2007년)에는 유럽 수출이 200만 유로를 상회할 것이라고 (주)에이팩은 전망하고 있다.

KOTRA 암스테르담무역관 (관장 윤재천)은 지난 2004년 4월에 로테르담에 중소기업들을 위한 공동물류센터를 설립하였고, 현재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25개사가 이용 중에 있다. 또한, 2006년 공동물류센터를 통한 유럽 수출이 1,500만 달러를 돌파하였다고 KOTRA 암스테르담 무역관은 밝혔다.

다. 자동차 부품 진출 성공사례

성우오토모티브社は 국내 자동차 알루미늄 휠을 전문 생산하는 기업으로 2008년 4.29~30일 창원에서 개최되었던 국제 수송기계 부품 산업전에 참가, 암스테르담 무역관에서 유치한 네덜란드 기업 네드카(Netherlands car B.V.)와 최초 면담한 이후 무역관의 꾸준한 지원과 자사의 노력으로 드디어 9월 알로이휠 연간 공급체결에 성공하게 되었다.

이번 계약은 우리나라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니치마켓인 네덜란드 자동차 생산업체에 제품을 납품하게 된 것은 물론, 향후 동사를 발판으로 유럽 애프터마켓 시장도 동시에 공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네드카가 성우 제품에 만족하고 있고 현재 생산중인 미쓰비시 차량 외에 타 브랜드 차종도 생산할 예정이어서 점진적인 공급물량 확대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참고로 네드카는 일본 미쓰비시社の Colt, Outlander모델을 생산, 유럽에 판매하고 있는 승용차 전문 제조기업이며 네덜란드에는 네드카外에도 트럭 전문기업 DAF, 버스 전문기업 VDL그룹 등 3개 자동차 제조업체가 있다.

네드카는 2007년 이전까지 주로 일본 및 유럽내 자동차 부품업체로부터 CKD 방식으로 부품을 공급받아 차량을 생산, 유럽시장에 판매하여 왔었으나 최근 2~3년 간의 경기 침체로 신차판매가 감소하자 공장폐쇄 위기까지 몰리는 등 경영이 크게 악화되었다.

네드카 측에서는 회생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최근 3년 간 종업원 수를 6천명에서 2천명 이하로 줄이는 등 대대적인 경영구조 개선에 나섰으며 그 결과, 2007년에는 연산 규모가 7만대까지 떨어지는 등 외형적으로는 대폭 회사규모가 축소되었으나 어느 정도 재기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평소 현지 기업 및 산업동향을 모니터링 하고 있던 암스테르담 무역관에서는 네드카의 상황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었으며 2007년 초반 경영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인원감축 같은 일시적인 조치 외에 생산원가 절감을 통한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 필요성이 네드카 내부에서 추진되고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품질과 가격경쟁력을 갖춘 한국산 자동차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적기라고 판단, 동사를 직접 방문 적극적인 수출상담을 추진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예상대로 한국산 부품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 않던 네드카도 무역관의 끈질긴 설득에 마침 2007년 6월 KOTRA 주도로 개최된 국제 수송기계부품 산업전에 참가하게 되었으며 현장에서 한국기업과의 상담을 통해 한국산 부품이 자사의 경영개선과 경쟁력 회생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무역관에 자동차 부품 업체 수배를 의뢰하는 등 한국산 부품 구매에 높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무역관에서는 2008년 4월에도 창원에서 개최된 2008 국제 수송기계부품 산업전에 네드카를 다시 유치, 국내기업과의 면담을 추진하였다. 한편, 네덜란드 시장 진출을 희망하던 우성오토모티브는 동 행사를 통해 네드카와 최초 면담 이후 네드카와의 지난한 협상 끝에 마침내 계약을 성사 시키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무역관은 네드카 구매 담당 부서의 책임자와 꾸준히 접촉하면서 우성오토모티브와의 협상과정을 점검하는 등 지속적인 후속지원을 수행하였다.

7. 이주정착 가이드

네덜란드 이민법은 관련 규정 변경이 다소 잦은 편이며 아래 내용은 2008년 9월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아울러, 또한 거주지역(Amsterdam, Rotterdam 등)과 입국자의 신분에 따라 신청 순서나 절차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대개 입국수속을 마친 후 거주허가 접수까지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현지 입국 후에는 이삿짐 통관, 주택입주, 자녀 학교입학, 전화 및 자동차 등록 등은 거주허가증 수령 전에도 시청에서 발급한 거주자 확인증(Uittekst) 또는 주택임대/구입 계약서, 은행계좌만 있으면 가능하다. 단 운전면허 갱신은 거주허가증을 받은 후에만 국제 운전면허증을 현지 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다.

참고로, 네덜란드 시청이나 이민성, 주한 대사관에 문의하더라도 정확한 안내를 받기 어려우며 거주지역 별로 적용순서나 발급 시일 등이 차이가 나게 되므로 일단 아래 3가지 상황을 근간으로 대략적인 순서를 인지하고 실제 적용은 각 시청 및 상황에 따라 추진하면 된다.

- 관련 정부기관
 - 노동부 CWI(Centrum voor Werk en Inkomen): 워킹퍼밋(Working Permit) 발급
 - 이민성 IND(Immigration and Naturalisation Service): 거주비자 발급
 - 주거지 시청 (Gemeente)

가. 현주 거주비자 취득 절차

1) 시청을 통해 거주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민성(IND)에 직접 신청하는 것보다 다소 시일이 더 소요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시청을 통할 경우 한곳에서 여러 행정절차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Amstelveen市가 대표적)

워킹퍼밋 신청 → CWI(Centrum voor Werk en Inkomen) → CWI워킹퍼밋 발급 → 주택계약 → 거주지 시청 방문(전입신고+거주비자신청) → 시청에서 전입신고 진행서류 발급(우편) → 시청에서 거주비자 진행증명서류 발급(우편) → 시청 거주확인완료 → IND 결핵검사 → SOFI NUMBER 발급 → IND 방문 인터뷰 → 거주비자 발급 통보 및 수령

2) 시청과 IND를 별도로 이용하여 거주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워킹퍼밋 신청 → CWI(Centrum voor Werk en Inkomen) → CWI워킹퍼밋 발급 → 주택계약 → IND에 거주비자 직접 신청(우편 또는 방문) → IND 결핵검사 → SOFI NUMBER 발급 → IND 방문 인터뷰 → 거주비자 발급 통보 및 수령

- 이 경우 전입신고, 거주자 확인증(Uittekst)등을 위해 시청을 별도 방문해야 한다.

3) EXPAT CENTER(knowledge migrants만 해당)

Amsterdam시 WTC빌딩 F동 1층 로비에 위치한 knowledge migrants(아래 설명 참조)을 위한 ONE-STOP서비스 센터로 2008년 5월부터 Amsterdam市와 Amstelveen市가 공동으로 설립하여 시험 운영 중이다. 별도로 시청이나 IND를 방문하지 않고도 이곳에서 시청 전입 및 거주비자의 신청, 접수, 수령까지 일괄 처리된다.

- 주소 및 연락처
 - World Trade Center Amsterdam, F-Tower
 - Strawinskylaan 39 (second floor), 1077 XW Amsterdam
 - Mail : welcome@expatcenter.iamsterdam.com, http://www.expatloket.nl
 - Telephone : +31 (0)20-2547999
- Knowledge Migrant 시스템
 - ‘Knowledge Migrant’ 시스템은 네덜란드가 외국의 고급이민자 유입촉진을 위해 2005 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써, 고소득자 및 지식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동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될 경우, 거주비자 발급 전 진행기간 중에도 현지 정규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일반 이민자나 주재원의 경우 신청기간 중에는 혜택도 적고 가격도 비싼 여행자 보험을 들었다가 거주비자가 나온 후에야 정규의료보험을 들 수 있다.)
 - 아울러, 일반인들이 1~3 년 사의의 거주허가증을 받게 되는 데 반해 통상 5 년간의 거주허가증을 발급받는 혜택이 있다. 동 제도 수혜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소정의 자격요건과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자격요건은 연봉 45,000 유로 이상인 고소득자이거나, 나이가 30 세 미만인 자로서 연봉 32,600 유로 이상인 대학원졸업생 또는 대학교수 등 지식근로자 그룹에 속해야 한다.
 - 수속절차는, 먼저 지식근로자를 초청할 네덜란드 진출기업은 현지 이민성(IND)에 ‘지식근로자 추천기관’으로 등록해야 한다. 한국에서 네덜란드에 법인이나 지사를 설립한 기업들도 등록할 수 있다. 이후 입국대상 지식근로자용 입국신청서를 교부 받아 관련된 서류 일체를 IND 에 제출하면 된다. 최소 1 개월 이상 소요되며, 거절되는 수도 있다.
 - 지식근로자로 승인이 되면, 이후 입국하는 방법과 절차는 일반 이민자 입국수속절차와 동일하다.

4) 신청절차 세부설명

- 2007 년 6 월 1 일부로 기존 현지 발령 또는 이주 확정시,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을 통해 신청해야 했던 MVV(임시체제비자의 일종)에 대해 정부가 한국국민에 대해 면제조치를 취함으로써 네덜란드 입국수속은 수월해졌다.
- 이에 따라 관광목적이 아닌 투자 및 비즈니스를 위해 네덜란드를 방문하는 한국인들은 3 개월간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다. 하지만 3 개월 이상 체류 시에는 현지에서 근로허가서 (Working Permit)을 발급받아야 한다.
 - 근로허가서 발급은 노동청 양식 AV320 을 작성 제출해야 하며, 소득증명, 파견자와 본사간 근로계약서, 이력서, 졸업증명서, 여권사본, 현지 상공회의소 등록증 초본, 일정기간 경과 후 귀국할 것이라는 보증서 등의 서류가 요구되며, 동 과정 또한 지사 또는 법인설립을 대행한 네덜란드 공증인 또는 법무법인을 통해 추진하게 된다.
- 3 개월 이상 체류를 목적으로 네덜란드를 입국한 외국인인 규정상 네덜란드 도착 후 5 일 이내에 입국한 가족 동반하여 거주지 관할 경찰서(시청직원 파견근무)에 입국 신고를 해야 하나 실제 시청 또는 IND 에 거주비자 신청으로 대신하면 되므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 이후 IND(네덜란드 이민성) 인터뷰, 관할시청 거주신고 등을 거쳐야 한다. 이때 여권사진 2 매, 보험증, 고용계약서 집 계약서 등(단 가족 동반 시 결혼증명서와 자녀 출생증명서 및 보호자 확인증이 추가 필요)의 서류를 구비한 후에 신청하여야 하며, 우리나라는 카테고리 B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소정의 신청금(일종의 비자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약간의 요율 변경이 있음)
- 신분증(거주허가증) 유효 기간은 1 년 또는 3 년의 유효기간을 제공하는데, 같은 회사의 주재원 또는 동일 주재원의 가족일 경우라도 같은 유효기간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유효 기간은 IND 가 자체적으로 정한다. 유효기간 경과에 따라 갱신 시에는 사진 2 매와 구 신분증을 IND 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우리나라는 결핵검사 대상국으로써 거주비자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IND 에서 지정하는 소재지 보건소에서 폐결핵 보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X-Ray 촬영을 받아야 하는데 어린이도 예외가 되지 않는다.
- 또한 자녀의 경우 반드시 예방접종 증명서를 한국에서 가지고 와야 하며, 예방접종 확인이 안될 경우 다시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마쳐야 한다.
- 네덜란드의 이민행정절차는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유명하므로 상당한 인내심을 가지고 행정절차를 기다려야 한다.

나. 이삿짐 통관

- 모든 이사물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수입관세가 면제된다. 단, 자동차는 6 개월 이상 소유한 것으로서 반입할 때 자동차 소유기간 증명서를 동봉해야 한다. 이사물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 받기 위해서는 네덜란드 관세청에 면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통상 이사화물 통관 전문 기업을 통해서 통관을 하게 된다. 최근 들어 주재원 이사화물에 대해서도 최근 구입한 고가품의 경우 과세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이삿짐 구입 발송 시에는 과세대상이 되지 않도록 사용하던 물건으로 판정되도록 포장하는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
- 관세면세신청서는 신청서가 있을 때에 조건부로 효력을 발생하며, 확실한 경우에만 효력을 발생한다. 소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이사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납부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벌금이 부과되기도 한다.
 - 면세 신청 시 유의사항 (전문통관업체가 대행하므로 참고로 알아두기만 하면 된다)
- 최종 이사물품 통관 예정일을 기입해야 한다. 만약, 신청일보다 늦을 경우에는 통관예정일 연기 신청을 해야 한다.
- 네덜란드에서 관세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통관신고를 해야 한다. 이럴 경우에는 "Enig Document" 신청서를 교부 받아 정확히 기입해야 한다.
- 이사 물품은 판매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대여를 금지하고 있다. 이사 물품은 관세가 면제 된다는 이유로, 상업적 목적으로 대여, 양도 또는 판매 될 수 없으며 이는 통관날짜를 기준으로 12 개월 이내에만 적용된다. 만약, 통관날짜를 기준으로 물품을 판매, 양도 또는 대여할 경우에는 반드시 지역 해당 관세청에 서신으로 통보해야 하며, 소정의 세금이 부과된다.

- 일반적인 이사 물품 이외의 물품을 반입시에는 일반 관세법이 적용된다. 즉, 술, 담배, 등 화란의 관세청에서 규제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된다.
- 이삿짐에 신규로 구입한 전자제품, 골프용품 등 고가의 신규구입 물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과세대상이 되므로 이삿짐 발송 시 최근 통관동향(전수조사 또는 랜덤조사 여부 등)을 이미 정착한 주재원에게 문의해보는 것이 좋다.

다. 주택 구하기

- 한국에서 파견 나온 주재원 또는 이민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가옥은 전통가옥(Rijtjeshuis: row house)로서 한국의 연립주택과 유사하나 집 앞 또는 뒤에 작은 정원을 갖추고 있음)과 아파트가 가장 보편적이다.
- 전통가옥의 경우 대개 2-3 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1 층은 거실 및 식당으로 2 층 또는 3 층은 침실 및 다락방으로 구성)으로 되어 있으며, 계단이 좁고 가파른 것이 특색이다.
- 가격은 지역별로 상이하나 한국 주재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Amstelveen(암스테르담 인근위치)의 경우 1,500-3,000 유로/월 수준이며, 로테르담의 경우 이보다 약 20% 정도 낮다. 아파트는 방 2-3 개(창고별도)형태가 가장 보편적이며 가격은 대략 1,500- 2,000 유로/월 수준이다(세미 퍼니쉬트 기준, 가구가 전무할 경우 통상 500 유로 이상 싸진다).
- 주택의 계약은 당사자간의 가격과 조건이 일치할 때 이루어지며,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중개업체 수수료는 대개 1 개월분 임차료와 VAT(19%) 기타 행정수수료 등이며, 계약 시 임대인에게 임차료 1 개월 또는 2 개월에 해당하는 예치금(퇴거 시 주택 원상 복구 여부 검사 후 반환)과 1 개월 분 임차료를 선불하여야 하여야 한다.
- 임차료 인상은 연 1 회 자동으로 이루어지며, 요율은 연간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대략 1-2% 수준), 임대료에는 편의시설 사용료(가스, 전기, TV 수신료 등) 등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 상례이며, 사소한 보수사항은 임차인 책임 사항이다.
- 계약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본사 귀임, 전근발령에 대비, 계약서 기본약관에 "외국인 조항" 이 포함되어 있는 지 확인해야 하며, 계약 해지 시에는 통상 해지일 기준 2 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 내부시설 유무에 따라 임차주택은 대략 다음의 3 가지로 나뉘어진다.
 - Fully Furnished: TV, 냉장고, 침대, 식탁 등을 비롯, 입주자가 요리, 식사, 세면, 수면 등을 위한 시설이 일체 갖추어진 집의 형태
 - Semi-Furnished: 바닥재, 커튼, 램프 및 부엌가구가 포함되어 있는 집의 형태
 - Unfurnished: 내부에 아무것도 갖추고 있지 않은 집의 형태(이 경우 일반적으로는 내부 페인트칠과 벽지공사, 전구설치 등 일체를 임차인 본인의 비용으로 해야 함)
- 참고사항 (인터넷 주택 검색 사이트)
 - 주택매매 및 임대차 관련 부동산사무소들의 경우 대부분 인터넷사이트에 매물 정보를 기재하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

- www.marktplaats.nl
- www.renthouse.nl
- www.amsterdamhousing.nl
- 네덜란드 주택매매 사이트를 통한 주택을 구입할 때, Huur 과 Huren 은 임대를 의미하고, Verkoop 과 Verkopen 은 매매를 의미하니 참고하기 바란다.

라. 은행계좌개설

은행계좌 개설 시, 사회보장번호인 **public service number (BSN)**와 거주지를 증명하는 주택임대 또는 매매계약서가 있으면 된다.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 거주지나 사무실로 PIN 카드(직불카드)와 인터넷 뱅킹용 암호대조기(전자계산기처럼 생긴 기계로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서 신원확인 및 자금 거래 시 사용)를 우편으로 송부해 주며 PIN 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은행 점포나 해당은행 ATM(현금인출기)기에서 활성화(Activate)시키면 된다. 신용카드는 일정 시간이 흘러서 은행거래내역이 쌓이면 별도 신청하면 된다.

참고로, 네덜란드는 현금 못지 않게 PIN 카드 사용이 일반화 되어 있으며 MAESTRO 가맹이 되어 있는 유럽지역 타 국가에서도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 오히려 신용카드는 실제 사용보다는 비즈니스, 인터넷 물품구입 및 각종 예약 시 사용하게 되며 네덜란드에서는 PIN 카드와 신용카드를 모두 보유할 것이 권장된다.

현지 은행에서 현지 유로화 및 달러화 계좌 개설이 가능하며, 암스테르담에는 한국외환은행 지점이 있다. Checking Account(수시로 입금, 출금 가능) 및 Savings Account(일정금액 이상 예치 시) 모두 가능하다. 계좌개설 약 1 주일 후 은행으로부터 현금 인출카드(일종의 직불 카드)를 교부 받게 된다. 별도의 은행통장이 발급되지 않으며, 정기적으로 bank statement 가 예금자에게 송부된다. 물품 구입 대금이나 공공요금은 Giro Transfer Form 이나 Credit Transfer Form (Slip)을 이용, 본인 계좌에서 이체 지불한다. 인터넷 뱅킹은 보안이 잘 되어 있으므로 일반 지불 시 이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마. 전화, TV, 인터넷

주택이 마련되면 전화, TV, 인터넷을 신청해야 하는데 현재 네덜란드에는 KPN, TELE2 등 각종 통신사에서 TV, 전화, 인터넷을 묶어서 판매하고 있으므로 이들 패키지를 구입할 경우 한번에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신청하고 나서 실제 사용시까지 통상 1~2 개월이 소요되며 직접 설치해 주지 않고 대부분 우편으로 모델 등을 보내주고 소비자가 스스로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람을 나올 경우 별도 요금이 부과된다.

요즘은 경쟁이 치열해서 회사에 따라 무상 출장서비스도 있는 경우가 있고 설치시간도 2 주 내로 신속히 이뤄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서비스 업체 선정 시 참고하는 것이 좋다.

또한 종종 노트북 제공 등 사은품 행사도 많으나 의무 계약기간이 2 년 정도로 다소 긴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울러, 핸드폰의 경우 가입 시 업체별로 다양한 모델의 핸드폰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바. 자동차 및 비품구입

자동차는 거주지 시청에서 발급하는 거주자 확인증(Uittekse)만 있으면 거주비자 없이도 구입이 가능하다. 구입절차도 간단해서 신차의 경우는 딜러가 모두 처리해 주고 중고차의 경우는 근처 우체국에서 약 5 분 정도의 간단한 수속으로 차소유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차량가격에 40%의 BPM (일종의 특별소비세)이 부과되므로 인근국보다 자동차를 고가에 구입해야만 한다.

자동차구입은 주로 딜러를 통해 구입하나, 중고차도 고가이므로 여러 곳의 차량가격을 두루 검토한 후 구입해야 한다. 중고차 구입시 1 년 정도의 보증기간을 제공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보증기간 없이 구입하는 것보다 고가이다. 딜러를 통해 구입하는 것보다 특정 개인이 3 년 정도 사용한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권장되며, 이는 학교, 회사, 지인 등을 통해 물색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중고차 사이트는 www.autotrack.nl 이 가장 인기가 있으며 한 두 달 정도 여유를 가지고 찾아 보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의 품질 좋은 차를 구입할 수 있다. 참고로 네덜란드는 자동보다 수동이 많은 편이며 장거리 유럽여행을 위해서 크르쥬 컨트롤(Crusie)이 장착된 차량이 많다.

네덜란드에는 유료 도로가 없는 대신 자동차세, 도로세 등이 정기적으로 부과된다. 암스테르담의 경우 대부분이 자가차량 주차증을 구입하여 집 앞에 주차하게 되는 데, 본인차량 주차증과 방문객 차량 주차증 등 2 종을 시청에 가서 구입하여 차량에 비치해야 한다. 동 주차증은 분기별로 자동 갱신 및 송부(자동갱신 시청해야 함)되며, 암스테르담 등 대도시 번잡지역 이외 의 지역에서는 집 앞에 무료 주차가 가능하다.

가구, 비품, 전자제품 등은 대형체인점에서 구입하는 것이 좋다. 가구류는 통상 IKEA 에서 구입한다. 가전제품을 포함한 필수품은 Makro, Hanos, MediaMart(독일계), BCC(영국계) 등의 하이퍼마켓 또는 대형체인점에서 구입하는 것이 좋으며, 종류도 많고 가격도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사. 자녀교육

현지 거주자의 자녀는 조건 없이 현지 교육기관에 취학할 수 있다. 현지 이민일 경우 화란어로 교육하는 네덜란드 학교에 취학시킬 수 있으며 네덜란드 학교는 고등학교까지 수업료가 면제 된다(2005 년부터 16 세 이상도 고등학교 수업료가 면제되는 것으로 개정됨). 주재원의 경우 통상 국제학교에 자녀를 취학시키게 된다.

네덜란드에는 외국기업과 외국인이 많이 진출해 있어 국제학교가 지역별로 많이 있다. 암스테르담, 헤이그, 로테르담 등 주요 도시에 있는 국제학교를 수업료 수준에 맞추어 적절히 취학시킬 수 있으며 주재원의 자녀도 현지학교에 취학시킬 수 있다.

암스테르담의 초,중 등 과정은 브리티시와 ISA, AICS 등 인터내셔널 3 개 학교가 있다. 수업료가 상대적으로 비싼 ISA 가 (중고등학생의 경우 연간 수업료 18,000 유로 이상) 부담이 될 경우 AICS 나 브리티시스쿨(연간 12,000 유로 이상)에 취학시키기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수업료가 비싸지만 학교시설이 우수한 ISA(International School of Amsterdam)의 경우, 입학 신청 후 T/O 사정에 따라 입학 허가를 받을 때까지 6 개월-1 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동 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키고자 하는 경우 주재원 발령과 함께 입학수속 서류를 사전에 발송하는 등 학교당국과 사전 유선접촉을 병행하는 것이 좋다.

저학년의 경우 예방접종 증명서류를 요구하고 있으며, 성적증명서도 필요하므로 일부 부분은 영문으로 번역하여 가져오는 것이 좋다. 국제학교 입학은 통상 학부형 및 학생과의 인터뷰를 거쳐 입학 승인이 나게 된다. American School 의 학제는 통상 Kindergarten 4-5 세, Elementary School (Grade 1-4) 6-9 세, Middle School (Grade 5-8) 10-13 세, High School (Grade 9-12) 14-18 세로 되어 있다.

네덜란드에 소재한 국제학교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 The International School of Amsterdam
 - 주소: Sportlaan 45, 1185 TB Amstelveen
 - 전화: +31 20 347 1111
 - 팩스: +31 20 347 1222
 - 홈페이지: www.isa.nl
 - 이메일: admissions@isa.nl
- American International School of Rotterdam
 - 주소: Verhulstlaan 21, 3055 WJ Rotterdam
 - 전화: +31 10 422 5351
 - 팩스: +31 10 422 4075
 - 홈페이지: www.aisr.nl
 - 이메일: information@aisr.nl
- The American School of the Hague
 - 주소: Rijksstraatweg 200, 2241 BX Wassenaar
 - 전화: +31 70 512 10 60
 - 팩스: +31 70 511 24 00
 - 홈페이지: www.ash.nl/index1.html
 - 이메일: admission@ash.nl
- The British School in the Netherlands
 - 주소: Vlaskamp 19, 2592 AA Den Haag
 - 전화: +31 70 333 8111
 - 팩스: +31 70 333 8100
 - 홈페이지: www.britishschool.nl
 - 이메일: info@britishschool.nl
- The British Primary School of Amsterdam
 - 주소: Anthonie van Dijkstraat 1, 1077 ME Amsterdam
 - 전화: +31 20 679 7840
 - 팩스: +31 20 675 8396
 - 홈페이지: www.britams.nl
 - 이메일: info@britams.nl

아. 병원 이용

네덜란드에 거주하는 이민자 또는 주재원의 경우, 대부분 보험료 수준에 맞추어 별도의 의료 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의료보험료는 통상 4인 가족의 경우 월 약 300 유로가 소요되며, 대부분의 의료비가 커버된다.

의료보험 가입 후 가정의를 별도로 수배하여 정해 놓아야 종합병원에서 2차 진료가 가능하다. 단, 응급환자 발생시는 가정의를 경유하지 않고 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다.

네덜란드 의료보험금 청구는 피보험자가 의료비를 선지불하고, 후지원을 받게 되는데, 해당 영수증 원본을 첨부하여 의료보험회사에 신청해야 하며, 통상 3개월 주기로 환급받는 것이 좋다.

8. 출장가이드

가. 기후

네덜란드는 북위 50-53도의 고위도에도 불구하고 북해연안에 인접해 있어 따뜻한 대서양 난류로 인해 온화한 해양성 기후를 갖고 있다. 여름은 서늘하고 겨울은 온난하며, 지역간의 온도차도 극소하여 동부와 서부간의 연평균 기온 차는 2도 내외 안팎이다.

네덜란드의 연간강우량은 약 760mm, 눈 내리는 날은 연평균 17일 정도이다.

네덜란드 기후의 특징적인 사항은 일년 내내 건기가 없고, 봄철을 제외하고는 다소 강수량 많은 편이며 특히, 9월부터 익년 3월까지의 강한 바람을 동반한 비가 자주 내린다는 점이다.

여름철 평균기온은 18도 정도이나 아침은 선선하고 점심 때는 덥고, 저녁은 다시 선선해지는 등 일교차가 심하며, 겨울철 평균기온은 8도로 온화한 편이나, 바람이 많이 불어 체감온도는 이보다 훨씬 낮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출장 복장을 준비함이 바람직하다.

월별 평균기온 및 일조시간은 아래와 같다. (과거 30년 평균)

월	평균 기온(섭씨)	일조 시간
1	2.1	44
2	2.3	65
3	4.7	111
4	7.8	161
5	11.9	206
6	15	209
7	16.5	189
8	16.5	184
9	14.2	140
10	10.2	110
11	6	51
12	3.3	38

나. 시차/근무시간

1) 시차

한국시간 보다는 8시간 (하절기 서머타임 실시에는 7시간)이 늦어 한국이 21시일 경우 네덜란드는 동일 13시(하절기는 12시)이다.

서머타임 실시기간은 매년 3월 마지막 주부터 10월 마지막 주까지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오후 4시(서머타임 중)/5시(서머타임 이후)이후에 네덜란드에 전화하여 업무를 보는 것이 적당하다.

2) 근무시간

근로자의 법정최고 근무시간은 45시간이나 매년 개최되는 노사 간 포괄협상을 통해 현재는 주 38-40시간 근무가 가장 보편적으로 적용 되고 있다. 최근 들어 주 36시간 근무업체도 증가하는 추세이며 경찰노조의 경우 32시간제로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네덜란드 중소기업연맹(MKB) 등 기업 측 입장에서는 네덜란드가 근무시간이 EU 내에서 적기 때문에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므로 근무시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발표하는 등 근무시간 연장에 대한 요구가 과거보다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네덜란드 정부는 네덜란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난해부터 근무시간 확대를 추진코자 하고 있으나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다.

대부분 일반 사무실(은행 및 우체국포함)의 경우 08:30에서 16:30까지 또는 09:00에서 17:00시까지 근무하며, 주 5일 근무제가 가장 보편적이나 은행의 경우 금요일 오후 격주 휴무제가 노사간 합의로 1996년 9월부터 시행 중이다.

개인 의사에 따라 근무시간을 자유로이 조정할 수 있는 탄력근무제도를 도입한 회사도 상당수이다. 근무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비즈니스 목적의 미팅은 금요일이 피하는 것이 좋다. 휴일의 증가와 근로시간 단축으로 금요일을 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일반 상점은 일반적으로 주중에는 10:00부터 18:00까지 주말(토요일)에는 17:00까지만 영업한다. 일요일은 암스테르담, 헤이그, 로테르담 등의 대도시의 일부 쇼핑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폐점한다.

3) 대부분의 상점들 문 여는 시간

- 월: 13-18시 (백화점 11-18시)
- 화-금: 9-18시: 하지만 2006년 말부터 대형 슈퍼마켓을 중심으로 평일에도 22시까지 문을 여는 상점이 확대되고 있다. 아울러 대도시의 경우 일요일에도 문을 여는 상점들이 확대되고 있다.
- Amsterdam인근의 아시아계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Amstelveen의 쇼핑상가의 경우 매월 첫째주 일요일에는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등 지역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거주지역에 따라 시청 및 주변 쇼핑상가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4) 은행

- 월: 13-16시
- 화-금: 9-16시
- 토, 일은 대부분의 은행들이 영업을 하지 않는다.

다. 주요단위(도량형)

네덜란드의 도량형은 한국과 같은 미터법 및 그램을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미터법 단위

길이	mm	cm	m	km
부피	-	cm ³	m ³	-
넓이	mm ²	cm ²	m ²	km ²
무게	mg	g	kg	ton

라. 출입국/비자

1) 비자관련 일반 사항

- 3개월 이내의 단기출장
 - 한국-네덜란드 양국간 비자면제 협정에 의해 90일 이내의 체류에 대해서는 비자가 면제된다.
 - 최근 6개월 동안 누적체류 일수가 90일을 초과해선 안 된다.
- 3개월 이상의 장기출장
 - 2007년 6월 1일부로 기존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에서 발급받아야만 했던 임시체류비자(Mvv)가 면제됨으로써 3개월 이상 장기출장의 경우에도 일단은 네덜란드에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하다.
 - 하지만 근로허가서(Working Permit)는 여전히 득해야 하기 때문에 출국 전부터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관련기업을 통해 취득을 위한 진행절차를 밟아야 한다.

2) 출입국 절차

□ 네덜란드 입국 절차

- 항공편으로 네덜란드로 입국하게 되면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공항인 스키펴 공항에서 입국 절차를 밟는다. 스키펴 공항은 유럽 내 주요도시와 전세계 약 250여 개의 도시로 연결되며 한 터미널에서 도착과 출발이 이루어져 환승하는 데 상당히 편리하다.
- 입국절차
 - 게이트 → 출입국신고 → 수화물 수취 → 세관검사 → 도착
 - 출입국 카운터: 비행기에서 내려 도착표시(Arrivals)를 따라 자동보도를 타고 가면 출입국을 관리하는 창구를 발견할 수 있다. 여권과 사증을 제시하는 간단한 절차를 마칠 수 있다.

- 수화물 수취: 출입국카운터를 통과 하게 되면 곧바로 수화물을 수취할 수집하장이 나온다. 모니터 화면에서 비행편 번호를 확인한 후 벨트에서 수화물을 찾는다.
 - 세관신고: 신고할 물건이 없을 경우 녹색창구로, 신고할 물건이 있을 경우 붉은색 창구로 들어간다.
 - 도착: 세관검사를 끝나게 되면 밖으로 곧바로 나오게 된다.
- 여권의 경우 유효기간이 반드시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 먼저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한 후 분실증명확인서(Police Report)를 발급, 주 네덜란드대사관을 방문 여행증명서(Travel Certificate)를 발급받아야 한다.
 - 여행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
 - 신청서(주 네덜란드 한국대사관에서 발급)
 - 사진
 - 여권분실 확인서 (현지경찰서 발행)
 - 여권번호 및 발급일자, 유효기간 (여권의 관련 면 항상 복사 소지요망)
- 세관 검사
- 기내에서 세관신고서를 작성하는데, 특별한 것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세관 검사대는 X-Ray 투시기가 있어 수화물은 투시기를 통과시켜 의심이 가는 가방만 열어 본다. 그러나 세관원에 따라 그냥 통과시키는 경우도 있다.
 - 출입국에 필요한 특별한 검사는 없으며 예방접종 또한 필요 없다. 입국 시 신고물이 있을 경우에만 세관검사대를 거치며, 그 외에는 대부분 세관검사 없이 통관을 한다. 단 세관원이 임의로 선택하여 세관검사를 하므로, SAMPLE 등은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샘플통관
- 네덜란드의 경우 샘플 및 브로슈어의 경우 랜덤체크를 실시하고 있다. 이 경우 통관은 2가지로 나뉘어진다. 우선 샘플가액이 175유로 이하일 경우 통관을 거치지 않는다. 하지만 가액이 175유로 미만이라는 증빙(영수증 또는 Invoice) 샘플가액이 175유로를 초과할 경우 정식으로 통관을 해야 한다. 전시회의 경우 ATA Carnet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 환승
- 스키폴 공항에서의 환승은 매우 편리하다. 스키폴 공항은 하나의 터미널로 이루어져 있어 게이트를 통과해 환승 창구를 이용 탑승하는 여타공항에 비교 아주 쉽게 환승할 수 있다.
 - 게이트
 - 공항에 도착하면 모니터 화면에서 탑승시간과 게이트가 표시된 정보를 확인하고 게이트로 이동한다.
 - 환승창구
 - 연결항공편 탑승권 소지 시: 스키폴 공항에 도착하면 모니터 화면을 통해 환승을 위한 탑승시간과 게이트 번호가 표시된 환승정보를 확인하고 시간에 맞추어 공장 출발 게이트로 이동해 환승할 수 있다.
 - 연결항공편 탑승권 미소지 시: 연결항공편의 탑승권을 미소지할 경우 모니터 화면에서 안내하는 환승 창구를 통해 새로운 탑승권을 발급받아 환승할 수 있다.

□ 네덜란드 출국 절차

- 출국 수속장에서 탑승수속을 마친 후 “Passport Control” 카운터를 통과하면 바로 면세점들이 보이는 출국라운지를 볼 수 있으며 아울러 게이트가 나온다. 게이트는 탑승권에 기재되어 있는 번호를 확인 사인보드를 따라 쉽게 찾을 수 있다.
- 네덜란드는 19%의 부가세가 적용되고 외국인 관광객들에 한하여 출국 신고 시 면세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탑승수속을 마친 후 출국 시 구매한 물품의 상점으로부터 받은 신고서에 기재사항을 작성하고 출국장 옆에 있는 Tax 신고소 또는 ABN Amro은행에서 구매물품과 여권, 탑승권을 보여주고 세금을 현금으로 환급 받을 수 있다.

마. 환율/환전

1) 환율

- 네덜란드가 2002년부터 유로화를 사용함에 따라 현재 통화는 유로화이며 2008년 9월 15일 기준 유로화의 환율은 다음과 같다.
 - 1 EUR = 1,567.20원 (2008.9.15)
 - 1 EUR = 1,417.9 USD (2008.9.15)

2) 환전

- 환전은 은행, 환전소, 호텔 등에서 가능하나 환전수수료는 약간씩 차이가 있다.
 - 은행: 3-4%
 - 환전소: 3-6% (공항 내 환전소는 수수료 저렴 2.5-3%)
 - 호텔: 6-11%

바. 교통/통신

1) 교 통

시내 대중교통 수단으로 택시, 버스, 지하철(Metro)과 경전철(Tram)을 이용할 수 있다.

□ 택시

택시 요금은 한국에 비하면 다소 비싼 편으로 기본요금은 2.90유로이다. 참고로 공항(Schiphol)에서 무역관이 위치하고 있는 암스테르담 남부지역(Strawinskylaan 767)까지 편도 약 30유로 정도가 소요됨(11km). (일종의 Call Taxi로, 암스테르담에서 호출 시는 Taxicentrale 0900-677-7777 또는 020-777-7777로 전화)

□ 버스, 지하철, 경전철

연계권으로 공동사용 하는데, 승차권은 차량내부에 설치된 자동판매기(혹은 운전자가 직판)를 이용하거나, 3-4일 이상 장기 체류 시에는 우체국 등 지정판매소에서 15구간용(EUR 6.20), 혹은 45구간용(EUR 20.40)을 구입하면 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Strippen kaarten라는 이 승차권은 우체국, 담배 판매점, 기타 잡화점, 일부 슈퍼에서 살 수 있다.

네덜란드는 교통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어 경전철이나 버스 등을 이용할 때 동일 구역 내에서는 버스, 전철, 경전철에서 같은 승차권 이용이 가능하다. 승차권을 사용할 때는 "구역 +1"을 적용하여 즉, 목적지까지가 3구역일 경우 3+1 즉, 4칸에 해당되는 표를 구입 혹은 사용하여야 한다. 사용방법은 차량 내 검인기계(노란색 기계)에 승차권을 넣게 되면 검인된다.

□ 기차

시외 교통수단으로는 기차가 가장 저렴하며 편리하다. 네덜란드 철도청의 인터넷 사이트인 www.ns.nl을 이용하면 네덜란드 국내선 및 국제선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2) 통 신

□ 시내전화

유로 동전이나 전화카드 이용 가능하나 시내에 공중전화기가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출장 시 한국에서 휴대전화를 로밍해 오는 방법도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 국제전화

동전이나 카드이용은 시내전화와 마찬가지로 동일함. 다만, 먼저 국제전화 인식번호를 누른 후 국가번호, 지역번호, 전화번호 순으로 다이얼하면 된다.

- 예: 네덜란드에서 서울로 전화할 때 - 00(국제번호) - 82(한국) - 2(서울) - 전화번호
- 예: 서울에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전화할 때 - 001(국제번호) - 31(네덜란드) - 20(암스테르담) - 전화번호

참고로 호텔 객실 내 국제전화를 사용할 경우, 상당히 요금이 비싸기 때문에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사. 호텔/식당

1) 호텔

네덜란드 내 대부분 호텔은 인터넷을 통해 예약 가능하다(www.hotelnet.nl, www.bookings.nl).

암스테르담 인근지역에 위치해 있는 주요 호텔은 다음과 같다.

□ Hotel Okura(☆☆☆☆☆)

- 위치: Ferdinand Bolstraat 333, 1072 LH
 - Schiphol 공항에서 차량으로 15분, 다운타운까지 7km, 암스테르담 RAI 전시장역에서 도보로 5분
 - 공항 셔틀버스 운행 (50분 간격)
- 객실요금(Standard room 기준 - 정상가격)
 - 싱글 270유로, 트윈 300유로
 - 인터넷 사용여건

- Wireless 인터넷 카드로 객실에서 인터넷 이용 가능 (일일 30유로)
- 비즈니스 센터에서 인터넷, 팩스 등 통신 시설 이용 가능
- 회의실 등에는 인터넷 설치 가능(사용료, 설치비 별도 청구)
- 연락처
 - 전화: 31(0)20-678-7111/ 팩스: 31(0)20-671-2344
 - 웹사이트: www.okura.nl

□ Hilton Amsterdam Hotel(☆☆☆☆)

- 위치: Apollolaan 138, 1077 BG Amsterdam
- Schiphol 공항에서 차량으로 15분, 다운타운까지 7km, Rai 트램역에서 도보로 5분
- 객실요금(Standard room 기준 - 정상가격)
 - 싱글 250유로, 트윈 280유로
- 인터넷 사용여건
 - Wireless 인터넷 카드로 객실에서 인터넷 이용 가능 (일일 20유로)
 - 비즈니스 센터에서 인터넷, 팩스 등 통신 시설 이용 가능
 - 회의실 등에는 인터넷 설치 가능(사용료, 설치비 별도 청구)
- 연락처
 - 전화: 31(0)20-710-6000 / 팩스: 31(0)20-710-6080
 - 웹사이트: www.hilton.com (Hilton Hotel 글로벌 통합홈페이지)

□ Dorint Sofitel Amsterdam Airport Hotel(☆☆☆☆)

- 위치: Stationplein 951 1117 CE, Schiphol
 - 스키폴공항에서 5분
- 객실요금(Standard room 기준 - 정상요금)
 - 싱글 180유로, 트윈 200유로
- 인터넷 사용여건
 - 객실에서 Wireless 인터넷 이용 가능 (무료)
 - 비즈니스 센터에서 인터넷, 팩스 등 통신 시설 이용 가능
 - 회의실 등에는 인터넷 설치 가능(사용료, 설치비 별도 청구)
- 연락처
 - 전화: 31(0)20-540-0777
 - 팩스: 31(0)20-540-0700
 - 웹사이트: www.sofitel.com (Sofitel Hotel 글로벌 통합홈페이지)

□ Novotel Amsterdam(☆☆☆☆)

- 위치: Europa Boulevard 10, Amsterdam
 - 공항에서 차량으로 15분, 다운타운까지 8km, Rai 트램역에서 도보로 3분
- 객실요금(Standard room 기준 - 정상가격)
 - 싱글 160유로, 트윈 180유로
 - 여행사를 통한 예약 시 싱글 110유로, 트윈 130유로 (여행사 정보는 암스테르담무역관 홈페이지 호텔예약 정보 참조)
- 인터넷 사용여건
 - Wireless 인터넷 카드로 객실에서 인터넷 이용 가능 (일일 27유로)
 - 비즈니스 센터에서 인터넷, 팩스 등 통신 시설 이용 가능
- 연락처
 - 전화: 31(0)20-541-1123
 - 팩스: 31(0)20-646-2823
 - 웹사이트: www.novotel.com (Novotel Hotel 글로벌 통합홈페이지)

□ Holiday Inn Amsterdam(☆☆☆☆)

- 위치: De Boelelaan 2, Amsterdam
 - 공항에서 차량으로 15분, 다운타운까지 8km, Rai 트램역에서 도보로 3분 (Novotel Amsterdam 호텔 맞은편에 위치)
- 객실요금(Standard room 기준 - 정상가격)
 - 싱글 180유로, 트윈 200유로
- 인터넷 사용여건
 - 객실에서 Wireless 인터넷 이용 가능 (일일 22유로-카드구입 불필요: 체크아웃 시 계산서에 포함)
 - 비즈니스 센터에서 인터넷, 팩스 등 통신 시설 이용 가능
- 연락처
 - 전화: 31(0)20-646-2300
 - 팩스: 31(0)20-517-2764
 - 웹사이트: www.holidayinn.com (Holiday inn Hotel 글로벌 통합홈페이지)

□ A4 Schiphol (☆☆☆☆)

- 위치: Rijksweg A4 Nr. 3 Amsterdam
 - 공항에서 차량으로 5분, 다운타운까지 차량으로 20분, 공항 셔틀버스 30분 간격으로 운행
- 객실요금(Standard room 기준)
 - 싱글 130유로, 트윈 150유로

- 인터넷 사용여건
 - Wireless 인터넷 카드로 객실에서 인터넷 이용 가능 (일일 30유로)
 - 비즈니스 센터에서 인터넷, 팩스 등 통신 시설 이용 가능
- 연락처
 - 전화: 31(0)25-267-5335
 - 팩스: 31(0)25-262-9245
 - 웹사이트: www.volk.com (Volk 글로벌 통합 홈페이지)
- 호텔의 가격 정보는 정상금액을 기준으로 했으며 성수기/비수기, 예약시기 및 투숙 일수 등에 따라서 요금이 크게 달라진다. 보통의 경우 현지 여행사나 인터넷 특별요금 등을 통하면 할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2) 식당

- 네덜란드의 식생활은 개신교의 영향으로 유럽 내에서도 다소 검소한 편이며, 전통적인 음식도 상대적으로 풍부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네덜란드가 유럽 내 중심에 자리잡은 덕에, 암스테르담의 다운타운에는 세계 각국의 레스토랑들이 몰려 있다.
- 한국 식당은 암스테르담 4개가 성업 중이다.

□ Sushi Time

- 위치: Strawinskylaan 13 1077 XX Amsterdam 암스테르담 무역관이 입주해 있는 WTC Amsterdam 건물 내 위치 (5번 트램 및 51번 매트로 Amster Zuid/WTC역에서 하차)
- 주요메뉴: 일식
- 가격대: 20-30
- 홈페이지: N/A
- 연락처: 31(0)20-575-3200
- 기타 특이사항: WTC 건물 내 위치해 찾기 쉽다. 간편한 런치를 즐길 수 있는 일식 레스토랑으로 저녁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 Casa di David

- 위치: Singel 426 1017 AV Amsterdam (5번 트램 Koningsplein역에서 하차)
- 주요메뉴: 피자, 파스타 등 이탈리아 음식
- 가격대: 15-20유로
- 홈페이지: N/A
- 연락처: 31(0)20-624-5093
- 기타 특이사항: 다운타운에 위치한 이탈리아 식당으로 가벼운 점심 등을 해결하기 좋음.

□ De Roode Leeuw

- 위치: Damrak 93-94, 1012 LP Amsterdam 4, 9,16, 24, 25번 트램 다운타운담역에서 하차(5m)
- 주요메뉴: 현지식(해산물요리) 및 양식 등
- 가격대: 15-20

- 홈페이지: <http://www.hotelamsterdam.nl/restaurants.htm>
- 연락처: 31(0)20-555-0666
- 기타 특이사항: 다운타운 중심가인 담광장에서 바로 인접한 식당으로 비즈니스 관광 시 최고의 교통 편의성을 지닌 식당

□ Yamazato

- 위치: Ferdinand Bolstraat 333, 1072 LHSchiphol 공항에서 차로 15분, 다운타운 까지 7km, 암스테르담 RAI 전시장에서 도보 5분(25번 트램 Cornelis Troostplein 역에서 하차)
- 주요메뉴: 일식
- 가격대: 50-100유로
- 홈페이지: www.okura.nl
- 연락처: 31(0)20-678-7111
- 기타 특이사항: 특급호텔인 오쿠라호텔 내 직영 일식레스토랑으로 대부분의 직원이 일본인이며 철저한 일식을 표방, 중요한 비즈니스미팅 등에 적합한 레스토랑

□ De Jonge Dikkert

- 위치: Amsterdamseweg 104a 1182 HG Amstelveen 암스테르담 외곽지대에 위치, 다운타운에서 15km, 공항에서 10km (Bus 166번 Molenweg정류장에서 하차)
- 주요메뉴: 각종 생선(연어)요리, 스테이크요리 등
- 가격대: 20-50유로
- 홈페이지: www.jongedikker.nl
- 연락처: 31(0)20-643-3333
- 기타 특이사항: 네덜란드 전통풍차를 레스토랑으로 개조한 프렌치풍이 가미된 네덜란드 전통식당으로 주말 예약 필수

□ Excelsior

- 위치: Nieuwe Doelenstraat 2-8 Amsterdam 다운타운에 위치하고 있는 최고급 뢰로프 호텔 내 위치 (4,16,24,25번 트램 Muntplein역에서 하차 도보로 2분 이동)
- 주요메뉴: 각종 양식 및 생선요리 등
- 가격대: 40-70유로
- 홈페이지: www.leurope.nl
- 연락처: 31(0)20-531-1777
- 기타 특이사항: 암스테르담을 대표하는 최고급호텔인 뢰로프(De L'Europe) 호텔 내 레스토랑으로 약 500여종 3만여 병의 와인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암스텔강의 야경을 아름답게 감상하며 상담할 수 있는 레스토랑임.

□ Bazar Amsterdam

- 위치: Rembrandtplein 26-36 1017 CV Amsterdam 다운타운 내 위치
- (4,9번 트램 Rembrandtplein역에서 하차 도보로 1분 이동)
- 주요메뉴: 각종
- 가격대: 20-40유로

- 홈페이지: www.brasserieschiller.nl
- 연락처: 31(0)20-554-0723
- 기타 특이사항: 프랑스풍의 레스토랑으로 와인을 곁들인 비즈니스 접대에 좋은 장소

□ 미가(Mika)

- 위치: Buitenveldertselaan 158A, 1081 AB, Amsterdam
- (5번 트램, 51번 매토로 van Boshuzenstraat역에서 하차)
- 주요 메뉴: 한식
- 가격대: 16-18 (찌게류 기준)
- 홈페이지: N/A
- 연락처: 31(0)20-661-4077

□ 화원 (Hwawon)/ 칸(Khan)/ 한국관(Korean Restaurant)

- 위치: Nederhoven 13/15, 1083 AM Amsterdam(5번 트램, 51번 매토로 vanBoshuzenstraat 역에서 하차 도보로 5분 이동. 화원, 칸, 한국관 3개 식당이 동일 블록 내 위치)
- 주요메뉴: 한식
- 가격대: 16-20유로 (찌게류 기준)
- 홈페이지: N/A
- 연락처
 - 화원: 31(0)20-642-3142
 - 칸: 31(0)20-646-3722
 - 한국관: 31(0)20-644-5273

□ Restaurant D'Vijff Vlieghen

- 위치: Spuistraat 294-302 1012 VX Amsterdam
- (1,2,5번 트램 Spui-Nieuwezijds Voorburgwal역에서 하차)
- 주요메뉴: 각종 네덜란드식 생선 및 야채요리
- 가격대: 30-50유로
- 홈페이지: www.thefiveflies.com
- 연락처: 31(0)20-530-4060
- 기타 특이사항: 렘бран트 유화 4점이 걸려있는, 전통 네덜란드 요리를 접할 수 있는 식당. 주말에는 예약 필수

아. 관공서 관행

네덜란드 관공서는 효율성이 여타 EU국가와 비교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알려지고 있다.

네덜란드 관공서의 경우 행정절차상 필요한 사항은 대부분 Letter로 통보한다. 하지만 한번에 끝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개 이상의 기관에서 상호 협조처리 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며 이 때에는 서비스가 상당히 늦어지는 경우도 다반사이기 때문에 상당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 아울러 모든 서류는 화란어로 작성되어 있으므로 화란어를 할 수 없는 외국인이 일을 처리하기엔 다소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나 접촉하는 공무원들은 모두 영어가 유창하다.

자. 공휴일

1) 개 요

- 네덜란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 New Year's Day (신정): 매년 1월 1일
- Queen's Birthday (여왕탄신일): 매년 4월 30일
- Good Friday - Easter Monday (부활절 연휴)
- Whit Monday(성령강림일)
- Ascension Day (예수 승천일)
- Christmas-Second Christmas Day (크리스마스): 매년 12월 25-26일

2) 2008년 공휴일 내역

공휴일	일 자	참고 사항
New Year's Day (신정)	1월 1일	
Easter (부활절)	3월 21~24일	전후 1주일간 휴업업체 다수
Queen's Birthday(여왕생일)	4월 30일	
Ascension Day(예수승천일)	5월 1일	
Whit Monday(성령강림일)	5월 12일	
Christmas (성탄절)	12월 25~26일	공식휴일은 25-26일 이틀간이나 실제로는 24일부터 신년 첫주까지 휴가를 갖는 기업들이 많음

3) 휴가기간

네덜란드인은 여타 유럽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휴가기간이 긴 편이다. 법정 공식휴가 일수가 최저 20일(Working Day 기준)로 거의 한달 정도 휴가를 가기 때문에 방문 전에 반드시 방문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대부분의 휴가가 7-8월과 12월에 집중되어 있어 사전에 방문 약속이 잡혀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기간 중 현지 방문 상담은 피하는 것이 좋다.

차. 여행 시 유의사항

네덜란드 여행시 주의할 점은 기타 해외지역과 크게 다를 바는 없으나, 암스테르담과 같은 대도시 내 다운타운을 관광할 경우에는 소매치기를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이들 소매치기는 주로 중동, 아프리카 계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대부분 단체로 행동하고 있다. 특히 현금을 많이 소지하고 다니는 동양인들을 표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낯선 사람이 길을 묻는다거나 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에도 침착하게 행동해야 한다.

특히 최근에는 중앙역, 박물관, 패스트푸드점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소매치기가 성행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강도행위도 증가하고 있다.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행인의 옷에 이 물질을 묻힌 후 죄송하다고 한 후, 인근 화장실로 유인한 후 금품을 뺏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가능한 여러 사람이 있는 공용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을 권장함.)

또한 사복경찰을 사칭하는 2인조 강도가 마약 검사한다는 명목으로 신분증 및 지갑을 요구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히 경찰에서 아시아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주의가 가끔 발생되고 있다. 특히 아시아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위조화폐 검사를 한다고 다가오는 경우도 많이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여행경비는 가급적 여행자수표로 준비하고 현금을 소지할 경우는 꼭 필요한 금액만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좋다. 비행티켓이나 여권은 숙소에 보관하고 사진기나 비디오 카메라와 같은 귀중품을 소지하는 경우에는 절대로 주의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현금을 찾아야 할 경우에도 어두운 골목이나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곳에서는 현금을 찾지 않는 것이 좋다.

기타 관광정보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안내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별로 소재하고 있는 관광안내소(VVV)에 문의하거나, 현지인들의 영어소통이 원활한 장점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카. 유용한 연락처

1) 비상 연락처

네덜란드 내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화번호들은 아래와 같다. (국가번호 생략)

- 네덜란드주재 한국대사관: 070-358-6076
- 암스테르담무역관: 020 673-0555
- 외환은행 암스테르담지점: 020-546-9331
- 경찰: 112 (범죄신고 및 응급차 요청 시)
- 화재 시: 112
- 앰بول런스 요청: 112
- 긴급의사 문의: 3455300
- 야간약국: 일간지 또는 각 약국문에 안내문(약국- APOTHEEK, 병원 - ZIEKENHUIS)
- 물건분실 센터: 3619669

2) 여행필요 연락처

- 전화번호 문의: 0900 8008 (국내), 0900 8418 (국제)
- 네덜란드 철도청: 0900 9296
- 대중교통 안내: 0900 9292
- 교통상황 안내: 0900 9622 (국내)
- 스키폴 국제공항: 0900 0141
- ANWB 여행 안내: 0900 910 910 1
- 한국인 운영여행사
 - NTS(Nederland Tour Service)
 - 전화번호: 023-562-4056
 - E-mail : nederlandtour@planet.nl
 - Euhan Creative Tour Service
 - 전화번호: 020-640-7022
 - E-mail : euhan-loc@xs4all.nl

- Daehan Travel
- 전화번호: 020-697-4720
- E-mail : scson@chello.nl

타. 기타 유용한 정보(비즈니스 쇼핑)

네덜란드는 소박한 국민기질 탓으로 제품에 있어 대부분 실용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다이아몬드 및 델프트 도자기 등 네덜란드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고가제품도 눈에 띈다.

추천할 만한 상품은 델프트 도자기, 백납 제품(Pewter), 제품수공업품, 가족제품, 베흐 시장에서 의 각종 골동품, 세계적 유명아동복 브랜드인 Oillily, 청바지 브랜드 G-STAR, 유아용품 브랜드인 PRENATAL 등이다.

- Bijen Korf
 - 암스테르담 다운타운 중앙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최고급 백화점
- Magna Plazq
 - Bijen Korf와 같은 블록 내에 있는 백화점으로 옛 우체국건물을 활용, 고풍스럽고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물씬 풍겨 관광객들이 종종 방문
- P.C. Hooftstraat (명품거리)
 - 반고흐박물관 뒤쪽으로 고급브랜드들이 즐비한 명품거리로 매년 8월 및 1월 초 세일 기간으로 접어든다.
- Nieuwmarkt 베흐시장
 - 5월부터 9월 말까지 매주 일요일 다운타운과 인접한 Nieuwmarkt 광장에서 앤티크 베흐시장이 열린다.
- Roermond fashion outlet
 - 암스테르담에서 남쪽으로 약 2시간 거리에 있는 로어몬드시에 위치한 아울렛으로 각종 유명브랜드 제품을 다소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 <http://www.designeroutletroermond.com>
 - 여름과 크리스마스 시기에 할인 가격에서 추가 할인을 실시하므로 알뜰 쇼핑도 가능하다.

카. 관광명소

1) 암스테르담

□ Rijksmuseum (네덜란드 국립박물관)

- 15~19세기 네덜란드의 미술품, 선사시대 이후 네덜란드 유물이 전시되어 있으며, 세계적인 거장 렘브란트의 "Night Watch"(야경꾼)이 전시된 네덜란드 최대의 국립 박물관
- 홈페이지: www.rijksmuseum.nl

□ Van Gogh Museum (반 고흐 박물관)

- 유화작품 200여 점, 데생 500여 점 및 편지 700여 개를 전시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반 고흐 소장품 미술관으로 반 고흐 작품 이외에 기타 인상파 화가들의 작품도 전시
- 개장시간: 매일 오전 10시~오후 18:00(매표소 17:30까지)
- 안내전화: +31 (0)20 570 5252
- 홈페이지: www.vangoghmuseum.nl

□ Anne Frank House (안네 프랑크의 집)

- 2차 세계대전 중인 1942년부터 1944년까지 유대인소녀 안네 프랑크 일가가 독일 나치 군의 만행을 피해 은둔했던 장소
- 개장시간: 매일 오전 9시~오후 7시, 4월 1일~9월 1일까지는 오전 9시~오후 9시, 1월 1일과 12월 25일은 오후 12시~5시
- 홈페이지: www.annefrankhuis.nl

□ Damrak (담광장)

- 암스테르담의 중심지라 할 수 있으며, 광장 주위에 구왕궁 및 2차 대전 위령비가 소재해 있음.
- 이곳에서부터 Kalverstraat까지 이어지는 쇼핑거리가 유명하며 Magma Plaza 등 유명 백화점들도 이 거리에 위치하고 있음.

□ 기타

- 운하관광: 관광유람선을 이용, 암스테르담의 주요 운하를 따라 운행. 약 1시간여 소요.
- 다이아몬드 커팅센터: Coster Diamond 및 Gassan 등에서 관광객들을 상대로 다이아몬드 커팅 시범을 보인다. 한국인 직원의 안내로 구매도 가능하다(반 고흐 박물관 맞은편에 위치).

2) 헤이그

□ Madurodam (마두로담)

- 암스테르담의 옛 건물, 알크마르의 치즈시장 및 델타프로젝트 등 네덜란드의 명소들을 1:25로 축소해 놓은 미니어처 공원
- 개장 시간: 오전 9시~오후 5시 www.madurodam.nl

□ Binnenhof (비넨호프)

- 13세기 고딕양식의 궁으로 영주의 성으로 사용되다가, 현재는 국회 의사당으로 사용되고 있음

□ Peace Palace (평화궁)

- 국제사법재판소 건물
- 홈페이지: www.peacepalace.nl/

□ Yi Jun Peace Museum (이준 열사 기념관)

- 1907년 헤이그에서 개최된 제 2회 만국평화회의의 사절단으로 참석했다 순국하신 이준 열사 박물관으로 유품 등이 전시되어 있음. 헌화용 꽃 준비필수

□ Scheveningen (스헤브닝혼 해변)

- 네덜란드 최대의 해변으로 연중 내내 해외 및 국내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 주변에 각종 위락시설 및 식당가가 즐비해 있음.

3) 기타 지역

□ 로테르담항

- 세계 최대 화물처리항구로서 Europort라고도 불린다. Speedo(쾌속유람선)를 이용 관광 가능

□ Afsluitdijk (북해댐)

- 북해를 가로질러 Noor-Holland(북홀랜드주)와 Friesland (프리슬란드 주)를 잇는 총 33km 의 거대한 제방

□ Zaanse Schans (풍차마을)

- 네덜란드 전역에 분포되어 있던 각종 옛 풍차들(종이 및 기름제조 등)을 옮겨 재조립하여 관광지로 조성한 민속촌으로서 현재도 주민들이 전통의상을 입고 생활하고 있음. 민속촌 내에 나막신과 치즈제조 공장 및 상점이 있음.
- 홈페이지: <http://www.zaanseschans.nl>

□ Keukenhof (케켄호프)

- 세계최대의 튜립 공원으로 매년 튜립이 피는 3월 말에서 5월 중순까지 개장
- 개장시간: 매일 오전 8시~오후 5시 30분
- 전화: +31 (0)252 465 555
- 홈페이지: www.keukenhof.nl

□ Aalsmeer Flower Auction (알스미어 화훼경매장)

- 세계 최대의 화훼경매장으로 일반인들도 경매관람이 가능
- 홈페이지: <http://www.vba-aalsmeer.nl/english/>

□ Volendam (볼렌담)과 Marken (마르켄섬)

- 네덜란드의 전형적인 어촌 민속마을로 목조형 가옥이 아름다움.

□ Delta Expo

- 네덜란드 남부 Zeeland(제이란드주)에 위치한 개발과 환경간의 조화가 잘 이루어진 방조제로 유명

□ Delft (델프트)

- 네덜란드의 특산품 중 하나인 Dekftblauw(청색 도자기)의 고향으로 TU Delft(델프트 공대)가 소재한 곳

□ 알크마르 옆의 작은 마을 Schoorl

- 치즈시장이 열리는 알크마르 부근의 Schoorl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작고 조용한 아름다운 마을이며, 마을 자체는 아주 작기 때문에 숙박 및 관광시설, 거리의 카페 및 교회 등도 모두 아기자기해서 네덜란드 특유의 전통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관광 명소다.
- Schoorl 관광안내소(VVV Schoorl – Groet – Camperduin)
- Tel: 072 – 5091504 <http://www.schoorl.info/>

□ 국립공원 De Hoge Veluwe

- 5천 헥타르에 달하는 네덜란드 최대의 자연보호 국립공원으로 600여 마리의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음.
- 입장료는 공원입장만 아동 6~12세까지 2,50유로, 어른 5유로, 공원과 미술관 입장 포함은 아동 5유로, 어른 10유로임.
- 개장시간은 오전 8시부터, 폐장은 월별로 조금씩 다른데 4월과 9월은 오후 8시, 5월과 8월은 9시, 6-7월은 10시, 10월은 7시, 11월부터 3월까지는 9시 개장, 오후 5시 30분 폐장
- Het Nationale Park De Hoge Veluwe는 Arnhem, Ede 그리고 Apeldoorn 사이에 위치, 공원입구는 Hoenderloo, Otterlo, Schaarsbergen에 있음.
- 전화: 0900 46 43 835 <http://veluwe.businessmedia.nl>

□ Texel

- 길게 펼쳐진 모래사장이 인상적임.
- 네덜란드 북서쪽 위치한 Den Helder에서 매시간 운행하는 페리 이용
- 전화: 0222-369691/369692 www.teso.nl
- Texel 관광안내소(Emmalaan 66, Den Burg)
- 전화: 0222 314741, www.texel.net

□ Kinderdijk (전통 풍차마을)

- 1997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관광지로 네덜란드 내에서 유일하게 10개 이상의 전통 풍차를 보존. (총 24개의 풍차)
- 로테르담에서 서남쪽으로 약 40km 정도 떨어져 있어 교통이 상당히 불편함.